

성도의 빛 1 1985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4차 반연차 대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십이사도 평의회 일동

“성도의 빛이 없이는 말일성도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4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84년 10월 6~7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열린
대회 일정 및 말씀

대 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1984년 10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열린 금년도 10월
반연차 대회의 일반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반연차 대회는
말일성도들이 듣는 귀와 이해하는
가슴을 지니고 서로 훈계하고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독특하고
특별한 행사입니다.”

“우리는 공통의 신앙과 간증으로
결속되고 단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회원으로서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한 부분이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했다.

이들 동안의 대회는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이 감리했으며 그는 다섯
번의 일반 총회 중 세 모임에
참석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도 한 모임에
참석했다. 대회 모임은 힝클리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사회했다.

이 대회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토요일
아침 첫번째 일반 총회에서 행해졌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매리온 디 행스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지지받았다. 이 회장단의 로이든 지
베릭 장로가 시애틀 신전장으로
봉사하도록 임명받았으므로써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대회에서는 또한
세 사람이 새로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일리노이주
엘름허스트의 존 소버버그 장로,
와싱턴주 벨레부의 에프 아더 케이
장로, 유타주 옥든의 키이트 더블류
윌콕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 세
사람을 지지하기 전에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종신제가 아니고 일정한 임기 동안
봉사할 세 사람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다른
형제들이 이 정원회에 부름 때 정해진
방식으로써 이분들은 보통 3년 내지
5년 동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원회에 세 사람이 다시 추가됨으로써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모두 56명이
되었으며 그 중 7명은 명예 총관리

역원이다.

또한 이 대회에서 바바라 더블류
윈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보좌로
제1보좌에 조이 프레윈 에반즈,
제2보좌에 조앤 부쉬먼 독시 자매가
지지받았다. 아테스 지 캡 본부 청년
회장의 보좌로는 제1보좌에
패트리시아 테리 홀란드, 제2보좌에
머린 존슨 털리 자매가 지지받았다. 이
보좌들의 임명은 몇 개월 전에
발표되었다.

연차 대회 실황은 미합중국과 캐나다
전역에 있는 9백개 이상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교회 회원이 모인 가운데
위성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대회의
일부분은 수많은 유선 텔레비전 방송
및 수많은 상업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을 통하여 중계되었다.

9월 27일 토요일 저녁 총회가 열리기
전에 태버내클에서 자매들의 총회가
열렸다. 여성들과 만10세 이상의
소녀들이 태버내클에 모였으며 교회
전체를 통하여 수많은 장소의 집회소에
모여 텔레비전이나 위성 중계를
보았다. *

성도의 벗 1

1985

International Magazine © 1985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턴 에이치 옥스

고문 :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딘, 맥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통 권 : 제233호, 제21권 제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5년 1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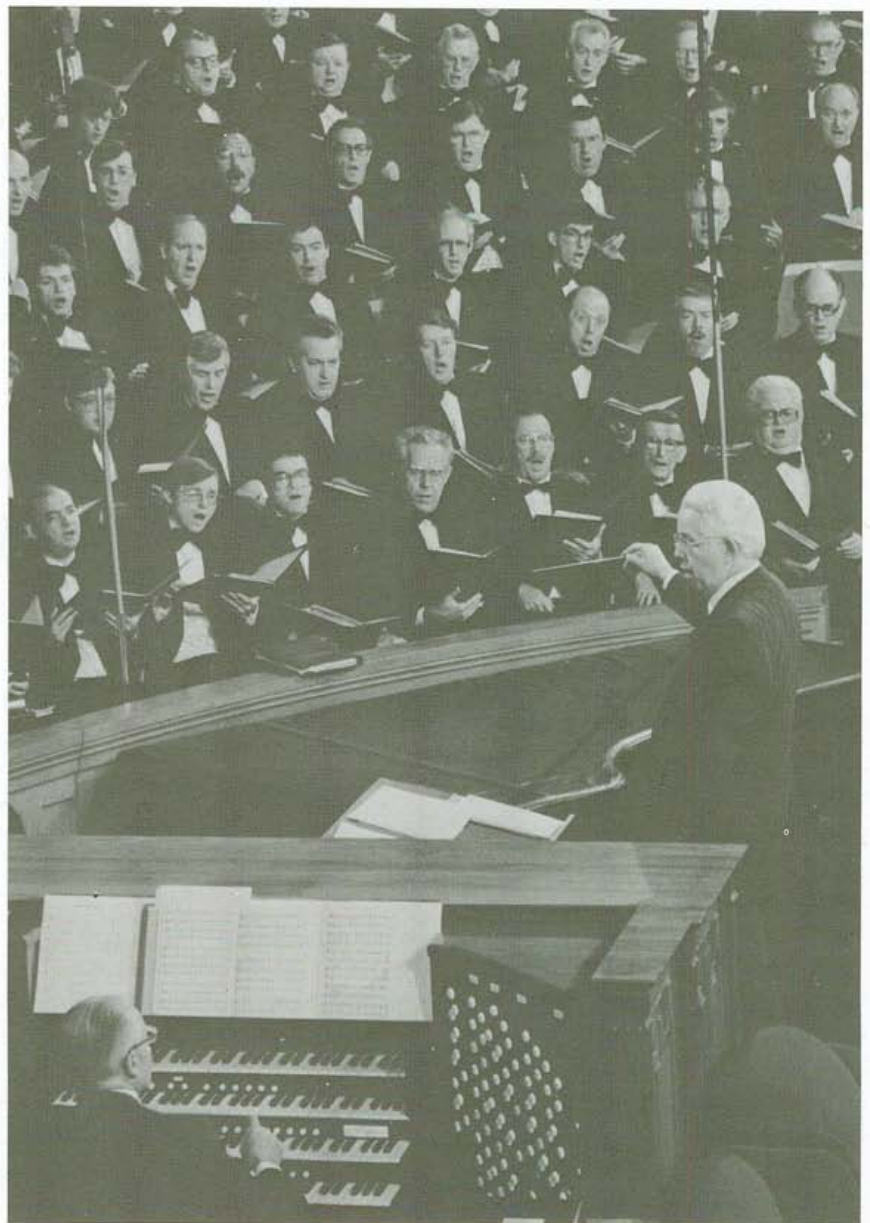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16KO PRINTED IN

KOREA 1/85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
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새로운 성도의 벗!



차례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4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교회 역원 지지……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6. 그리스도의 새 증인……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9. 희미한 데서……닐 에이 맥스웰 장로
12. 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까?……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16. 날짜를 정하십시오……엠 러셀 벨라드 장로
18.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엘 톰 페리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21.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24. 봉사의 기쁨……러셀 시 테일러 장로
26. “급히 돌아갔더라”……로버트 비 하버슨 장로
27. 영적인 힘……디비어 해리스 장로
29. 스며들어 오는 빛의 기쁨……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31. 영적인 힘의 근원을 보호함……러셀 엠 넬슨 장로
34. “주여, 큰 폭풍우 일고”……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신권회

37. 영원한 결혼……매리온 디 행스 장로
40. 주님의 기수……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43. 아론 신권의 길……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46. 선교 사업을 준비함……러벨 에드워드 형제 브리감 영 대학교 미식 축구 수석 코치
49. 소년단 대장으로……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52. 착하고 충성된 종……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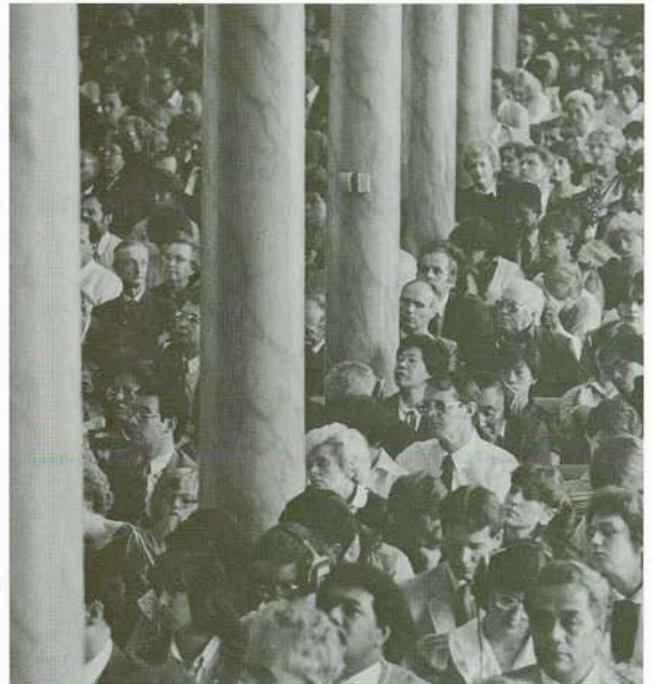
54.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58. 하나님의 하시는 일……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6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64.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로이든 지 데릭 장로
67. 복음과 교회……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69. 우리 부모의 모범……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일요일 오후 모임

72. 개인의 도덕성……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76.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움……휴 더블류 피녹 장로
79. 교회에서의 봉사……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장로
81. 사람들의 신앙……필립 티 스타그 장로
83.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오는 힘……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86. 대상은 계속 전진합니다……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90.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여성 대회

92. “만일 네가 충실하면”……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96. 통합과 협력……딘 엘 라슨 장로
98. 협력: 믿음을 행함으로 바꾸자……바바라 더블류 윈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100. 함께 협력하는 청녀……아데스 지 본부 청녀 회장
103. 침례식에서 맺은 성약을 지킴……드 제이 영 초등학교 회장
106. 교회 및 지역 소식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같은 신앙과 간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지닌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지명받은 예언자를 모시고 있으며, 이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연로하고 몸이 쇠약해지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감사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후 로이든 지 데릭 장로는 시애틀 신전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불가피하게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서 그를 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계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의 큰 노고와 지대한 봉사에 사의를 표하며 이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리온 디 헝스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회장단의 새로운 반쪽을 비롯하여 교회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새로이 세 분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지난 4월, 이 정원회에 부름받은 다른 형제님들과

마찬가지로 종신제가 아니며 대개 3년 내지 5년 동안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하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존 소넨버그 장로와 에프 아더 케이 형제와 키이드 윌슨 윌콕스 형제를 지지합니다. 시카고 출신의 존 소넨버그 장로는 감독,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지역 대표로서 시카고 신전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출신의 에프 아더 케이 형제는 감독, 스테이크 부장, 지역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최근에 시애틀 신전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옥든 출신의 키이드 윌슨 윌콕스 형제는 감독,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역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옥든 신전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바라 다블류 윈더 자매와 아데스 지 캡 자매는 지난 연차 대회 때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과 본부 청년 회장으로 각각 지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이 프레원 에반스 자매와 조앤 부시먼 독시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윈더 자매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각각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시아 테리 홀란드 자매와 머린 존슨 털리 자매가 본부 청년 회장인 캡 자매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각각 부름받았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이 직책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예를 제외하고는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구성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 모두를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들이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이 수많은 청중을 바라보며 바다 건너 대륙의 많은 스테이크 센터에는 여러분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벅칩니다. 교회의 이러한 연차 대회는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사업을 책임맡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권고하기 위해 말일성도들이 듣는 귀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과 간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지닌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지명받은 예언자를 모시고 있으며, 이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연로하고 몸이 쇠약해지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감사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대부분은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교회 대관장이 연로하신 것을 염려합니다. 주님 자신이 마련하신 조직에서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대관장에게는 두 분의 보좌가 계십니다. 그 중 한 분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교회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결정 능력을 지닌 살아 있는 대관장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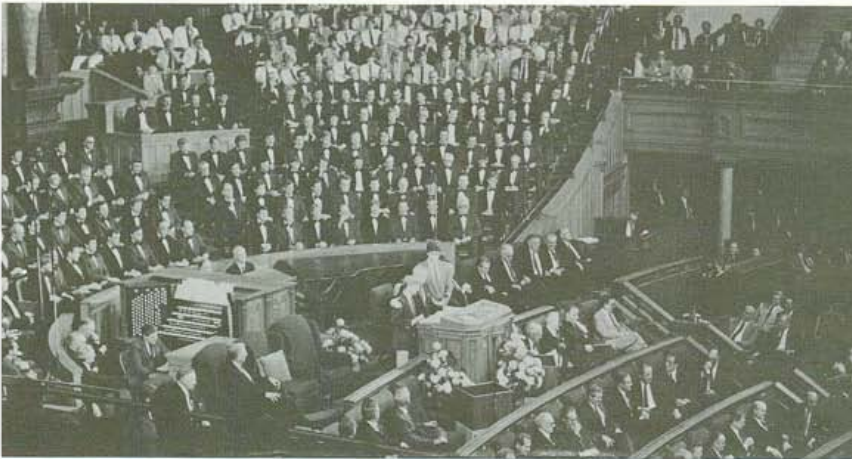
십이사도 평의회는 대관장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대관장단이 부재일 경우에는 십이사도 평의회가 그 임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아이오아주를 횡단하여 미주리주에서 윈터 쿼터를

세우고 1847년 이 계곡으로 역사적인 대이동을 한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브리감 영이 윈터 쿼터스로 되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또한 타락의 길로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셨습니다. 이 교회는 융통성과 순응성이 있는 영감받은 조직이며,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훌륭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지상에 있으며, 교회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권세와 회원들의 마음에 있는 개인적인 신앙과 간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세계적인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연사와 노래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특히 오늘 함께 모인 많은 회중 가운데 회원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과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품성이 높아지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드립니다. 아멘. *



대회 광경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그리스도의 새 증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김볼 대관장께서 내다보신 대로 영혼을 거두어 들이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도구로 마련하신 물몬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물몬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멕시코시티 신전 헌남에 참가했을 때, 우리가 물몬경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주님께서서는 모든 교회 곧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물몬경을 잘못 대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몬경과... 기억하며...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57절)

시온이 이러한 저주를 받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교성 82 : 14 참조)

그것은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할 중대한 질문 다섯 가지를 제기하게 합니다.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습니까? 이 경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몬경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첫째,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교성 20 : 8-9 참조) 그 기록자들도 그렇게 간증했고(니이 33 : 10; 모로 7 : 35 참조) 번역자도 그러했고(신앙 개조, 제 8 조 참조) 물몬경의 증인과 이 책을 읽어 보고 물몬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몬경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물몬경의 최후의 기록자인 모로나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물 8 : 35) 하나님은 물몬경의 편집자인 물몬에게 영감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것을 그 책 속에 포함시키게 하셨습니다.

셋째, 물몬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 스미스는 이 책을 “우리 종교의 종석”(교회사 4 : 461)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물몬경과 계시를 메어내면 우리 종교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교회 정사, 2 : 52)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번역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성 5 : 10)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

“그러나 불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자초하게 되리라.”(교성 20 : 14-15)

넷째, 물몬경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 그와 화해하고 그분의 교회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로 7 : 39; 교성 20 : 37)

물몬경의 표지에는 이 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확신”시키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물몬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교성 20 : 11) 증명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몬경은 참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번역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주님의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업을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책을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이 책을 읽고 스스로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은 서로 속이는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몬경은 이 책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책을 읽고 이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모로나이서의 마지막 장에서 모로나이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거룩한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인지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모로 10 : 4)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가장 크게 확신하게 되는 방법은 물문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수백만이 이를 행하여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물론 영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어제의 식사로서는 오늘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을 이따금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교회사 4 : 461)

모든 진리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듯이 모든 경전의 가치도 같지는 않습니다. 물문경을 자주 읽는 것보다 영을 살피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른 어느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정사, 4 : 461)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몇 해 전에 그는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매일 아침 30분 동안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물문경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책보다 주님의 영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49년 4월, 36페이지)

물문경은 “이스라엘 백성인 나의 백성 앞에 기호가”(니이 29 : 2)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야 할 기호입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는 물문경이 가르쳐 주는 중요한 진리를 요약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교성 20 : 17-36 참조) 물문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승천, 예언자와 신앙과 회개, 침례와 성신과 인내와 기도와 은혜로 의와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관해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물문경에서 아몬과 암몬과 그들의 형제들은 암흑의 지옥에 머물러 있는 레이먼 백성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자리에 앉은 대관장단 제1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을 심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총회에서 환영하고 있다.

가르쳤습니다. (엘마서 26 : 3) 이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인 후, 물문경은 개심한 레이먼들이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음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엘마서 23 : 6)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이 진리를 배워 그것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들은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식탁에서나 난로가에서나 침실에서나 편지나 전화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들에게 물문경에 있는 가르침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부모들은 매일 이른 아침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물문경을 읽고 토론합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물문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12절)

물문경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물문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단일 도구입니다. 우리가 김볼 대관장께서 내다보신 대로 영혼을 거두어 들이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도구로 마련하신 물문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보다 물문경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 개심하고 일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강한 간증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성경보다는 물문경으로 인해 수만배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978년 8월 18일에 브리감 영 대학에서 행하신 말씀)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을 경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성경은 유대 백성과 그들의 땅과 성지와 그들의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에 관해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

뿐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해 준 장자권을 지니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창 48:16)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창
49:22)하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의
기록은 어디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기록인 물문경을 갖고
있음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백성이
있었으니 그들은 나파이인과
레이맨인입니다. 유다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땅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미대륙이었으며, 유다처럼 요셉도
예언자가 있었으며 요셉의 후손들도
부활하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주께서는 물문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민족이
하나만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두 민족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내가 그 중 한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기억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한 번 말하였다 하여
다시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지
말라.”(나이 29:7-9)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인 물문경을 읽을 것을
권고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다른 종파의
설교단에도 놓여 있습니다. 요셉의
기록인 물문경은 성경을 증거하고
명백히 해줍니다. 물문경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며 많은 간결하고도 진귀한
사실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를 함께 사용할 때 성경과 물문경은
거짓 교리를 뒤집어 엮고 논쟁을
잠잠케 하며 평화를 이룩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이 3:12)

우리는 물문경이 참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책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책을 읽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문경이 심판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원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두번째 증인인 이
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리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이시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며 권능을 가진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의식을 집행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



희미한 데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제자들의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예언자를 위해서나, 시험과 훈계와 향상의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역사상의 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며, 축복과 도전이 함께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두려워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성 38 : 30 참조)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교회에서 불확실했던 점이 점점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활동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써 불확실한 것은 자주 오해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의 사업을 “희미하고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실 방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교성 1 : 30, 니일 22 : 12, 니이 1 : 23, 27 : 29 참조)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업은 더 이상 감추어 둘 수 없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교성 14 : 9 참조)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와 기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빛은 작으나 악마는 그 빛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그 빛을 어둡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약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들을 택하시어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고전 1 : 27, 교성 1 : 19, 28, 133 : 58, 59 참조) 보다 높은 시야에서 보면, 이러한 사실 역시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전 1 : 27)

제자들은 교회 회원이 적다고 실망하거나 유명 인사가 개종하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고전 1 : 26)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비교적 보잘것없고 수도 적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많은 불완전함이 눈에 띄지만, 주님은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을 원하십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진 교훈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단 300명의 군사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뽑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사사기 7 : 2 참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려 (힐 12 : 3, 이더서 12 : 6 참조)

우리의 인내와 신앙에 시련을 주시어 마침내 우리들이, “주 하나님 외에 저들을 구하실 자가 없음을”(모 23 : 23)알도록 단련시키십니다.

크기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갯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온 인류에게 지극히 중대한 일이었음에도, 그에 역비례하여 이 영원한 드라마가 상연되었던 곳은 이 지상의 조그마한 지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진리는 그것이 주어진 지역의 중요성을 크게 초월합니다. 그 성지는 비교적 작은 모래땅으로 길이가 320킬로미터 너비가 12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온 인류 역사의 중요한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알려 주지만,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페르시아나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어떠한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모든 다른 백성들까지도 예수와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대와는 달리, 고대의 국가나 문화는 서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대개 세속적인 역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왕 시대에는 만리장성을 쌓는 일로 한창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단 2 : 36-45 참조)에 관해서 알기를 기대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하이와 그의 개척자 일행이 미대륙에 상륙했을 때 쯤, 회람의 개혁가인 솔론은 18퍼센트의 이율 때문에 생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2,000명의 젊은 용사들이 니파이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야콥이 열심히 판에 문자를 새기고 있을 무렵, 인도의 한 의사는 백내장 수술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D 320-337년경 엠마론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니파이인들에게 소개하는 거룩한 기록을 감추어 두었을 때, 콘스탄틴 대제는 종교 회의를 열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논쟁했습니다. 물몬이 쓸쓸히 마음속으로 노래하면서 구모라 언덕으로 가고 있었을 때, 밀란의 암브로세 감독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역사 기록을 시작했을 무렵 니파이의 역사는 기울어지고, 로마는 영국 땅을 점령했습니다.

영적인 면에 대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세와 출애굽에 관계된 그 위대하고 떠들썩한 사건은 어느 왕 때 일입니까?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세속적인 기록에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문과 재판과 십자가에 달리신 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기사는 세속적인 역사에는 별로 귀중하지 않는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소 곤경에 처해 있었지만 일시적으로는 정치적 유익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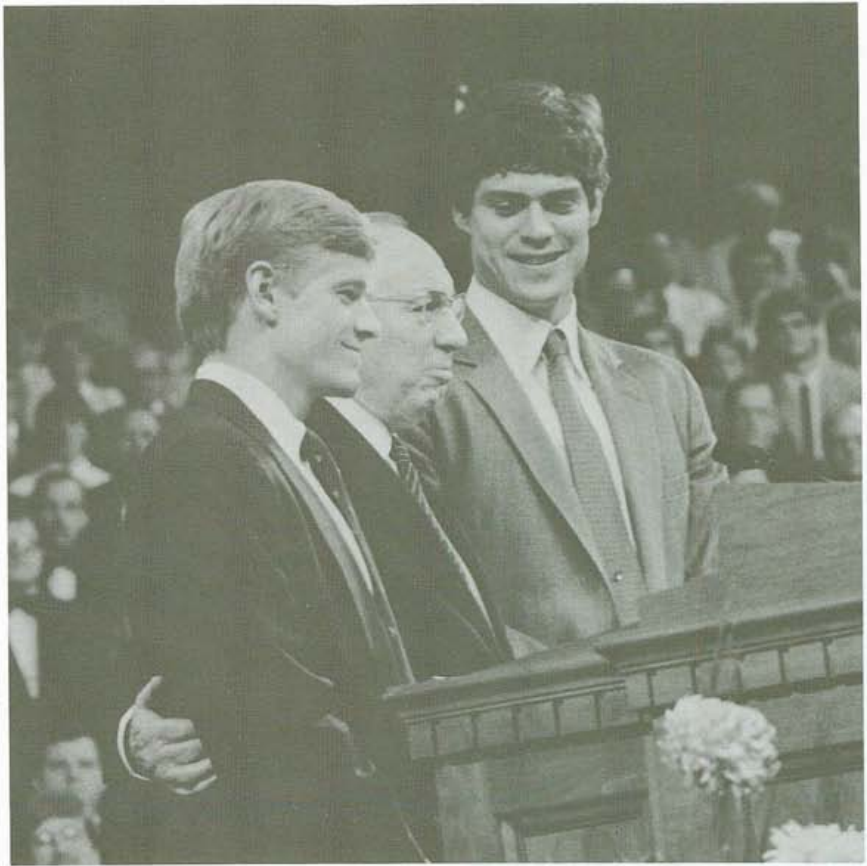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눅 23 : 12)

빌라도는 그 지역에서 잠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그가 가이사는 아니었습니다.

타키투스같은 역사가들은 기독교인과 로마와 네로에 관한 드라마에서 바울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대개 이 위대한 영적인 사건들은 영적인 면에서 훈련되지 않은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끝없는 근심의 바다 속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언젠가 역사적인 기록이 완성되었지만, 그렇더라도 경전이야말로 큰 의의가 있는 인간 역사의 영적인 사건을 꿰뚫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나,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 일로 분주합니다. 1910-11년 사이에 영국에서는 젊은 내무성 장관이 의회에서 말일성도



두 명의 말일성도 운동 선수,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피터 비드마(좌측), 야구 스타인 데일 버피(우측), 신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소개하고 그들의 충실한 모범을 칭찬했다.

선교사의 선교 권리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윈스턴 처칠은 종교적인 관용을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처칠 자서전에서는 이 일화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지도자로 택한 사람들도 대체로 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불완전함이 분명하게 들어난 셈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민 12 : 3 참조) 그러나 모세도 화를 내며 이렇게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민 20 : 10) 그렇지만 주님은 이 훌륭한 모세를 변형의 산에서와 다른 곳에서 후에 봉사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마 17 : 1-5 참조)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편지를 쓴 후(고전 13장 참조)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날카롭고 신랄한 말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더욱이나 바나바는 천사의 말이 아닌 바울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행 15 : 2 참조)

바울이 그의 자랑하는 버릇에 관해 언급한 것은(고후 10 : 8, 13, 15; 11 : 1, 16, 21; 12 : 1 참조) 다음과 같이 말씀한 다른 예언자의 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 (엘마서 26 : 11, 12) 오직 예수만이 사랑과 온유함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의 높고 완전한 표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회원인 우리는 제자들의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예언자를 위해서나, 시험과 훈계와 향상의 조화를 보고 훨씬 더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예언자들을 업신여겨 그들을 얕잡고 헐뜯어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세상의 역사가에 의해 일축되었습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나사렛 이단”(행 24 : 5)에 불과했습니다.

예전의 예언자들처럼 요셉 스미스는 그 시대의 불안과 활동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물결은 홀륭하지만 요셉의 말과 같이 불완전한 도관을 통해 흘러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련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알아내기 위해 먹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요셉 스미스의 말씀, 196페이지,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1980년)

어떤 추종자들은 불평을 품게 되었으나, 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더블류 펠프스, 토마스 비 마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발로 되돌아와서 왕국과 화해했습니다. 참된 교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희망과 감사의 대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르나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며...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몰 9 : 31)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대관장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나는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나는 요셉 스미스에게서도 약점과 불완전함을 보았습니다...나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약점이 있음을 잘 알며 이런 약점을 보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언자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특별히 고결하고 결점이 없으며 인격이 완전하며 하는 말에 실수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부족함을 주장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교회사 요해, 제2권, 360, 361 페이지)

예언자 요셉은 순교당하기 며칠 전에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은 결코 없습니다만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용 지물로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교회 정사, 6 : 366)

예언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놀라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에게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나도 너희를 시험하여 이로써 너희를 증험하리라.”(교성 98 : 12)

하나님의 사업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이사야서 28 : 10; 교성 98 : 12; 128 : 21 참조)

한편 윈스턴 처칠의 역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그 방법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란 깜박거리는 등불을 들고 과거의 길을 따라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며, 과거의 메아리를 되살리며, 과거의 열정을 희미한 불빛으로 타오르게 합니다.”(처칠, 네빌 챔버린에 대한 찬사, 바트렛의 인용집, 922페이지)

현대에 사는 제자들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경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전 속에서 우리는 엄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저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니라.”(모 23 : 21)

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특별한 시험이 필요합니까?

또한 왜 더 방대한 물문경을 주셔서 부활한 예수와 그의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바를 다 알려 주시지 않으실까요?

“보라 내가 니파이의 판에 새겨진

모두를 기록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이를 금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리니라 하신지라.”(니삼 26 : 11)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완전한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시험과 질책과 발전의 과정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한편, 인간이 영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면, 그들의 역사도 자리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사 29 : 21; 니삼 27 : 32)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 말로 어떤 개인이 전달하거나 상징하고자 하는 것을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몰래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눅 11 : 53, 54)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마 22 : 15)하고 의논했습니다.

회복의 역사에서 완성된 모자이크는 그림의 조각이 더욱 커지고 더욱 다양해져 우리의 이해력이 더욱 넓어지고 순서에 맞게 정리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윤곽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일을 다루며, 그들의 불완전함은 복음의 참빛에 굴절하게 됩니다. 어떤 그림 조각은 일시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좀더 두고 기다려 봐야 합니다.(마 1장; 눅 3장 참조) 한편, 아버지께서는 몇번씩이나 우리에게 예수의 제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그의 말을 들으라”(마 3 : 17; 17 : 5; 니삼 11 : 7; 요셉 스미스 이서 17 참조)

팅빈 동산 무덤에 있었던 사건과 인물에 관해 사복음서의 내용은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 28 : 1-8; 막 16 : 1-8; 눅 24 : 1-9; 요 20 : 1-10 참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와 같은 상세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나 지금이나 충실한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산헤드린, 가야바 또는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고 베다니와 바운티폴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고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보다 주의를 기울여 레이먼인 사무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니삼 23 : 9-14) 뒤늦게 예수의 지시에 따라 이 일은 완전하고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회복의 마지막 모자이크는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장식 곧 아버지의 구원과 승영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계획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우리를 위한 너무도 훌륭한 사업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업적"의 일부가 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를 자비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인간의 불협 화음 속에서도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은 우리를 부르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따를 것입니다. (고전 14 :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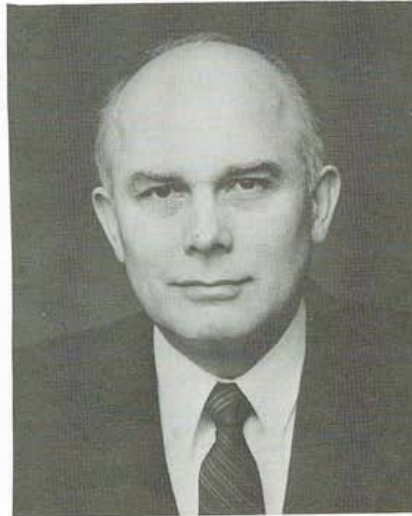
현재야 어떻든 우리는 "지난날이 입증해 주는 하나님 의심치 않나니" (찬송가 59장)라고 우리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모든 주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는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주정부의 판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교회 사도직의 봉사를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지받은 4월 대회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 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으며, 십이사도의 부름을 받고 그것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부름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인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신앙개조, 제 5조) 나는 기꺼이 나의 직업을 버리고 여생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난 4월 대회에서 교회 직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덟 분의 형제들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섯 분의 자매들이 상호부조회 및 청년회장단에 부름을 받았으며, 200명 이상의 형제들이 감독으로, 1,700명 이상의 남녀가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같은 달에 전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회원들이 많은 교회 조직에서 역원으로, 교사로 그리고 다른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4월에 부름받은 분들은 이 회복된 교회에서 먼저 부름받아 봉사하는 수백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름과 이미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는 다른 수백만의 성도들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에 나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봉사해야 하는가?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겨루는 제자들에게 구세주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 : 27) 후에 예수께서는 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 : 40)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교성 81 : 5) 교리와 성약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 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교성 58 : 27) 벨기세베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 권능을 사용하기로 성약합니다. 참으로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의 성스런 의무입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모 2 : 17 참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요 21 : 16-17 참조)

우리가 봉사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손으로 남을 돕는 행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계명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신 11 : 13)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져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택하려 했으나 주께서는 외모는 훌륭하지만 첫째 아들은 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 : 7)

우리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 : 7)이라는 잠언의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잠언에서 다음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잠 16 : 2)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은 인간 자녀의 행위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교성 64 : 34)

많은 성구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성 6 : 16; 모 24 : 12; 18 : 32 참조) 예언자 모로나이는 우리의 행위가 훌륭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로운 의도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를 참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

“보라 이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으로 용납되지 아니함ियो.” (모로 7 : 6-7)

예언자 엘마도 이와 비슷하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또한 우리를 정죄”(엘 12 : 14)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구는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우리가 순수히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왜 우리가 봉사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만으로 항상 전력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므로, 대체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봉사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러한 이유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높고 훌륭한 이유에서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봉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강 열거해 보면 여섯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차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봉사의 이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수입을 늘이거나 부를 얻을 목적으로 인간 관계 개선이나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교회 직책에서나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서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명성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복음 사업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금전으로 사고 파는 일”(엘 1 : 16 참조)이 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금전으로 행하는 자는 나아가 가르치며 저들 스스로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세상의 칭송과 유익을 구하며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않는

자라.”(니이 26 : 29) 말일에 우리는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교성 6 : 6)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명을 성취하려는 자들이 모두 시온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기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비이기적이나 실제로는 부와 영예를 위한 봉사는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마 23 : 28)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봉사는 복음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되 주의하여 너희 행하는 바가 사람들 눈에 보여지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리로다.”(니삼 13 : 1; 마 6 : 1) 구세주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같이, 너희 나팔이 너희 앞에서 울리지 않게 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니삼 13 : 2; 마 6 : 2 참조)

이와 반대로 은밀하게 조용히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드러내어 갚으시리라.”고 구세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니삼 13 : 18; 마 6 : 4 참조)

봉사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의 것보다는 더 합당하겠으나, 세상의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동기가 됩니다. 확실히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지만 그 때문에 봉사합니까?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명성있는 한 친구이자 함께 일하는 친구가 이사가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으나, 그의 친구가 그 와드를 떠나자 자신도 봉사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 역원은 동료 역원이 함께 있을 때만 봉사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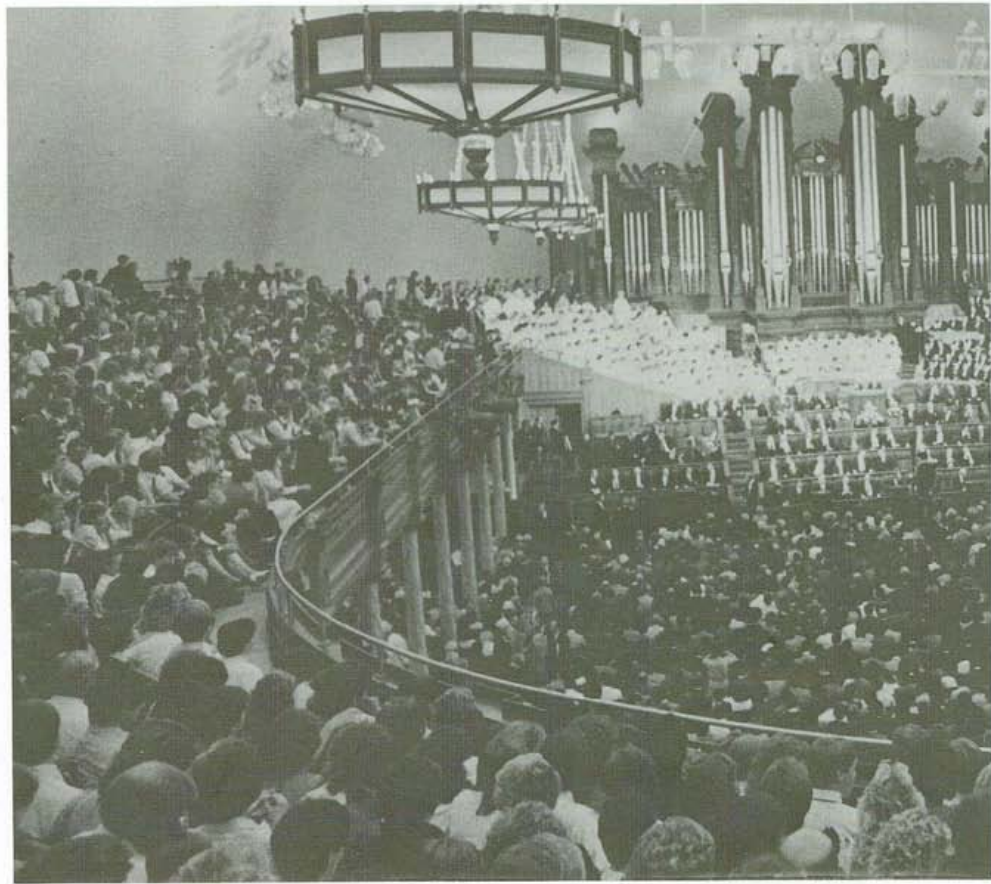
좋은 친구가 있을 때만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종이나

동역자를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그들의 친구를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그의 종들을 비천한 자들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 : 31-32)

교리와 성약 1편에는 말일의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교성 1 : 16) 위에서 말한 봉사의 두 가지 이유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만큼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롬 15 : 1)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은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 여러 이유보다는 명백히 차원이 낮고 보상도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이 두려워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상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치 않은 범죄자들의 영혼은 이러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지은 죄를 통렬히 느끼어, 주 앞에서 몸을 움츠리게 하시며 가슴을 죄의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고통과 번뇌로 가득하게 하시리니,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간야 그 불꽃이 영원토록 타오르리라.”(모 2 : 38) 그러한 설명은 봉사하라는 계명을 지키기에 충분한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나 벌이 무서워서 행하는 봉사는 낮은 수준의 동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무감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전통에 대한 충성 때문에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명령받은 바는 의심하지 않고 행하며



어떤 때는 왜 봉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행하는 선량한 군인들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자원 봉사 조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훌륭한 일로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건전한 일에 대한 의무감이나 충성심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영예로운 분들입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봉사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꺼이 기쁘게 행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두번째 서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 : 6-7)

이런 말을 한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받아주신다. 주님은 억지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강요는 세금이지 헌물이 아니다.”

벌이 두려워서 또는 의무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그보다 더 고귀한 봉사의 이유도 있습니다.

봉사는 더 높은 이유는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에 대한 열매를 맛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동기가 됩니다. 봉사의 이유로써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믿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영원한 보상에 대한 약속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29년 6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성 14 : 7)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동기는 봉사의 이유 중 가장 차원이 높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경전에서는 “제일 좋은 길”(고전 12 : 31)이라고 했습니다.



사랑(charity)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47)입니다. 물몬경은 이 덕성이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모로 7:46)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봉사하는 이유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1, 3)

우리는 이와 같은 영감의 말씀에서 최대한으로 행하는 봉사 곧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봉사라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가장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시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마 5:44 참조) 예수는 그러한 명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6-47)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나 낮은 동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봉사한다는 이 원리는 분명히 높은 표준의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비이기심과 완전한 사랑에 대한 그의 계명을 완성의 이상에 직접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이 위대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이 봉사의 원리가 교리와 성약 4편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교성 4:2)

우리는 이 명으로부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는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가 됩니다. 그러한 봉사에는 이기적인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몬경의 가르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에,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통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모로 7:48)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봉사는 시편 24편에 나타난 높은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시편 24:3-4)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순수히 하여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이유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일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날짜를 정하십시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칠십인 세일 정원회 회장단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도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간구하면 주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최 근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는 나에게 선교사과에서 일하도록 지명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약 47억의 인구가 오늘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그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세계의 인구는 1분에 150명이고, 한 시간에 9,100명, 하루에 218,100명, 일년에 7천 960만 명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50세라면,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세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세계 인구” 미국 뉴스 및 세계 보고서, 1984년 7월 23일, 52페이지)

현재 하루 동안에 태어나는 어린이의 수는 교회에서 1년 동안에 침례받는 자의 수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교 사업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의 임무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 : 19-20)

신앙으로 우리는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진리는 과감하게 그리고 고결하고 독자적으로 전해져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나라에 전달되어, 모든 지방을 휩쓸고, 모든 귀에 알려져,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나의 사업이 끝났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정사, 4 : 540)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에 대해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침례가 필수적인 의식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개종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라고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 성급하게,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우리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97페이지)

이 대답의 일부는 전세계에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 현대 통신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의 사용을 촉진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공 위성 등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활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많은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침례는 하나님과 천사와 하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회개, 죄사함을 위한 침례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약속받게 됩니다.” (교회 정사, 4 : 555) 침례를 받을 때,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으며 성도로 헤아림을 받아 교회 회원이 받을 수 있는 축복과 행복을 받습니다.

개종의 결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계속 죄사함을 받게 되며, 복음에 따른 생활에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때, 그리고 계속 굳건히 세상에 간증을 전할 때 더 쉽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우리 죄를 용서받을 또 하나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엔사인, 1977년 10월호, 5페이지)라고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나는 이 계명을 주어 너희 죄를 용서하리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일을 온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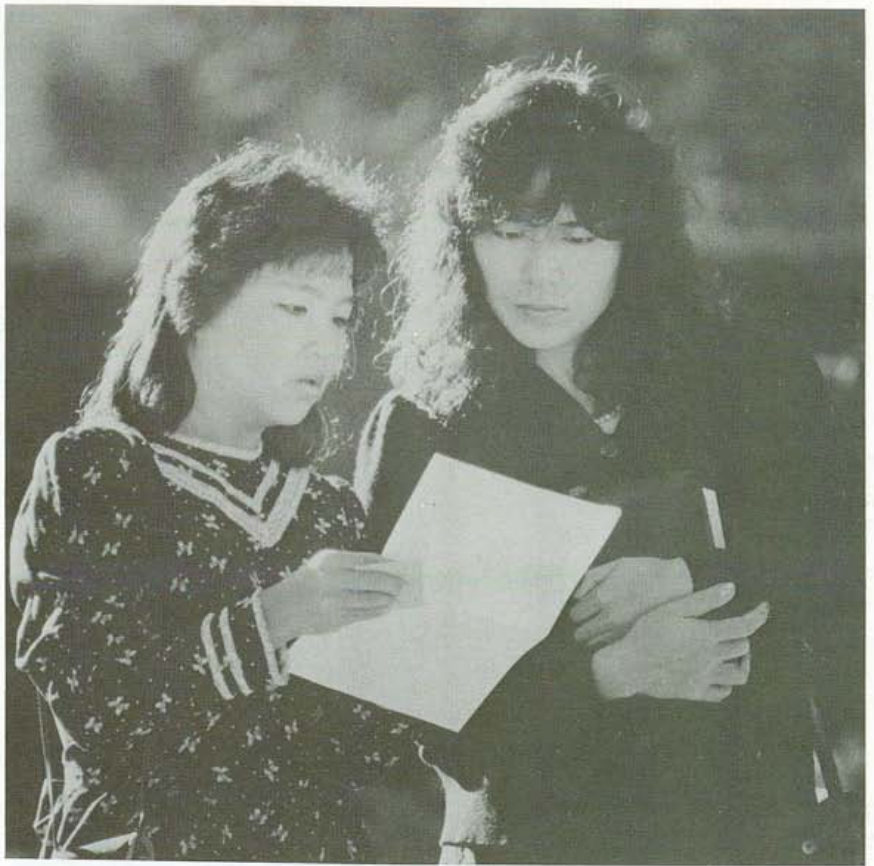
사람에게 간증할 때에 너희 마음속에 엄숙함과 기도의 정신을 굳게 세워 잃지 않게 하라는 것이니라.”(교성 84 : 61)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간증은 하늘에 기록되어 천사들이 볼 것임이라. 천사들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함받았도다.”(교성 62 : 3)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조오지 엘버트 스미스 내관장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기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배운대로 지키는 것이며, 둘째, 이를 알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대회보고, 1916년 10월, 50페이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찾도록 도와 주는 일보다 죄사함을 받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를 항상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성약을 맺습니다.(교성 20 : 77 참조) 그의 복음을 나누는 방법보다 여러분이나 내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 드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머나먼 도시로 가거나 타향에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친지, 친구, 가족, 친척 그리고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그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은 와드나 스테이크, 선교부 또는 다른 교회 조직을 통해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복음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러므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대회 방문자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 : 10-15)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가 영생을 약속받도록 하기 위해 온 인류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의 사업을 우리가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이 위대한 일을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을 실천하고 개인적인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누군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도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가족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회원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비회원의 이름을 알려 주시어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예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여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아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이름을 적지 말고 특정한 날짜만을 정하도록 제언했음을 아실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복음을 받을 사람을

알려 주는 하나님의 안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 생활이 죄사함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한 선교 사업이 복음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각자가 특정한 날짜를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정하여 개인이나 가족을 준비시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성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선교사과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께서 내가 제안한 바를 실천하여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선교 경험을 통해서 모든 교회 회원은 자신의 죄가 분명히 사함받았노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도움을 받도록 요청하고 다른 누구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노력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매년 교회의 성인 활동 회원 중 30%만이 이 간단한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가 이미 침례주고 있는 회원 이외에 20만 명을 더 개종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년만 더 해 나간다면 현재 회원이 하고 있는 것보다 540만 명을 더 개종시키게 됩니다. 만일 교회 회원이 100% 참가한다면, 우리는 곧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정한 날을 정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주려는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노력을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여,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의무로 알지 말고 특권으로 알도록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합당하게 계획을 세워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주님의 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선 행스 장로님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장로님께서 큰 재능을 지니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소넨버그, 케이 및 월콕스 장로님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새로이 결합하게 되니 참으로 즐거우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누가복음 6:45-46)

태초에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난 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매 에덴 동산 동편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를 뵈지는 못하였나니, 이는 주의 임재하신 곳에 가지 못하게 저들에게 문이 닫혀 있음이더라.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 떼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 명하시니,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모세서 5:4-5)

여러 날이 지난 뒤, 한 천사가 아담을 시험하여, 왜 주께 희생을 바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아담에게 독생자의 희생을 설명하였고, 인간은 죽음에서 구속받을 기회가 주어졌으니 만약 이에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서 5:6-9 참조)

“그날에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성신으로 찬탄하여졌고 세상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가로되 주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니,

“그 아내 이브는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던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모세서 5:10-11)

아담과 이브는 이러한 모든 일을 아들 딸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이 가르침을 영속시켰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예언자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하고 완전한 은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빛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여야 합니다. 모든 축복이 이 원리(율법의 순종)에 입각한 것이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 교리, 194페이지)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항상 옳고, 선하며, 영감을 줍니다.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심판의 날에 당하여 애통함과 비참함과 분쟁과 불행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한 것을 강하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고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범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월요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 : 8-11)

주님은 오늘날에도 그 가르침을 주님의 성도들로부터 거두어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 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교성 59 : 9-13)

여기에서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에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는 것이며, 둘째는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취하며, 세째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세상적인 곳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에 합당한 옷을 입을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종종 “가장 좋은 옷은 주일날에” 라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옷차림이 “평상시” 복장으로 질이 떨어지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히 우리가 입는 복장에 따라가는 듯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입을 옷을 온종일 입어야 한다거나 또한 안식일에 합당하지 못한 옷을 입어도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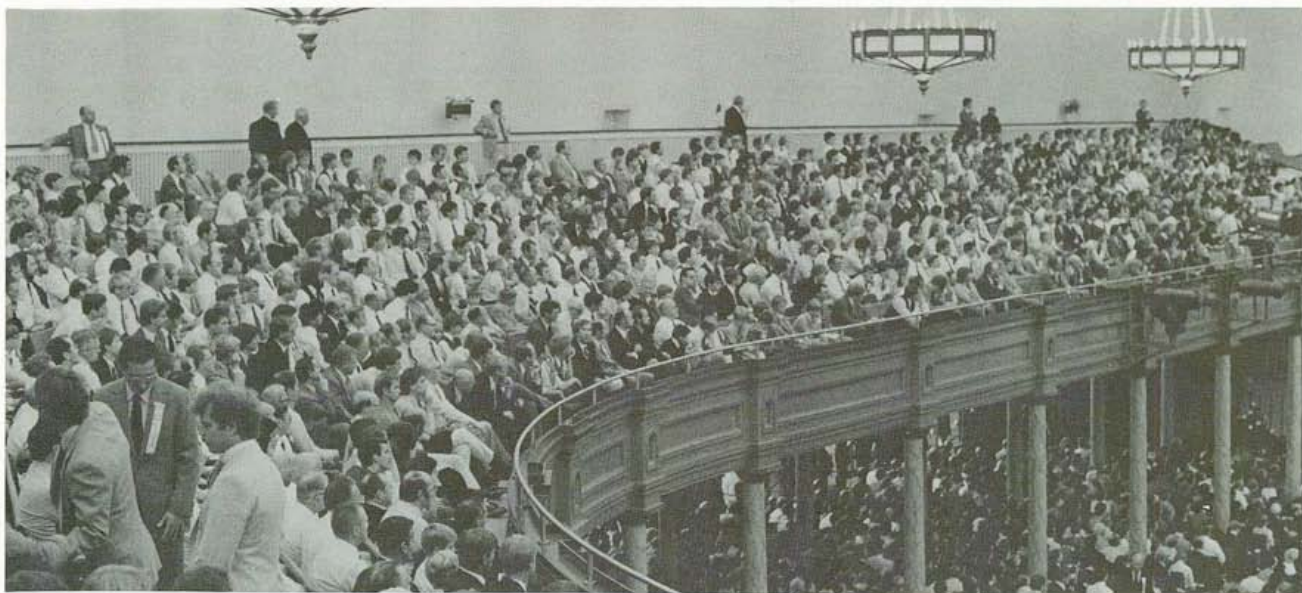
교회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입니다. 예수님은 성찬 의식을

소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랑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성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보다 먼저 사랑의 원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주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인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에 관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가 빵과 물의 경건한 상징물을 취하는 것과 최초의 성찬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여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를 취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이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음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교회의 각 회원은 성찬을 취할 때 구세주를 항상 기억할 것을 성약합니다. 매주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기억함으로써 한층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주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므로 침례받은



이후에도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주 취하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상징물을 경건하고 합당하게 취할 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사랑과 희생, 갓세마네, 갈보리, 빈 무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말일성도가 성찬식에 참석하여 스스로를 반성해 보고 각자의 생활을 바르고, 합당하게 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의 설교와 선교 사업, 브라이언트 에스 톱클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49년, 150페이지)

나는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새로운 힘과 헌신에 항상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날에는 우리에게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목초깎는 기계를 안식일에는 사용하지 말고 농장에 그대로 세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내 업무도 일요일에는 “휴업”이라는 표시를 걸어 놓아 찾는 고객에게 보여 줍니다. 금전 등록기도 주님의 특별한 날에는 매상을 기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참다운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나는 얼마 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매우 훌륭한 어떤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내게 간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집의 가장은 종사해 온 공장이 문을 닫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시로 옮기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가족끼리 하는 가족 간이 식당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여러 해 동안 매우 성공적으로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또 한 개의 연쇄 간이 식당이 개점하여, 일주일에 이례 동안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 회의에서 자신들이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에도 가게문을 열었고, 번갈아가며 교회에 갔습니다. 주당 7일 영업을 한 지 일년 후에 그들은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험뜯고 불평하여 완전히 기진 맥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족 회의를 소집하여, 일요일에 가게문을 닫아 가족이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도가 효험을 나타내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상은 줄었으나 이익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주 충실하게 교회에 다닌 어떤 가난한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렇게 헌신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주마다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종용했으나 그는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내가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에 지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한 가지만 그 이유를 내게 말해 보시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왜 가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텅빈 마음으로 갔다가 마음에 가득차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들의 이야기”, 112페이지)

우리는 합당하게 계획을 세워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주님의 날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막 2:27)고 한 경전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리와 성약에서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성 6:12)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며, 그분의 신성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이해심을 행사하는 한, 걸으려는 발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 리 생활에서 비극과 실망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빛나가고 탈선하여 크게 상심하고 애통해 하는 어느 부모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 주님을 불쾌하게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한 대가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자녀의 비행으로 인해 자연히 나오게 되는 수없이 많은 질문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원망과 좌절과 자신에 대한

저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심란해진 이 부부가 경건 구절이나 인간적인 충고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찾을 수 없음을 분명했습니다. 그 자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원망과 자기 비하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그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애매우며 견잡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비극에 대하여 그들은 권고와 위안을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함께 고통을 당하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라고 말해 줄 동조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곧 형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우리 스스로를 과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불쾌한 일을 초래하게 된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느라고 때때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정작 현재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옥 맨디노는 지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간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는 다만 우리가 갖고 있을 뿐이다.” (뉴욕 : 프레드릭 펄 퍼블리셔스, 1975년, 61페이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힘을 구함으로써 그러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오히려 발전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교성 82 : 10)

우리가 죄를 범하고 원망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비참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이 성구는 이러한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말해 주지는 않지만, 주님의 약속은 진실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 생활에는 항상 시험과 시련이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원한다면, 어떠한 번민이나 비극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합당한 태도는 이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슬픔의 눈물로 우리의 눈이 흐려지거나 우리가 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히 불행이나 비행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겼을 때,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조차도 리버티 감옥에서 극심한 시련을 받고 절망의 순간을 겪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마 그도 이런 질문을 수 없이 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나의 어떤 행위가 주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나는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왜 나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심정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교성 121 : 1)

그때 확신을 주는 응답이 왔습니다.

“나의 아들이야, 평안할지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교성 121 : 7-8)

하나님이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까지도 모두 이기리라.”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교성 122 : 8)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구세주의
권고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방탕한 아들의 행위와 또한 그가
집을 나가 버림으로 몹시 애통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비탄에
젖어,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어느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의 비행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견디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
들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눅 15 : 24)

가족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특히 참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이해심을 행사하는 한,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1984년 여름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세계 각처에서
은 훌륭한 젊은 선수들의 재능에
감동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올림픽 경주와 게임을 인생의 경주, 즉
영생을 위한 우리의 경주와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금메달
수상자는 그의 성공은 실천과 자기
훈련에 따르는 고통을 이겨 내는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언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대회 방문자

9 : 24)

바울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기에 앞서, 다윗의 아들인
위대한 전도자는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전
9 : 11 ; 마 10 : 22 ; 막 13 : 13)

영생을 위한 경주에서 끝까지 견디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원한 생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참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열쇠는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생의
경주에는 고통과 장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슴아픈 일과
슬픔, 죽음, 죄, 약점, 재난, 신체적

질병 및 고통, 정신적 고뇌, 불공정한
비난, 외로움, 또는 거절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런 이혼을 경험한 뒤,
미국 동부로부터 이제 막 이곳으로
이사온 한 젊은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찾던 중에, 하루는
면담자가 그녀에게 그녀의 목표가
무엇이냐 즉 앞으로 5년 후에 그녀가
어디에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먼 앞날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처지로서는 하루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급선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과 좌절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끝까지 잘 견디어 내는 것은
하루하루 순간의 개인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실망과

슬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족간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죄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인내에 요구되는 다른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고 아름다운 한 자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언입니다. 다이언은 제1회 전미 여자 체조 대회 우승팀인 유타 대학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프로 선수 순회 경기 도중 첫번 경기가 열린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체육관에서 공중 회전을 연습하다가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수백 시간의 정해진 일과와 그에 따르는 고문 같은 훈련을 견디던 그녀의 가냘프고 예민한 신체는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팀의 핵심으로서 눈부신 미소로 주위를 밝게 해주던 그 소녀가, 이제는 보상으로 동정을 받아 들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살아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체조를 하던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다치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아닙니다. 영광이 있으면 역경도 있겠지요. 나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이언이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 나가는 능력은 가슴 아래 부분이 마비된 후로 그녀가 2년 반에 걸쳐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가장 잘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그녀는 거의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는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솔트레이크의 국민학교 3학년 교실에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간 다이언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그들의 긴장된 선생님을 바라보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그 외에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라고 그녀는 신념에 차서 말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보는 게 어때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생각에 잠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녀의 인내하는 태도는 얼마나 신선히니까! “나는 교정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 꽤 잘 돌아 다니지만, 가파른 언덕에 갈 때는 곧 친구를 사칩니다.”

그녀는 역경도 영광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의 재능을 나눕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나의 삶에 만족해 합니다. 나는 괴로와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그녀의 훌륭한 자세와 자제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학생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최선을 다하려”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다이언에게 나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비극에 빠지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하루하루 살아 나가기도 힘든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하건간에, 우리는 충실한 말일성도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때때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이 좋아질거라는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간에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극과 좌절은 우리의 인생에 느닷없이 끼어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로 여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명백히 시련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행동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가치있는 것은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인내하는 데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우선 순위와 결심이나 과제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부당하게 생각되는 일이 발생할 때, 길을 벗어나게 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인생에서 전혀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합당치 않게 생각되는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의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을 견디어 내기보다는 참고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견디어 낸다는 것은 버티어 굳게 서며, 굴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으며, 계속해 나가며, 영속되는 상태 또는 힘을 나타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동기는 수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용한 사례나 기타 많은 본보기들을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 공부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결심이 약해질 때 힘과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어 내도록 도울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잘 인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의미있는 말씀은 더욱 새롭고 중요한 뜻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가슴 아픈 일, 비극, 실망, 상처, 평범하지 않은 문제, 명성, 혹은 크게 번영하게 될 때라도 우리의 과제와 책임은 그것을 잘 견디어 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며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신앙개조 13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봉사의 기쁨

러셀 시 테일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모든 사람은 생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중대한 시기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과 불같은 열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기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끄럼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에서 볼 때, 가장 고귀한 선이란 인간에게 이기심없이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주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 : 11)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란 우리가 사는 지상의 방세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그 방세는 날마다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전액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방세, 즉 다시 말해 하나님 왕국에서의 봉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한 후에야 봉사를 하겠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언 몸을 녹이려고 난로 앞에 선 사람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난로에 장작을 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봉사의 기쁨과 축복은 봉사를 하고 난 뒤에 옵니다. 18개월 동안 충실히 선교 사업을 한 선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생을 통해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바치기도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언자 말라기는 분명하게 다음과 가르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 : 10)

모든 사람은 생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함이니라.”(마 20 : 28)

백송기 장로는 우리에게 “봉사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행동의 진요성애 깊히 감회받아 왔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행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람들은 진보가 없습니다. 만족하여 불쾌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지 않으며,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선수가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 즉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봉사해야 하며, 그 일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시는 부모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확신을 가지고 불평없이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베나민왕이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 4 : 15)

“아무리 많은 학위를 받았더라도, 생각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현명한 말입니다. 나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봉사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한 사랑스런 자매님은 손에 관절염이 있어 불구였으나 충실하게도 매주 멤버에 있는 계보 성명 초출 센터에서 봉사하자마자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부드럽게 되어 성명들을 효율적으로 재빨리 타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기심없이 봉사하는 데서 온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땀이 나고 먼지와 때로 더러워진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손이나 얼굴이 아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봉사를 배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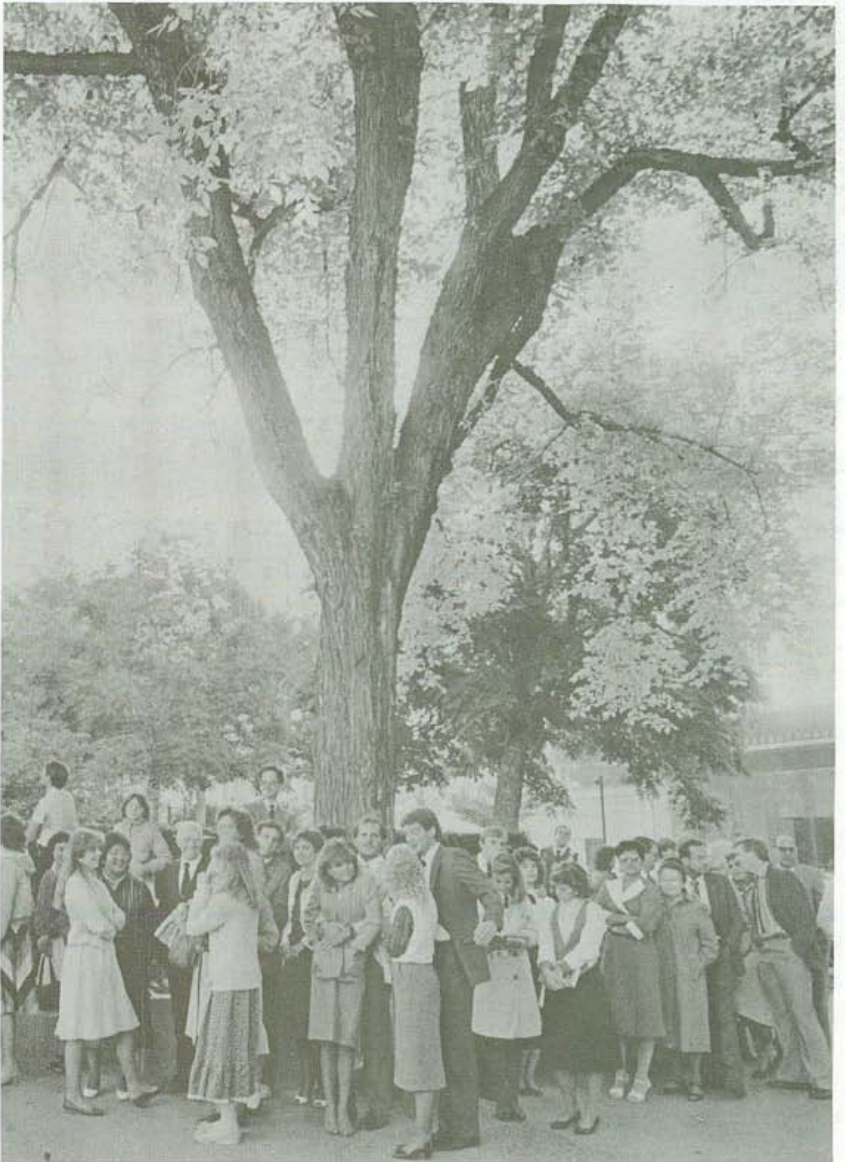
유럽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테일러 자매와 나는 독일의 작은 호텔 방에서 옷가방도 아직 정리하기 전에, 일정 계획에 의해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열리는 선교부장

세미나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세미나에 오가는 길에, 지역 대표가 정해 놓은 대로 서유림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정마다 사랑스런 아내와 어여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가정에서 그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잠갔으며,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그들의 부름을 축복하고, 성공적인 선교 사업이 베풀어지도록 그 지역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그곳의 우리 지도자들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느꼈고, 또한 그들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씩 운전하여 조그만 마을을 찾아가 지도자와 그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해의 영광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조금은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으로 내 영혼의 샘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 회원이 되지 않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는 그들이 방관자로 뒷전에만 계시지 말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통해 회복된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시어, 봉사에 목숨을 바치시고 그로 인해 목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봉사를 통해서 내 마음은 변화되었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 작은 형제로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의 폭을 넓히고 키우라고 권고드립니다. 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급히 돌아갔더라”

로버트 비 하버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에쉬튼 장로께서 말씀하신 인내에 대한 정의의 산 모범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앞에 설 때까지 나는 고통과 고뇌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외 여러 가지 특성을 잘 견디어 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세주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히 5:8)웠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기꺼이 겸손하여지고 헌신적이 되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사 1:18-19)

큰 시험의 때가 이르면,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며,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지적한 대로 “홀로 있게 되어 가시를 견어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교성 121:38)울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엘마의 아들 엘마가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여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교회를 세울 때의 훌륭한 이야기와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제이라헤물라로부터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손서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다음해에 엘마는 밀렉 땅으로 여행하였으며, 거기에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엘마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곳곳에서 침례를 받았읍니다.

엘마는 큰 기쁨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밀렉의 북쪽에 있는 엠몬아이하성으로 여행하였습니다. 엘마는 그곳에서도 계속하여 가르쳤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그 성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마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엠몬아이하 백성들은 마음이 강박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전하 믿으려 하지 않았읍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를 욕하며 침팬은 후, 그들의 마을에서 쫓아냈읍니다.

엘마는 아론성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엠몬아이하 백성들의 완악함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비통하여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엘마가 이렇게 상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그대는 주님의 첫번 소식을 받은 이래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 왔으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크게 반역하여 교회를 해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였습니다. 지금 천사는 엘마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다시 엠몬아이하성으로 돌아가 그곳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엠몬아이하 백성들로 인해 그가 겪은 고난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그의 느낌이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학대를 받았고, 몸은 내쫓겼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생명이 위협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마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되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계명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엘마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마가 주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후 급히 엠몬아이하로 돌아갔더라.”(앨 8:18)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급히 돌아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사와의 이전의 경험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하려는 엘마 자신의 열망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엘마의 반응과 태도는, 내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성으로 되돌아간 엘마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엘마에게 음식과 쉼 곳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엠울레크이며, 그는 시현을 받아 엘마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엘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 날을 엠울레크와 함께 지냈읍니다. 엠울레크는 니파이인의 혈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방어할 만큼 강하지 아니하였으며, 약간

비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평판이 높은 사람이었으며 많은 부를 얻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마가 엠울레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동안,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으며 그들은 그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마침내 엘마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여 “가라”고 명하였으며, 함께 여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의 동반자로 엠울레크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엠울레크는 순종하였고 엘마와 함께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다시 강화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 내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다시 인도받았습니다. 엠울레크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락하고 부유하며 좋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고 좋은 사회적 위치에서 살고 있었으나, 봉사하라는 부름에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였습니다.

최근에 나는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과 책임은 나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왜 그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를 모르더라도, 나는 부름받은 대로 “급히” 행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룩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유일한 참된 교회이며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힘

디비어 해리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 거기에는 각 활동 분야마다 꼭 필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도록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지난 4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이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큰 사랑과 또한 결혼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항상 나를 도와 준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에 대한 한층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껴 왔습니다. 나는 우리를 지지하며 그들이 해야 하는 바대로 생활하는 다섯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우리가 따를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시고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많은 교회 부름을 받고 봉사하는 동안 나를 도와 주고 내 인생에 영향을 준 훌륭한 형제 자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훌륭하고 영적인 지도자 로버트 엘 심슨 회장의 지도와 인도 아래, 그분의 보좌이며 동반자이자 친구인 필립 티 손태그

회장님과 함께 남태평양 섬들의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할 특권에 대해 친절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내가 저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신전 헌납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큰 나라의 각처에서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많은 나라에 신전이 건립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의로운 남녀가 자녀들과 함께 현세와 내세를 통해 영원한 가족으로서 함께 인봉 의식을 받기 위해 그런 신전을 방문하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의 성도들을 방문하였을 때도 똑같은 영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화를 많이 받았으며 간증을 강화했습니다. 뉴기니의 파푸아에서 있었던 최초의 말일성도 신전 헌납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로버트 엘 심슨 회장이 그들의 아름다운 건물을 헌납할 때, 450명의 아름다운 흑인 성도들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에서 젊고 잘 생긴 한 흑인 형제가 한 손에는 물몬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일어서서, 그 책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과 확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밀림 속의 마을로 100km를 간 후에 거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간증을 보고 매우 감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복음을 말했고 또한 떠나기 전에 그들의 마을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귀중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 멀리 뉴기니 교회에 킴블 대관장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눈에는 또 눈물이 가득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예언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선교 사업의 영을 느꼈습니다. (모사이야 15:28 참조) 나는 복음의 영과 선교 사업의 영과 훌륭한 말일성도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력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오랜 기간의 교회 활동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정상에 오르려 할 때 각 활동 분야마다 꼭 필요한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의 영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포위 계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워싱턴 디 시로 가면서, 일리노이스주 스프링필드를 떠나는 기차역에 서서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아이다 엠 타벨 편, 아브라함 링컨의 서한, 연설, 국가 문서집, 보스턴: 진 앤드 코, 1911년, 63페이지)

모세, 니파이, 아브라함, 에녹이 그 땅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이와 똑같은 영적인 지도력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는 영의 어떤 힘을 사용했습니까? 그는 말하였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사무엘상 17:45-46)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닷물을 갈라 놓고, 그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때 그는 어떤 힘을 이용했습니까?

콜롬부스가 스페인을 떠나 항해하고

있을 때, 수개월이 지난 후 핀타호와 니나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시간 이내에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배를 돌려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부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선실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1492년 10월 12일 캄캄한 밤에 조그만 섬이 나타났고, 선원들은 이 섬에 거룩한 구속주를 의미하는 산살바도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구한다면 모든 교회 회원들의 내부에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가장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인 계시의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영적인 것 없이는 성도들을 구속하고, 백성들을 개종시키며, 교회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윗과 모세가 사용한 그 위대한 영적인 힘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성구를 인용하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뱉 수 없나니.(교성 121:34-36)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름발이를 걸어 다니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으니-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교성 121:36 참조)

그러므로 미래의 열쇠이자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열쇠는 개인적인 의로움입니다.

언젠가 롬니 부대관장이 말씀하셨듯이,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고 성신의 능력과 인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하나님의 예언자가 오늘날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으며,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욱 “훌륭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 완전히 만족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지상에 없는 것을 가지려고 동경하며 갈망합니다. 어떤 고대의 예언자는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인간의 영혼에다 영원의 씨앗을 심어 두셨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 말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었다고 간증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일의 이 사업에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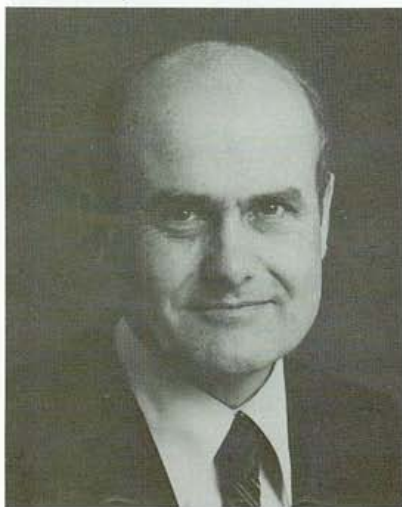
나는 이 예언자의 간증을 전해 드리며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스며들어 오는 빛의 기쁨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합니까?”



살 아 계신 예언자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대도시들 중의 한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비내리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군.”
그는 방금 자신을 방문하고, 자전거를
타고 길 저쪽 끝으로 사라져 가는 두
청년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보낸 주님의 사절인
이 훌륭한 두 명의 청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자신의 생이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는 두 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침례받음으로써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으며 성신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가족을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부양하였으며 좋은 아버지였으며 죽은
아내에게는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두 젊은이로부터
참되게 기도하는 방법—단지 몇 마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자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선교사로부터 배웠을 때 참으로 큰
기쁨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늘어나는 빛을
통해 지난 생애 동안 겪은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의 참된 목적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로 그는
진리를 생각하며, 추구하며, 찾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이 두
젊은이가 그의 문을 노크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된 후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돌연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는 매일
많은 값진 축복을 깨닫고 있으며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의 영광에 관해
더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회개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 잘 알게 되어 그의
생애에서 좀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길고 어둡고 추운
밤이 지나고 아름다운 봄날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고 그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허영과 헛된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인간의 유일한
짐, 유일한 고통, 유일한 좌절은
잘못된 행위의 짐 즉 죄의 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엄숙하게 기도를 드린 몇 분
동안에 나 자신에 관해 배우고, 좀더
정직하게 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이해하며 게으름과 미루는
습성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안 것은 얼마나 훌륭한
경험인지 모른다.”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계셨지만 그 자신이 사회 생활의
관습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1-2)

그는 이제 우리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죄는 모두 하나의
근원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을 바라보며, 찾고,
온전히 그의 제자가 되는 데 게으르고,
자만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6)

그는 주님께서 타협이 있을 수
없음을 아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들어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9 : 61-62)

그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친구나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들을 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삶의 어둠을 빛으로 채우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는 이 빛과 성신의 권세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고,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행하고, 매일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계속 증진시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욕정을 갈망하고 쾌락에 목마르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에 작별을 고하고 이기주의의 구렁에서 헤매는 세상을 등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 충만한 하나님의 빛 즉 성신의 빛의 기쁨을 맛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그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유일한 빛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구세주와 주님을 더 이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성찬식에서 자신의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매주 안식일마다 초대되는 특권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에 대하여 지금 막 배운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니이 32 : 8)

그는 이제 이와 같은 영의 권능으로 자신이 좀더 경건하게 되고 그의 기도하는 말이 점점 적어져서 마침내는 조용하게 되고, 말하기만 하던 사람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능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교성 6 : 2)한 음성에 귀를



철심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우측)가 대회 방문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울이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약 속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진리를 좀더 잘 알게 된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새로 침례받은 회원의 새 생활에서 느낀 놀라운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 안에서 다음의 질문을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엘마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보라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내 몸에 지니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살아왔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희의 옷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회개 되었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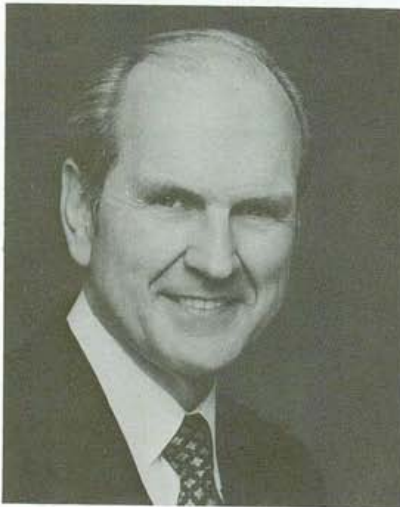
“보라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사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맞으리라 하시었고.”(엘마서 5 : 14, 27, 33)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끊임없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며, 성신의 빛과 권세는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우리를 좀더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및 좀더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항상 빛을 발할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변혁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변혁은 유일한 진리의 지도자의 통치하에 오게 되는데 그가 없이는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힘의 근원을 보호함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기도를 통해서 강화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할 때, 그분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집 주위의 나무 울타리와 덩굴을 다듬는 동안 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기 가위와 긴 연결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잘라 내서는 안 될 것들을 잘라 내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 가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갑자기 칼날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칼날 사이에 전기선이 끼었던 것입니다. 나는 손질하던 덩굴 속에 있는 그 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력을 전달하는 그 선을 잘라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인생의 커다란 교훈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힘을 오용한다면 그 힘의 실제 근원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전기선을 사용함으로써 그 전력의 근원을 절단하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힘을 오용함으로써

영적인 힘의 근원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의 근원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배우고, 일하며, 율법에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실천에 옮기는 동안 위험도 겪게 됩니다.

배움의 힘

배움의 힘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직업이 전문적이거나 판매원이거나 농부이거나 주부이든지간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 배움의 힘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배움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 인도된 교활한 마음은 영적인 힘의 선을 잘라 버릴 수 있습니다. 몇몇 “지식인”들은 소위 학문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희생자들은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단지 그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 점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오 악마의 교묘한 꾀여, 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헛됨이여, 저들이 학식을 얻으며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 (나이 9 : 28-29)

영이 없는 학식은 무엇을 초래합니까? 글라이더의 조종사가

예항기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하강하거나 선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가게 될 방향은 오직 한 곳 즉 떨어지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학식을 얻어야 하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리없는 술책을, 도덕성이 배제된 산업화를, 지혜없는 지식을, 인간성이 없는 과학을 낳게 됩니다.

노동의 힘

노동의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을 잘 마치면 더 나은 일을 하도록 능력이 증진됩니다.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노력하면 그 일이 쉬워지는데 그것은 그 일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대회 보고, 1901년 4월, 63페이지)

주님께서는 그의 예언자 리하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나이 2 : 11). 그러므로 사실 건전한 경쟁은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찬양하고 감사할 만합니다. 경쟁이 없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은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힘써 노력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도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부를 좇거나 준비도 없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개종한 레이먼드들은 이러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생명을 버리고, 형제들에게 빼앗기보다는 형제들에게 내어주며, 게으르게 세월을 허송하기보다는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겠다.”(앨마서 24 : 18)

율법에 순종하는 힘

다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힘을 훌륭하게 적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자유와 행위의 지배는 모두 율법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성 130 : 21)

나는 김불 대관장님으로부터 그것을 다시 잘 배웠습니다. 그는 내가 집도하기로 된 수술을 받게 되셨을 때 나에게 먼저 신권 축복을 부탁하셨습니다. 축복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형제님은 그 축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야 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나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까지도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신성한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직업상의 방문으로 한 번 만났던 어떤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인공 호흡 장치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해 모든 호흡 근육이 파괴되어서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이 커다란 금속 탱크와 플무질을 시켜 주는 전기 모터의 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나는 그녀의 세 자녀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가장 큰 자녀는 한 시간 동안 친구 집에 가 있기 위해 허락을 받고자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둘째 자녀는 어머니에게 산수 문제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가 너무 작아 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는 막내가 어머니의 머리 위에 놓여진 거울을 통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과자를 먹어도 좋아요?” 나는 그 사랑의 힘에 대한 교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부모라는 입장에서 어떠한 육체적인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었던 그 부인은 단지 사랑의 힘으로 그 가정에 아름답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힘 또한 특별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반려자 단젠과 나는 사랑으로 우리



대희 방문자

모두를 위한 사랑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신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좀더 돈이 필요할 때 그녀는 밤에 또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돈이 필요했을 때 그녀는 모든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두 곳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자신의 피까지 팔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의아해 했습니다.) 나는 몇 년 후 그녀가 수혈이 필요할 때 그녀에게 맞는 피를 혈액 은행에서 찾지 못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직접 나의 피를 수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힘도 오용될 수 있습니까?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본 바에 의하면 간음은 슬픔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원인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몇몇 경우에 이 성스러운 신체적인 인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몇 년 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랑의 힘이 오용된다면 영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의 남용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욕정에 대한 경솔한 모방은 양심이 마비된 쾌락만을 낳습니다. 풍요로운 사랑의 식탁에서 자손과 함께 즐기는 대신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만 있는 식탁의 부스러기 사랑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단지 육체적인 쾌락만 있을 때 남는 것은 오직 비애 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큰소리로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이미 유산을 지지하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도덕과 의구심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니삼 28 : 34 참조)

영적인 힘의 근원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궁극적인 영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힘의 전달자는 성신입니다. 이 힘은 전력과 다릅니다. 전기 기구들은 힘을 소모해 버립니다. 주님의 영적인 힘의 사용은 우리의 힘을 다시 보충해 줍니다. 전력이 단지 특정된 시간 동안만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영적인 힘은 현세와 영원을 두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은 기도를 통해 강화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면 그분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마서 37:37 참조) 기도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안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 플러그를 꽂아야 하는 것처럼 그의 힘에 닿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교성 42:61) 개인적인 합당성과 경건 공부를 통해 우리는 이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권에 속하는 영적인 힘의 의로운 사용으로 오는 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거의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신권을 합당하게 지니고 또한 나누며, 기저귀와 그릇들, 복잡한 부엌, 부족한 돈, 교회에서의 봉사 활동, 교육, 밤늦게까지 공부나 일을 하는 등의 어려움과 벅찬 시기들을 견디며 영원한 결혼 성약의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부부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첫째 부활에 나아오라. ……그리하여 왕위와 왕국과 주권 그리고 여러 권능과 영토……를 상속받으시어다.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교성 132:19)

영적인 힘의 선은 계시를 전달합니다. 계시는 교회를 위해 대관장님에게 주어지고 그들의 존경스런 부름 안에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전해집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교회에 속한 각 회원과 가정의 영광을 위해 주어집니다. 이러한

선들은 잘 절연되어 있으며 분명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관리하는 계시는 오직 교회의 대관장님만이 받습니다. 옆집의 아버지가 이웃 가족을 위한 계시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오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오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스러운 대화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릇된 목적을 위해 옳은 일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귀중한 사람들보다는 편협하게 보고서의 퍼센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선을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너무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그 힘에 연결된 힘을 끊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지배하는 어느 남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나 서류 가방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자신의 남편을 너무 억압해서 남편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는 어떤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성 121:36)

신권의 권능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권능과 관련된 근원을 절단하게 됩니다. (교성 121:37 참조)

경배는 하나님께 향한 힘의 근원을 강화시켜 줍니다. 회생이 없이는 참된 경배가 될 수 없으며 대의가 있어야만 참된 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대속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요 18:37) 그분의 경배, 회생 및 헌신의 모범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의 힘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힘의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세주에게 연결된

영적인 힘의 선을 보호한다면 우리는 좀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이름과 사명에 나는 엄숙하게 특별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룩히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 방문자



“주여, 큰 폭풍우 일고”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무리 폭풍우가 사납게 휘몰아쳐도 구세주의 입술과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예루살렘 북방 약 130킬로미터쯤 되는 곳에, 일찌기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진네렛 바다나 게네사렛 호수로 알려졌으나 오늘날 우리에게선 갈릴리 바다로 더 잘 알려진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물이 고인 내륙호로 길이 19킬로미터, 폭 11킬로미터가 약간 넘습니다.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그 호수를 통과해서 사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알고 계셨던 호수였으며 그 서쪽 호숫가에서 단지 20내지 2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의 소년 시절 고향인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수년 동안 그렇게 자주 들르셨던 곳이 바로 이 호수와 근접해 있는 갈릴리 언덕이었습니다.

갈릴리로 여행하시면서 구세주께서는 물가에 모여 든 많은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모여 들자 예수님은 좀더

가르치기 좋은 곳을 찾아 배에 오르셔서 바다로 조금 밀고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즉 열망하는 군중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님을 뵈고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설교를 마친시 다음 그의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 호수의 다른쪽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변보다 약 207미터 이하로 아주 낮으며 열기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산들은 상당한 높이까지 급경사로 솟아 있습니다. 산으로부터 세차게 내려오는 찬 공기가 호수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 순식간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격렬한 폭풍우가 그 내륙해의 표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저녁에 호수를 건널 때 만난 것이 바로 그러한 폭풍우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마가복음 4:36-41)

우리 모두는 우리 생애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비록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같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납고 무서우며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사회로서, 국가로서, 심지어는 교회로서도 우리는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게 되어 “주님이시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주님께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폭풍우가 지난 후 잠잠한 가운데 언제나 다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주님의 조용한 꾸짖음은 크게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우리가 받들어 온 이 위대하신 여호와께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창 1:6)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창 1:9)고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출 14:21-22 참조) 그분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자연의 힘에 명령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생애의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메리 앤 베이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유일한 남동생은 그들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 갔던 똑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자 시카고에 있는 집을 떠나 더 따뜻한 기후를 찾아 미국의 남부 지방으로 갔습니다.

한동안 그는 나아지는 듯했으나 그의 건강에 갑작스런 변화가 와서 그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메리 앤과 그녀의

여동생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들 자신의 건강과 그들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로 인해 남동생의 시신을 찾아볼 수도 없고 매장하기 위해 시카고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슬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베이커 가족은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리의 신앙은 남동생의 죽음과 그녀 자신의 위축된 환경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메리 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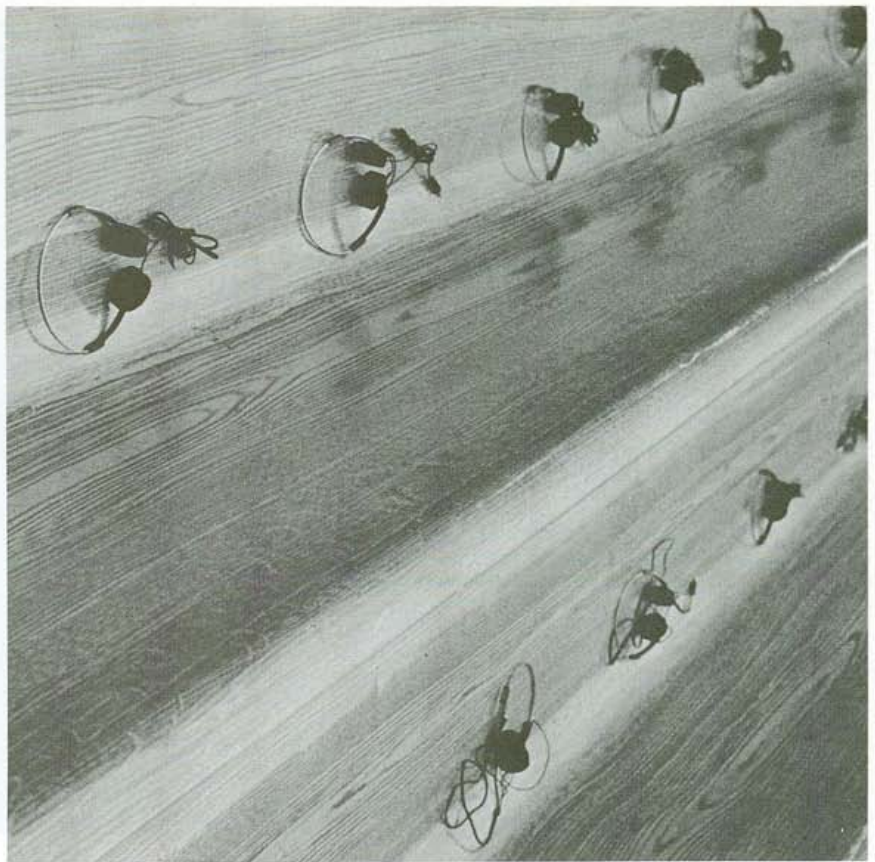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나나 나의 가족을 돌보아 주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나타난 사실이 소위 ‘하나님의 섭리’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 동의합니까?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생애를 바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식으로 복수하실 만큼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케이 에머리안, 유명한 찬송가의 이야기, 83-85페이지)

나는 우리 모두가 폭풍우치는 바다에 대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은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 앤 베이커도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귀여운 젊은 여인에게 “두렵지 못한 믿음의 마음”을 불러 일으켰던 바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옛날 읊처럼 그녀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절망에 빠지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너무나 훌륭한” 것들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흔들리던 제자들의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바다의 잔잔함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이며 그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에, 그녀는 개인적인 절망으로 시련을 겪게 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많은 관심과 개인적인 간증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주여 큰 폭풍우 일고”의 가사를 썼습니다.



태버넌클의 특별석 영어를 모르는 대회 참석자들은 건물 지하에 있는 통역실과 연결된 이 헤드폰을 통하여 약 26개국 언어로 동시에 통역되는 대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가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세찬 파도 이오며
새까만 구름 하늘 덮고
도움도 없읍니다.

죽으면 어찌하리까?
이제 금방 우리
깊은 바다에 묻히겠는데
주여 주무십니까?

주여 오늘 비탄하여
나 잃드려 뵈니다.
내 맘에 번민 심하오니
깨셔서 구하옵소서.

홍홍한 물결
내 영혼 휩쓸어 가오니
죽습니다 곧 난 죽습니다.
급히 구해 줍소서.

그런 다음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후렴이 있습니다.

풍파도 순종할
잠잠하란 주의 뜻
바다나 귀신이나 인간
그 어느 것들의 진노이든지
대양과 천지의 주 계시는
그 배를 삼킬 파도없도다.

모두 순종할 잠잠하란
주의 뜻, 주의 뜻
모두 순종할 잠잠하란
주님의 뜻.

나는 생활하거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의 아름다운 평온함을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주여, 무서움 다 가고
잠잠해졌습니다.
세상 해 고요히 비치고
내 맘엔 새해있네
축복의 주여!
이제는 떠나지 맏소서



행운의 항구에 기항하여
기쁘게 편히 쉬리. (찬송가, 175장)

우리는 모두 우리 생애에 어떤 역경을 겪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사납고, 손상을 입힐 수 있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힘을 갖고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약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에도 대해서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단지 폭풍우부는 순간 동안이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경험하고, 여행하는 동안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무서움은 다 지났으니……오 축복의 주여! 이제는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 : 33)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 : 27) 그분은 자신의 생애와 성역을 통해 평안을 말씀하셨으며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셨던 인사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요 20 : 19)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과 빈민과 운명의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굶어지셨던 무거운 짐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예언자 이사야가 그분을 “고통받는 사람”(사 53 : 3)으로 표현한 것을 이해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배는 거의 전생애 동안 시달렸으며 적어도 인간의 눈에는 그 배가 바위로 된 갈보리 해안에 치명적으로 부서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현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전혀 다른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사납게 휘몰아쳐도 구세주의 입술과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가정에, 우리 나라에, 심지어는 때때로 교회로 인하여 겪게 되는 괴로움 속에서도 그러한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현명한 고대 로마인들 중 한 사람은 한 가지 위대한 복음 진리를 말했는데 아마도 그는 그 사실을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대양을 지배하는 로마의 해군력과 절대적인 명령에 관해 말하면서 시세로는 군대의 한 측근자에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관해 나는 이렇게 간증드립니다.

“바다나 귀신이나 인간 그 어느 것들의 진노이든 대양과 천지의 주 계시는 그 배를 삼킬 파도 없도다. 모두 순종할 잠잠하란 주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원한 결혼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윌회

“복음의 원리와 성약, 특히 신전에 관한 것은, 굳건한 유대를 이루는 데 가장 가능성이 큰 토대가 됩니다.”



나는 영원한 결혼이라는 주제를 지명받고 그 거룩한 주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적인 면에서 준비되기를 간구합니다.

신전의 아름다운 인봉실에서 어느 날 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흰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어린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너의 가족은 이곳 신전에 있지?”

“인봉받으려고요.”

“인봉받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 너는 영원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구나.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의 가족은 훌륭하고 행복한가보구나. 너의 가족은 행복하니?”

“예, 그렇습니다.”하고 소년은 말했습니다.

이 똑똑한 소년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미 알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혼과 가족 유대가 영원히 지속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쁘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결혼이란 행복한 가정과 가족이 중심이 되는, 이 지상에서도 훌륭한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또한 간증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와 성약, 특히 신전에 관한 것은 굳건한 유대를 이루는 데 가장 가능성이 큰 토대가 됩니다. 그러한 결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결혼은 의식이나 환경이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어려움을 견디어 내는 원리를 배울 수 있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며, 날마다 해마다 신전 성약의 굳건한 기초를 쌓으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숙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성인 청년들도 여러분의 미래에 지극히 중요한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이 되는 신전 결혼. (2) 행복하고 영원한 결합. (3) 성숙한 두 성인이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감. (4) 성약이 집행되는 권능으로서의 하나님의 신권—그 신권은 우월감이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통해 가정에서 봉사하며, 사랑으로 지도하고, 충실한 모범을 보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1. 신전 결혼

명예로운 결혼은 주님께서 승인하신 것입니다. 사실, 경전에서는 이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교성 49:15)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 3:14) 영원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길은 희망과 약속으로 채워져 있으며, 지상에서의 행복과 하나님 자신과 같은 영원한 청지기 직분으로 나아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지구가 세워진 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두시고, 첫번째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필멸의 몸이 아니었으며, 죽음이 세상에 들어 오지 않았으며, 그들의 결혼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24)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 계명을 인용하시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 9:4-6 참조) 그는 제자들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마 18:18 참조) 권능을 주셨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전 11:11)

복음이 회복됨으로 인해 신전과 신전 예배를 다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와 하늘에서 매고 인봉할 권능이 하나님의 선택된 중에게 다시 위임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약속의 결혼인 영원한 결혼은 주님의 성스러운 신전에서 권능을 지닌 집행자에 의해 현세와 내세를 위해 다시 집행됩니다.

2. 행복한 결혼—영원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도록 계획된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며 계속 성장하는 우아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신전 결혼의 특징적인 요소는 권능과 지속적인 면에서 유일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전에 와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 현세와 내세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 제단에서 밝혀진 놀라운 의식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맺어진 질적인 관계는 가장 큰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신전 결혼을 하는 형제와 자매에게는 훌륭한 약속이 인봉되며, 약속된 축복의 실현은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과 맺은 엄숙한 성약을 지키며 또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직접 연관됩니다.

신전에서 맺은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여정 동안 전체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며 수많은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의식은 성약을 맺는 사람들의 충실성을 제외하고도 아무런 조건이나 단서없이 수행됩니다. 이 굳건한 기초 위에 새로 이루어진 가족은 보다 건전하고 보다 영화롭게 영원히 성장할 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을 해 나가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결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새로운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관계는 가족의 행복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아내, 어머니, 주부, 가정의 중심이라는 성스러운 날말이 붙게 되고, 남자는 남편, 아버지, 보호자, 부양자, 파스한 신권의 영으로 가정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반려자가 되어 서로 나누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특별한 면에서 동반자로서 함께 생활합니다. 같은 방에서 살고 있든지, 서로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든지, 그들은 하루 24시간 굳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격과 장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재미있는 유모어와 훌륭한 성품으로 그리고 서로의 필요 사항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들은 많이 웃고 가끔 울기도 합니다. 그들은 따스하고 진지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며, 친절하게 말을 하며, 상냥하게 대답하고, 기쁜



환담하고 있는 회원들

마음으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고, 또는 오는 남편을 맞아들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특별한 창조적인 관계에서 때로는 바로 열방에서, 때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당기는 강한 화학적인 힘으로 끌리게 되는 축복받은 애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힘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마땅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충성을 바치는 특성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확신과 신뢰로 자신을 희생하고 즐겁고 기쁘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있게 영원히 성장하는 일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때까지 쌓아 올린 결혼 생활의 붕괴로 깊은 심적인 고통을 겪은 어떤 부인은 결혼 생활을 친절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신체적인 결합만으로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음을 개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보여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결혼만큼 우정을 필요로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나는 교회 초기 시절에 이민 온 젊은 과부가 쓴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1848년에 미주리주 허니크릭에서 영국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두 아들이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가게 남겨 둔 채로 항해하는 배 안에서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쓴 편지는 내 생애도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한나, 어머니께서 그리도 사랑하던 아들이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내게는 생명 자체보다 더 소중한 생명인 그가 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녀는 이 가장 좋은 친구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는 왕국에서 그의 형상대로, 주님의

권고에 따라 두 아들을 키우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편지가 우리 집에서 쓰여질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정은 결혼 생활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정이란 하찮은 것은 넘겨 버리고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며, 서로의 독특한 점을 기뻐하며, 참을성 있게 귀기울여 들으며, 관대하게 대하며, 아낌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정이란 방을 건너가서 “미안하오, 본의가 아니었오.”라는 식으로 말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체 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에서 함께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해하고, 지지하며, 회개와 용서와 존경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요소는 그러한 결합 관계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준비하고, 선택하고, 구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누구도 이상적인 구혼과 결혼은 합당한 생각이나 준비나 기도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란 매일같이 모든 면에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직성이나 성격, 신조나 경제, 가족, 인생의 형태에 대한 견해를 서로 나누는 것이. 달빛이나 음악이나 매력적인 얼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3. 궁극적인 성약

이 모든 것의 가장 확실한 기초는 신전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전 결혼은 격리된 의식이 아닙니다. 신전 결혼은 다른 의식들의 정점이며 가족과 영원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전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을 원하는 두 사람은 그러한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약은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과 훌륭한 결혼 및 가족의 구성에 근본이 되는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에서 우리가 맺는 성약은 왕국의 다른 성스러운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에 연관시켜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 그리스도를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언약합니다. 도덕적인 원리에 온전히 충실하는 것은 자제하며 의와 진리의 대업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은 신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른 성신권”(교성 107:1-3 참조)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연히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없애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며 서로가 보기에 똑같은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모범을 참으로 전념하여 따르게 되면 지배나 독재나 소유 또는 관리라는 개념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의나 학대나 거짓말이나 무례한 것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와 거짓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교성 121:41-44 참조)

4. 두 사람의 성인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결혼은 단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는 주님의 집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전하고, 정서적인 면이나 실재적인 면에서 준비된, 정직한 두 사람에게 의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전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며, 성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취할 자격이 있을 만큼 성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결혼할 나이가 아니거나 적령기에 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간에 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결혼이란 사람이 이 생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며 가장 진지하고

성스러운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가 본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 준비하고, 깨끗이 하며, 특별하고, 행복하며, 영원한 결혼의 기초를 놓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감은 아름다운 확신을 갖게 하며,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거나 이미 그렇게 살았거나 또는 그런 유대 관계를 맺을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하늘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팔리 피 프랫은 필라델피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현재와 영원토록 위안을 주리라는 것과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조화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의 토대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한 사람이 바로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정을 키워야 하며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팔리 피 프랫, 자서전,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8년, 297-98페이지)

며칠 전 우리는 한 방에 다섯 자녀와 그들의 영원한 반려자 및 그들의 16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8명으로 된 우리는 애정과 감사의 원으로 맺어졌습니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우리 두 사람으로 맺어졌던 그 원이 놀라게 커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녀가 24년 전에 태어났지만 원은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세대의 훌륭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 주신 분들과 우리가 연결되듯이 우리 가족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주님의 거룩한 회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하에 우리의 유대 관계가 계속될 것이며 결국은 훌륭한 장소를 찾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기수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나는 올림픽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경험을 인생의 결전장에서 여러분 대부분이 겪게 되는 올림픽 경기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부여된 집사, 교사, 제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아론 신권 청남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아론 신권이 뜻하는 바를 좀더 잘 이해시키고 그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는 각자가 아론 신권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권능과 함께 부여된 큰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안목을 넓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 신권 소유자에게 신권과 관련된 책임을 부여하셨음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 신권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수많은 청남이나 성인들이 아니라 신권이 각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을 받는 사람은 단지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며 사적인 성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저녁

말씀드리는 것을 모든 청남 개개인들이—즉 이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의 발코니 윗쪽에 앉아 있는 집사나, 뉴우저지에서 통신 위성을 통해 보고 있는 교사나 프랑스나 사모아 또는 브라질 등에서 통신을 통해 중계를 듣고 있는 제사들이 모두 개인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 우리는 모두 함께 젊은 운동 선수들이 이루어 놓은 가장 훌륭하고 감동적인 경기를 보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로스엔젤레스의 하계 올림픽 경기장에서 남녀 선수들이 결합하여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해 인간에 대한 더 큰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하는 운동 선수들의 자신감과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파되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 자신도 모든 운동 선수들 즉 메달을 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그 하계 올림픽 경기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운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올림픽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경험을 인생의 결전장에서 여러분 대부분이 겪게 되는 올림픽 경기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부여된 집사, 교사, 제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참가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철저히 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연습에 바치고, 자제심을 키우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요구되며 자신감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그 신권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았다면 신권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행사하기 위한 권능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동 선수들처럼 자신의 신체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바치지 않는 않아도 되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하고 명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성공을 가져다 줄 일들을 반드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단지 몇 달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분 자신이 입증시켜야 하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필경 여러분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그리고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채로 필요한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더 큰 자제심이 요구됩니다.

이 젊은 운동 선수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한편, 때때로 이전 경기에서 올림픽 기록을 세운 사람들에게서 격려와 동기 부여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 기록에 도달하든지 그 기록을 깨기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자신의 신권을 영예롭게 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침례 요한, 요셉 스미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 감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그들의 모범을 따르며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경기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진정한 경쟁은 다른 사람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항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텔레비전 인터뷰를 보다가 이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14세 된 캐나다 출신 피겨 스케이팅 우승자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이것을 때 어떻게 느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지만 졌을 때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것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이 겨루는 것은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은 1829년 5월 15일에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에 의해 지상에 회복되었는데 이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요단강에서 나사렛 예수를 침례하였으며, 후에 부활한 몸으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교성 13편)

침례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하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성임은 교회가 지상에 다시 회복되기 전에 집행되었습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입니다. 아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것으로 대개 외형적인 의식과 세상적인 책임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성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때때로 성찬을 준비하고 집행하며, 금식 헌물을 수집하며, 기타 활동을 행하는 것을 아론 신권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대회 방문자들

더 중요한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으로서 물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생과 승영을 얻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곧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길 영생과 승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신권을 영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이웃에 봉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봉사를 생활의 일부로 삼는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어 일상 생활에서 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몇몇 여러분의

친구들이 현재 그렇게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세 된 한국인 소년은 매주 받는 자기 용돈을 털어 신문을 샀습니다. 수업료가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를 돕기 위하여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점심을 매일 이 소년과 나눠 먹음으로써 이 소년이 굶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공부했으며 단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취할 행동을 실제 할 때에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눅 10 : 25-37 참조) 그는 아버지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아버지에게 말씀조차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청년의 감독님이 그가

성찬을 집행할 때 어떻게 보일지 또는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지를 염려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결코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것인가 또는 학교에서 부정 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나에게 제사 신권을 소유한 그의 아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을 다시 청소하고 케인트 칠을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청년은 기쁘게 그리고 아무 불평없이 즉시 일을 시작해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꺼이 집안 일을 맡아 함으로써 책임감과 신뢰감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생과 다가올 생에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자제심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어느 와드에 다니는 어떤 청년과 청년들은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교회 활동이

무로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매우 현명한 감독의 인도하에 병고로 집에 누워 계시는 같은 와드 소속의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한 분의 노인을 모시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남과 청년들은 정기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그 노인분들의 집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청년들은 성찬을 그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함께 특별 가정의 밤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청년과 청년들은 그들 자신과 노인들과 교회에 대한 태도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를 베품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는 올림픽 경기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하여 뽐힌 영광을 안고 각국의 국기나 기치를 앞세우고 자랑스럽게 행진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발코니에 앉아 있거나, 뉴우저지의 스테이크 센터에 있거나, 프랑스, 사모아, 또는 브라질의 교회에 있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신권을 소유한 모든 합당한 청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기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주님이나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회원이나 비회원들에게는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치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일 때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청남의 감독과 정원회 고문되시는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성신권을 소유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론 신권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소년을 구해내어 우리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남편이 되게 하고, 강한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이루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되고 능력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선교사는 아모스서에 들어 있는 다음 성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찬송가,
59장)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선지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 스펜스 더블류 김볼 대관장께 어떤 비밀을 보여 주셨습니까? 김볼 대관장께서 오늘 저녁에 이곳에 계신다면, 이 말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야고보 1:22 참조)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얼마 전에, 총관리 역원들이 신전 윗층에서 함께 모였을 때, 김볼 대관장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관리 역원 여러분, 최근에 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크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이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므로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대관장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내가 정말로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선교사로 나갈 생각입니다.’” 김볼 대관장은 특별한 생각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늘 그러하듯이, 발끝에 힘을 주고 서서 음성 높였습니다. :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존이나 빌 또는 밥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김볼 대관장께서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 멀고 가까운 나라에서 우리의 부모 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봉사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할 선교사의 의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선교사 일지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의 첫 기록은 그야말로 고전에 속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꿈에 그리던 소녀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했다.” 바로 그 다음날

저녁의 일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감독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나는 내가 살던 스칸디나비아로 돌아가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물론 나는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집에 남아 나를 도와 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선교 사업을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십이사도 평의원인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그의 부친께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일을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아내와 일곱 명의 자녀와 농장과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잃은 것이 있습니까? 벤슨 회장은 그의 모친이 가족을 식탁에 모아 놓고, 가물가물한 등잔 불빛에서 남편이 보낸 편지를 읽는 도중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 내기 위해 몇 번씩이나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후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라는 김볼 대관장의 분명한 부름에 응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켜 주며, 소망을 키워 주며, 선교사의 부름만이 아니라 신전 결혼으로 인도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해의 왕국으로 승영하는 길을 마련해 주는 아론 신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년들이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로 들어가는 결승선을 넘지도 못한 채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 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아론 신권의 길을 살펴보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만큼 중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수련 장로의 수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의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귀중한 자녀들이 교회에서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추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모든 소년들이 결승선을 넘어서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아론 신권 회원들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중국에는 개인의 건전함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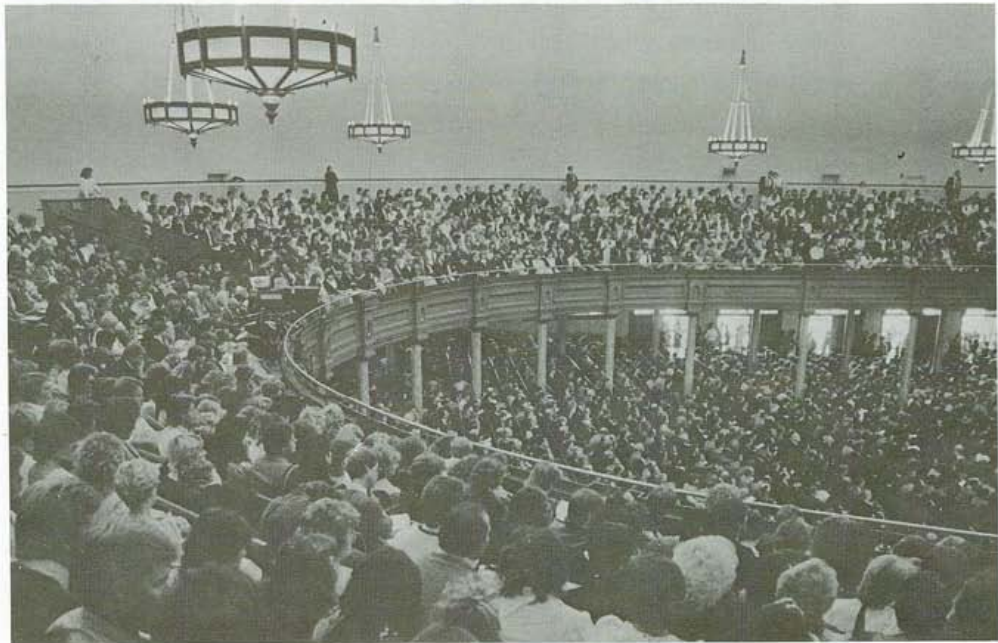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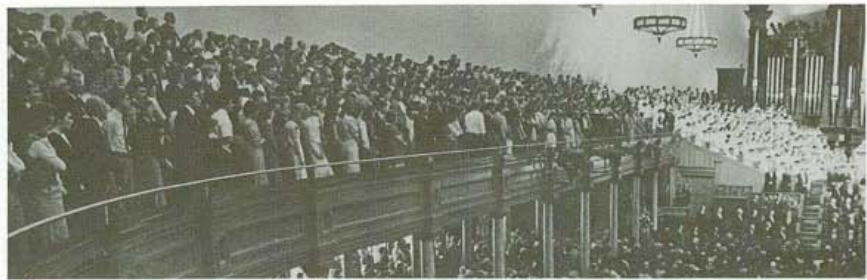
내용의 고대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이 피어 있는 연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 주고 물통을 준 다음 연못의 물을 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일 그가 첫째 단계로 연못으로 들어가는 물을 빈틈없이 막으려 한다면, 그는 건전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그가 흘러 들어오는 물을 무시하고 물통으로 물을 퍼내려 한다면, 그는 분별력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수련 장로의 수의 증가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론 신권에게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게시에 의하여, 감독은 와드 내에서 아론 신권 회장이 되고 제사반 회장이 됩니다. (교성 107:87-88 참조) 그는 이러한 천부적인 책임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좌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고 소년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참으로 소녀들이 따를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정원회 고문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독이라면, 제2보좌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뱀포드 형제님, 형제님은 와드 내에서 집사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형제님은 소년들이 합당하여 14번째 생일을 맞게 될 때 교사로 성임됨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1보좌에게도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지요. “헤밍웨이 형제님, 형제님은 모든 교사가 합당하여 16세가 되면 제사로 성임됨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제사 직분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일하여 그들이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장로로 성임되도록 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소년을 구해 내어 우리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남편이 되게 하고, 강한 벨기세때 신권 정원회를 이루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되고, 능력이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의 현명한 단계는 각 집사들이 성임받은 부름의 성스러움을 영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감독단이 나에게 예배당에서 오리 가랑 떨어진 곳에 사는 노인에게 성찬을 가져다 드리라는 부탁을 했을



때 그 일을 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요일 아침에, 내가 나이든 형제의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요.”하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허름한 오두막집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영이 가득 찬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그의 침대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빵 한 조각을 그의 입에 넣어 주었으며 물잔을 들어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집을 떠나면서, 그가 미소를 띠며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룩한 상징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임받은 모든 교사는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한 지명을 받고 있습니까?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의무에 대한 규율을 익히기에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지명을 받은 소년은 자연히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떠합니까? 이 젊은 이들은 성찬을 축복하고, 가정 복음 의무를 계속하고, 성스런 침례 의식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집사였을 때 제사들이 성찬대에서 성찬을 집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떤 제사는 음성이 아주 좋았으며, 그는 마치 웅변 대회에 참여한 듯이 분명하게 성찬 축복문을 읽곤 했습니다. 와드의 어른들도 그의 “듣기좋은 음성”을 칭찬해 주곤 했습니다. 그는 조금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와드 내에 있던 다른 제사는 청각 장애로 인해 말하는 소리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재이 성찬을 축복할 때마다 우리 집사들은 껍껍대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의 손은 곰 같아서 우리를 누구라도 한 손에 밀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음성이 좋은 베리와 어색한 음성의 재이 성찬대에 함께 앉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두 제사들이 빵을

배었습니다. 배리는 축복을 하려고 무릎을 꿇었고,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집사들은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알아보고 눈을 떴습니다. 배리가 성찬 축복문이 적힌 조그만 흰 카아드를 성찬대에서 정신없이 찾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회중들이 배리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자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자 재이 곰갈은 손을 내밀어 배리를 가만히 의자 뒤쪽으로 밀어 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무릎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소서……” 그가 기도를 마치자 떡이 전달되었습니다. 재은 물도 축복하고, 그것도 전달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잘 하지 못했으나, 성찬 축복문을 암송했던 재은 그날 우리 집사들에게서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배리 역시 재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우정의 유대가 맺어졌습니다.

감독단과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의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영향입니다. 요청받았을 때 부모가 현명하게 도와 주는 것은 흔히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의 영향은 선교 사업 및 신전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타 모든 제반 요인을 능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의 힘과 영향력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제시에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집사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십이 명의 집사를 통할하며 이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저들에게 저희 직분의 의무를 가르치며 성약에 따라 서로 덕을 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니라.”(교성 107 : 85) 교사 정원회 회장에게, 그리고 제사 정원회 회장인 감독에게도 비슷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교성 107 : 86-86 참조)

스테인크 아론 신권 위원회도 역시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의 고등 평의원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아론 신권 정원회를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하십니까? 이 형제님들은 스테이크 내의 각 아론 신권 소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론을 다룬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우리는 거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가 감리한 와드 생각이 남니다. 워스린 감독은 45명의 제사로 된 정원회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45명이 모두 장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고 알빈 알 다이어 장로가 48명의 제사로 된 정원회를 관리했습니다. 모두 48명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47명이 주님의 집에서 결혼했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년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감독으로 일하던 시절, 어느 일요일 아침에 한 제사가 신권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원회를 고문에게 말기고 리처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모친은 그가 웨스트 텡플 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가 리처드를 찾아보았으나 아무데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어떤 영감을 받아 정비소 옆에 있는 구식 주유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나는 두 개의 빛나는 눈동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독님, 저를 찾으셨군요. 곧 올라가겠어요.” 그는 다시는 신권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사하는 바람에 리처드도 그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약 1년 뒤에 웰스 스테이크의 아더 스펜서 감독이 전화로 리처드가 멕시코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의 환송 간증 모임에서 말씀해 달라는 그 가족의 권유를 수락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리처드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전환점은 어느 일요일 아침,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어두운 주유소 저 밑에서 올려다보며

정원회 회장이 내어민 손길을 보았을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존 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시어, 인생의 한 거울 속에서도 여름의 장미를 보게 하셨네.”라고 말했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장미는 아론 신권이라는 길을 따라 만발해 있습니다. 이 길에서 밭 맞추어 나아가며,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격려하며, 영감을 받고 인간을 구원해 나갑니다.

나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을 맞추어, 교회의 아론 신권 소유자와 함께 하여, 완전을 향해 더욱 위로, 더욱 앞으로 이 신권의 길을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선교 사업을 준비함

러벨 에드워즈

브리감 영 대학교 미식 축구 수석 코치

“스포츠계에서나, 학교에서나, 선교 사업에서나, 또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대학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협동심, 특별한 기술, 체력 및 조절 능력이 결여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하는 에언자이신 킴볼 대관장께서 선교사 연령에 이를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많은 우리 선수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젊은이가 선교사로 나가고자 결심한다면, 그는 돌아와서 더 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일반적인 결론을 제시해 보자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잘 된 운동 선수는 귀환한 후에도 분명히 잘 할 것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잘 하지 못한 운동 선수는 귀환한 뒤에도 필경 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더 잘할 승산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심이 더욱 커지고, 지도력을 개발하고, 일하는 태도가 향상되고, 성공에 필요한 것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젊은 사람의 의욕과 결심과 일하는 습관에 달려 있으니, 귀환한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말에도 우리 선수단 중에는 52명의 귀환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성품—즉 의욕, 결심, 훌륭히 일하는 습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선수인 신 커비는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쿼터백으로 장차 여러분은 그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존 콜린스는 신의 친한 친구로, 현재 스코트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의 모친이 신과 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은 최근에 존에게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도 존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각해 보게, 이번 주말에 비와이유팀은 50,000명의 팬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피츠버그에서 축구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네. 내가 고국에 있다면, 나도 그 팀에 속해 신나는 경기를 벌이게 되겠지. 그 대신에 나도 어떤 부인과 그 딸을 침례주게 될걸세. 나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 경험을 바꾸지 않겠네.”

나는 두 아들 존과 짐, 그리고 오늘 저녁 이곳에 함께 참석한 사위 켄 케넌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 모두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대학 운동팀에 들어와 존은 육상 선수로, 짐은 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짐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은 지금도 얼마 전의 시절로 되돌아가 선교사 시절의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는 것이었다고 자주 말합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께서는 이 훌륭한 경험을 위해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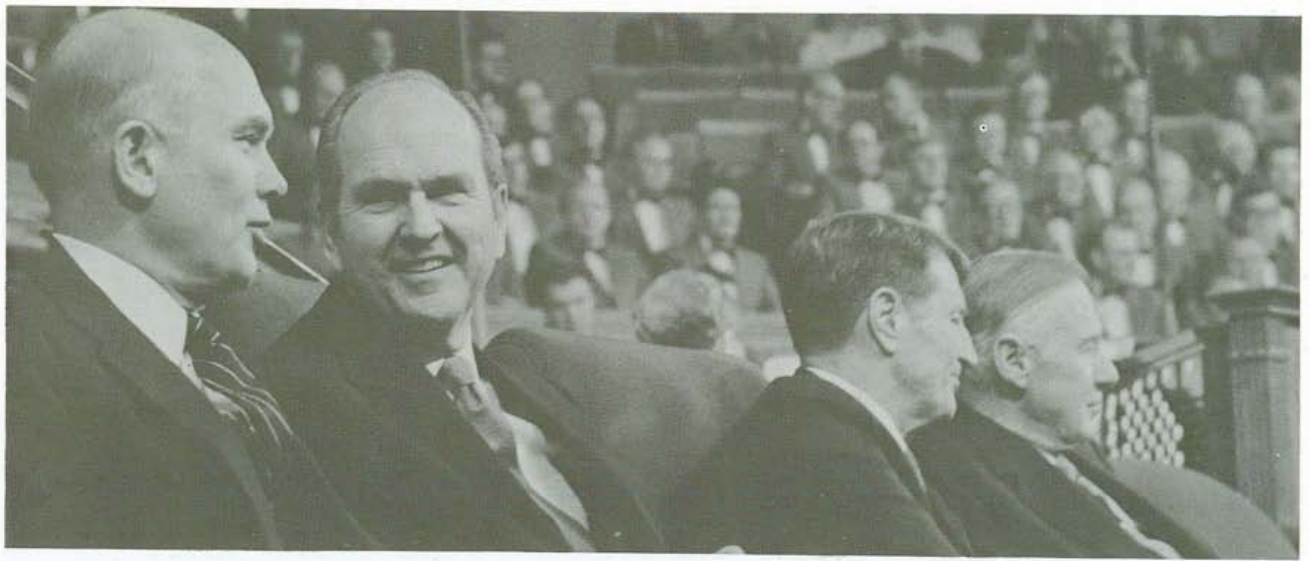
두번째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운동 선수로 성공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교사와 코치로서의 생활 경력이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올 기회에 대비하여 자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시작하여, 다 발휘하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겸허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은 어떻게 코치로서 압박감을 받으면서도 것처럼 침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밤 말 재주도 없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서니, 참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히 젊은 형제님들에게 한두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복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운동 선수로서의 장래에 역효과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내가 1962년에 브리감 영 대학의 코치로 뛰기 시작했을 때, 선교 사업과 운동은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 사업을 나갔다가 다시 선수 생활로 되돌아온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며 젊은 사람이 선교사로 2년 동안 사랑을 전파하다가 축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을 할 생각을



십이사도 경원의 회원, 좌측으로부터 앨런 에이치 욱스, 러셀 엠 벨슨, 닐 에이 맥스웰,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못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팀에 들어오는 선수들은 그 위치에서 경기하는 선수들보다 더 크고, 더 힘세고, 더 빠른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것습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해 동안 코치 생활을 하다 보니 한 가지 특별한 원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잠재 능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가장 훌륭한 선수가 가장 많은 은사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시에 우리는 "그는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기에 참여하고, 시험도 치르고, 말씀도 하고 또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우리는 잘 해내고자 하는 가장 훌륭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상, 그것은 "준비하는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스포츠계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선교 사업에서나 또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는 사람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역경과 실망과 생의 비극적인 사건까지도 극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미식 축구단은 널리 알려져 있어 누구나 그들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브 영은 내가 아는 가장 재능이 많은 젊은이입니다. 그는 빠르고, 힘도 세며, 체격도 좋고, 미남인데다가 부유합니다. 그러한 스티브를 보고 우리가 "너는 그 모든 장점이 있으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은 당연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신체적인 장점보다는 그의 사고 방식에 있습니다. 스티브는 3학년 때 우리 축구팀으로서 첫 시즌을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는 브리검 영 대학 축구 프로그램에서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셀 위커의 소속팀인 전미 우승팀인 조지아 대학과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했으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겨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아에 비가 내리는" 날에, 82,000명의 팬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스티브는 게임 전반기에 다섯 번이나 드로우(볼을 같은 편 선수에게 던짐)를 했는데 모두 상대방 선수가 가로챘습니다. 그것은 보통 때 다섯 게임에서나 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터셉트를 당하고 두 번의 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반전에서 7대 7 동점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탈의실로 들어가면서 "스티브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와 관중과 볼이 뿜 때문이라는 등으로 전반전에 다섯 번이나

인터셉트를 당한 볼을 던지게 된 것에 대한 변명 거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가 스티브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려 하자, 스티브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내 말을 막았습니다. "코치 선생님, 문제없어요. 나는 당장 다시 나가고 싶어요. 우리는 이걸거예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너는 방금 인터셉트 볼을 5개나 던졌잖아!" 그는 늘 그런식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의 그를 만든 것이며 그로 하여금 그가 이론 것을 달성하도록 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는 대학 축구팀에서 가장 훌륭한 쿼터백 선수가 되게 된 생애의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현재의 쿼터백인 로비 비스코에게 금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전미 3위인 피츠버그 대학 팀과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며 후반전에도 잘 몰아갔습니다. 로비가 볼을 잘못 던졌습니다. 그 볼이 가로채어 70야드 터치 다운이 되었습니다. 피츠버그가 7대 3으로 앞섰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공을 차 우리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로비가 던진 볼이 우리 팀 선수의 어깨를 스쳐 튀었습니다. 그것을 피츠버그 수비가 잡아 채어 우리 진영의 15야드 선에서 되돌렸습니다. 4게임이 지나자, 피츠버그팀이 점수를 얻어 14-3으로



스펜서 더블류 컵본 대관장(중앙), 대관장단 제1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좌), 제2보좌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우).

앞서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이 로비의 능력을 알아내는 좋은 기회가 될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돌아와 3,4분간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을 몰고 가 아담 헤이셔트에게 승리 골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로비가 훌륭한 쿼터백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역경을 어떻게 헤쳐 나갑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인간 관계, 선교 사업, 각자 선택한 직업, 가족 문제 등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항상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하게 되면 주위를 돌아보며 흔히 우리가 외로운 방랑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나 혼자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훨씬 더 재능있고, 키도 크고, 더 멋있고, 또는 더 빠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축구 코치조차도 문제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역경을 헤쳐 나가는 능력에 따라 생애에서의 성공의 정도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신의 권세는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위안의 원천이 됩니다. 성신은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얻도록 도와 주며 인생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나는 코치로서 지난 20년간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코치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그만큼 발전한 것은 교회 부름을 통해 성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코치 보조로 있으면서 대학 구내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1972년에 축구 팀의 수석 코치로 지명받았을 때, 나는 코치의 역할을 감독으로서 일했던 것과 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조들에게 책임을 위임한다거나, 선수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자기 형상의 책임을 각자에게 맡긴다거나,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긍정적인 면에서 힘이 되어 주고 격려해 주어 그들이 구장 안에서나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껏 말아 온 모든 직책을 통해 나의 인생에서 값진 경험을 하고 성장했습니다. 형제 여러분께서 어떤 직책에 부름받았든지, 그것이 감독이든지, 신권 정원회 고문이거나 가정 복음 교사 운동 책임자이거나 여러분이 관리하는 젊은이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직업에서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젊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아내와 가족과 함께, 내가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증은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소년단 대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간증입니다. 선교 지역과 같이 간증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참으로 이 귀중한 기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약 65년 전 훌륭한 우리 감독님이 내게 오셔서 휘트니 와드의 스물 네 명의 소년들로 구성된 소년단 대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셨던 일을 언제나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소년단 교재를 받았습니니다. 이들은 많은 음악적 재능을 지닌 청년 그룹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서로 경쟁적인 다양한 상호 문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소년 합창단도 있었습니다. 각 와드에 합창단이 있는 것은 상례였으며, 감독은 종종 소년단 대장을 불러 소년들을 연습시킬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형제가 어떤 일을 부탁받으면 흔히 그렇듯이, 나는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어느 정도 음악적인 기술을 알고 있는 훌륭한 충실한 자매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녀의 지시를 받으며 우리는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연 대회에서 부를 노래는 본부 임원회에서 지정하였으며, 전체 교회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 노래는 팔리 피 프랫 작곡의 “동트니 날이 밝는다”였습니다.

수주일 동안 우리는 소년단 모임 전후에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프랭클린 스테이크의 다른 열 개 와드와 경연 대회에서 대결할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에서 우승하였으며, 따라서 카체 계곡의 다른 여섯 개 스테이크의 우승팀과 로간에 있는 예배당에서 경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커다란 예배당으로 들어가던 순간을 언제까지나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입장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맨 마지막 순서가 되었고, 더욱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줄여야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팀이 연단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자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스물 네 명의 소년들은 한 줄로 서서 통로를 올라간 후에 무대 위에서 반원 형태를 이루었으며, 나는 두 의자 사이에서 몸을 구부린 채 그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간에서 1등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의기 양양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0세대의 작은 마을이 그 계곡의 모든 다른 스테이크와 와드를 제치고 우승하였더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승하고 난 후 첫번째 소년단 모임에서, 그 소년들은— 자기들에게 중요한 일은 결코 잊는 법이 없는—조마조마해 하던 그 순간에 우리가 로간에서 우승하면 산너머 베어레이크의 56km 계곡으로 하이킹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내게 상기시켰습니다.

뱃은 약속은 채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이킹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열두 살쯤 되는 어린 소년이 손을 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년단 대장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단 모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적어도 내게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 좋습니다. 무슨 의견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행 중에 빗으로 머리를 빗어야 하는 귀찮은 일을 덜기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짧게 자르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나는 서너 명의 나이가 많은 소년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들썩거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짧게 자른 머리는 소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동의를 표결에 붙였고, 이들 서너 명의 나이 많은 소년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그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승복하지 않으면 분대의 규칙을 시행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자 그들도 승복하였습니다.

다음 토요일, 군청 소재지에서는 소년단 대장 두 명이 이발소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발사는 매우 즐거워하며 이발 기계를 그들의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이발이 거의 끝날 때 이발사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머리를 삭발하겠다면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발사에게서 머리를 자른 후,

우리는 내가 소년들에게 합창 연습을 유도하기 위해 약속했던 56km의 장거리 소년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 스물 네 명은 머리를 잘랐으며, 소년단 대장 두 명은 아주 삭발한 머리였습니다.

내가 야외의 언덕과 산과 호수에서 그 훌륭한 소년들과 함께 했던 3주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소년들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과 교제를 계속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나는 아이다호주와 워싱턴 디 시를 다녀온 후에 휘트니 워드 주일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들 중의 한 사람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보좌, 워드 서기, 스테이크 방문 고등 평의원으로 각각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인반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은 교사였으며, 한 사람은 소년단 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훌륭한 모임을 가졌으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의 얼굴을 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에 나는 아리조나주 남부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테이크 대회와 관련하여 일반 신권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모임 중에 홀의 후미쪽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소식이 끊겼던 두 소년 중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팔을 붙들었고,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여기서 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뜻입니까?"라고 그가 되물었습니다.

"응, 그래. 그런 뜻도 되지. 정말 자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나?"

그는 대답했습니다. "별로 큰일은 아니지만 소년단 대장으로 있습니다." (나는 자신을 잘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교회 밖에서 결혼했으며, 하지만 그의 아내는 교회에 들어왔고 그 후로 그녀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그를



여성 대회에 참석한 자매들

활동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신전에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수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이 훌륭한 부부와 자녀들의 인봉을 집행할 영예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아이다호주 빌리에서 개최된 아이다호 농업국 연례 모임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농업국장과 함께 연단에 올라간 나는 어떤 사람이 문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농업국장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스물 네 명의 소년 중 마지막으로 소재가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과 결혼하였으나 신전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는 오래지 않아 신전에서 이 사람을 아내와 자녀와 함께 인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것이 신전에서 결혼한 스물 네 사람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우리는 각자가 이 생에서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65년 동안 해오는 일이지만, 소년단에서의 봉사와 참여는 내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소년단은 지도력을 훈련시키고 애국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며 높은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인격과 영생을 갖춘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를 소년단 대장으로 봉사하도록 불러 주신 이 작은 지역의 워드 감독님께 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행하는 선에 대해 진심으로 격찬함과 동시에, 타락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고 표준을 지키며 훌륭한 교제를 맺고 계명에 순종하며 어디에

있든지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한때 정부 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부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켜 내가 믿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결코 지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가정과 내 부친의 선교 사업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부친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지시한 대로 선교사로 부름받아 아내와 어린 일곱 자녀를 집에 두고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가 선교 지역에 도착한 지 4개월 후에 여덟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는 선교 사업의 영이 있었고 결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열 명의 형제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나의 두 자매는 각각 열 명과 여덟 명씩의 자녀를 가진 미망인인데 그들은 자녀들을 선교사로 내보낸 후 자신들도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감독과 상의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선화한 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겠는지 추측해 보세요. 우리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선교사 부름인데?”

“모르세요?”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심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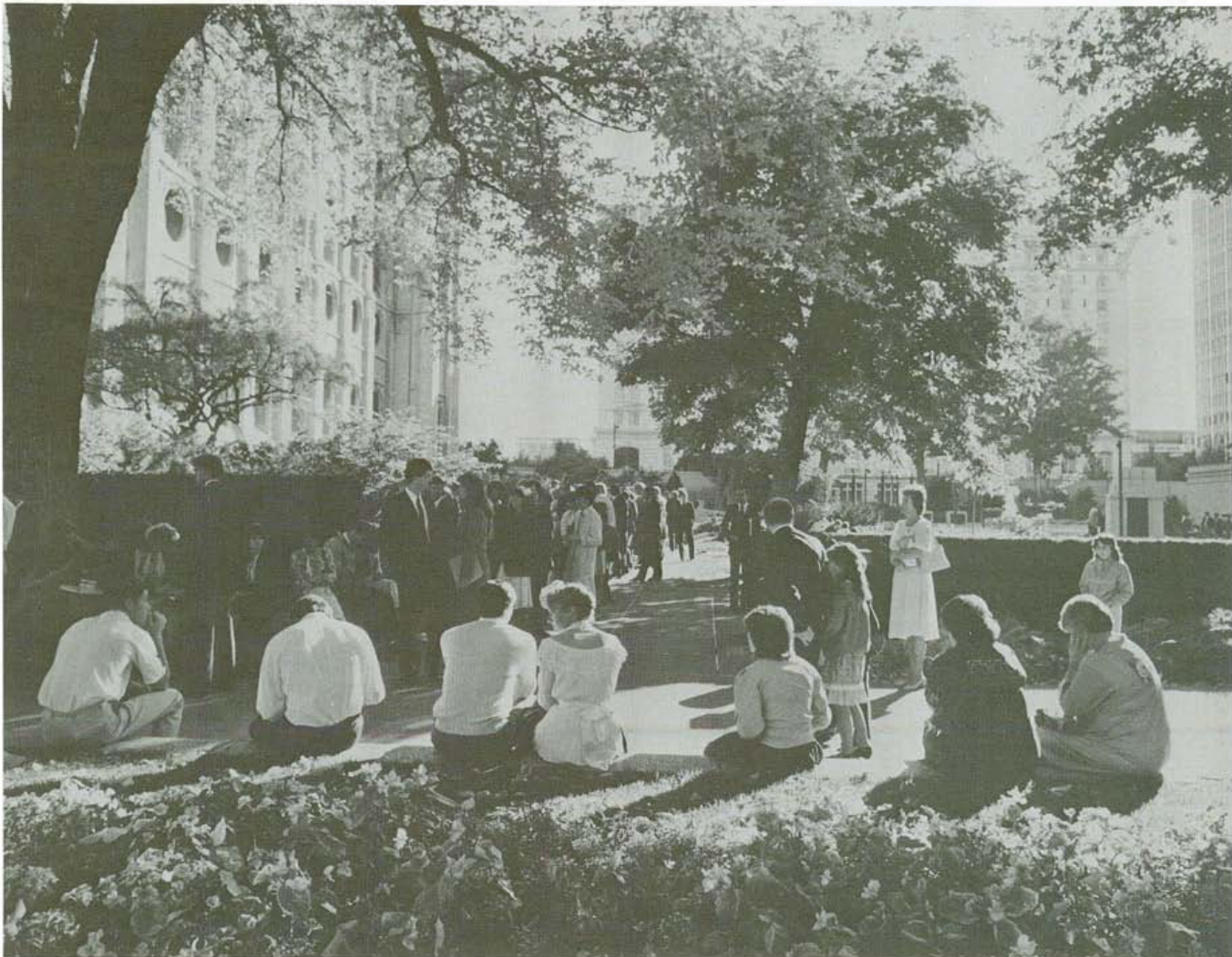
“아니, 전혀 듣지 못했는데.”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은 오빠가 전에 영국에서 봉사한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나는 그들이 잘 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선교 지역에서 귀환할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지 못한 게 유감입니다.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간증입니다. 선교 지역과 같이 간증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가 그곳에 다녀 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권을 가진 형제님들이 모인 이 훌륭한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착하고 충성된 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권을 소유한 소년 및 성인이 이제 거의 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부름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를 결코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벨 에드워드 코치의 말씀을 청소년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게임 규칙을 따르고 훈련시키는 것을 믿고 있는 승자입니다. 그는 7년간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현명하며 능력있는 풍부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오늘밤 이곳에 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으며, 우리는 그가 이룬 일과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코치님, 오늘 또 다른 면에서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남편과 아버지되시는 여러분들은 헝스 형제님의 영감의 찬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신을 자제하려는 결심을 오늘밤 마음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받고 아내 및 자녀들과 함께 하기에 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저녁 우리를 가장 사랑하며 우리도 예외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해야 할 사람들과 합당하게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살리라는 좀더 강한 결심을 마음속으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시 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권을 소유한 소년 및

성인이 이제 거의 백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편 및 아버지들은 친절과 사랑 및 감사의 정신으로 그들의 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름과 같이 어떠한 분야에서도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합니다. 그들은 전세계 어디에 살든지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정부의 훌륭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이웃입니다. 고용인으로서 그들은 성실합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들은 순결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선한 생활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세상에 보여 주는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이 교회가 명예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의 생활에 행복과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외로운 자와 친구가 되며,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충분한 친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달콤한 열매입니다.

어떠한 죄의식도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범법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충실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헌신적인 충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조직되던 때에 피터 휘트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뉴욕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예언자와 함께 한 몇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부름을 받아 기꺼이 커틀랜드를 떠나, 가도록 요청받은 곳이면 어느 곳든지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시온 진영과 함께 오하이오부터 서부 미조리까지 1,280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리버티 감옥에서 예언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와 불쌍한 성도들과 함께 미시시피의 늪을 겨우 건너 일리노이스의 킨시로 갔습니다.

그들은 커머스의 늪을 간척하여 아름다운 나무를 건설했으며 그 장

행 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준비한 말씀은 뒤로 미루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소년들은 오늘 저녁 마음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려는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년 여러분들께 그 위대한 책임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코치는 준비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소년 여러분들이 12세거나 14세거나 16세 또는 18세거나 준비의 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합당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부름 즉, 이 교회를 대표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대사로서

위쪽 언덕에 웅장한 주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카페지에서 요셉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십이사도를 도왔습니다. 그들을 뒤쫓던 폭도들에 의해 그들은 집과 신전을 포기하고 아이오와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물론 대대와 함께 먼 길을 걸어 샌디에고를 거쳐 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콘, 폴레트, 스코츠블러프, 사우스 패스, 인디펜던스 록을 거쳐 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세이지브르쉬(쑥의 일종)를 파 내고, 메뚜기와 싸우며,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며, 집과 교회와 주님께 신전을 지어 드렸습니다.

이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던 사람들과 그들 곁에서 함께 일했던 그들의 아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의 형제들인 여러분은 그런 종류—즉, 충실하고, 신앙이 있으며, 덕스럽고, 가족과 함께 자매를 사랑하며, 신전을 세우고, 신전에서 봉사하며,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하여 어떠한 망설임이나 이기적인 생각도 없이 그렇게 행하며,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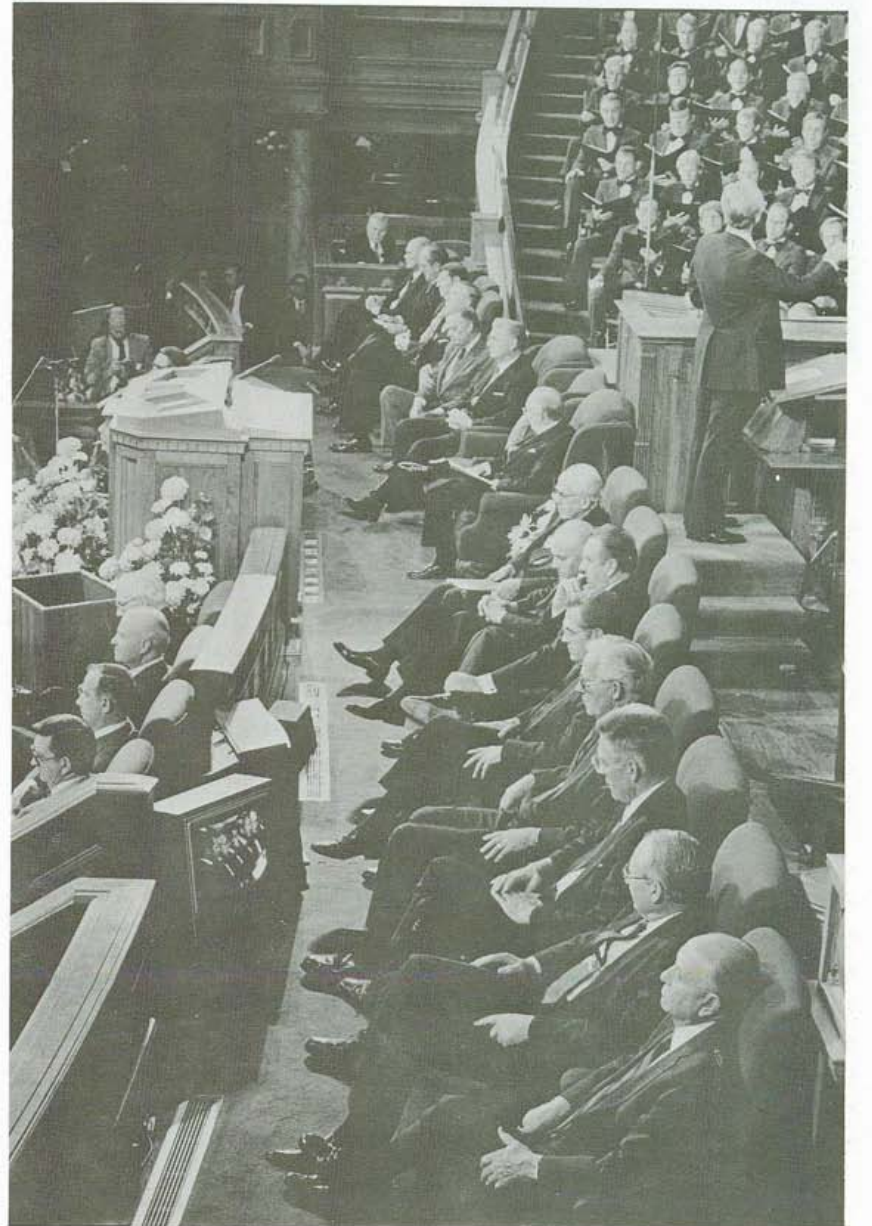
여러분에 대한 감사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의 지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짐이 무겁고 많다고 생각될 때 지지의 손을 들어 준 것 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 헌신적으로 도와 주는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사랑이 깃들며,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으로 번성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길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킵클리 부대관장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이 위대한 말일의 교회는 주님에 의해 '서로 연결하여'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 주일 전 저녁에 템플 스퀘어에 있는 이 태버나클에서 교회 여성들을 위한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 대회에 참석했으며 그 대회는 전국적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 태버나클에 참석한 분들의 얼굴—아름다운 여성, 힘이 있는 여성, 능력이 있는 여성, 덕스러운 여성, 신앙이 있는 여성—을 바라보는 것은 영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제 저녁에는 수많은 신권 소유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졌는데 이 모임은 태버나클로부터 전세계 714개 지역과 900여 스테이크 센터로 중계되었으며 이곳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과 확신에 찬 길을 가는 성인 형제들과 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전세계의 말일성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나는 교회의 대관장을 대신하여 이곳에 선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은 아니나, 성스런 부름으로 받아들인 제2보좌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대관장님의 어깨에서 그 직분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일했으며, 열심히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주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 한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고, 봉사를 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단련받으며, 인격이 완성되어 성스러운 큰 책임을 맡을 준비를 갖춘 다른 분이 나설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회원되는 분들에게 교회 사업은 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쁘게 그 사실을 인정하심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든지, 우리의 책임을 좀더 잘 이행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만족할 수 있는 원인도 있게 됩니다.

지난 대회에서 만난 이후로 선교 사업은 새로운 지역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교회 회원들의 활동은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대한 계보 탐구 사업은 확대 일로에 있으며, 충실한 말일성도의 수도 점점 증가하여 신전에서 성스런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없는 규모로 예배의 전당을 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건축술이 발달하여 이러한 건축물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모인 이후로 세 곳에서 새로운 신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아이다호주의 보이즈와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헌납되었습니다. 수많은 말일성도들이 이러한 영감적인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보이즈 신전에서는 24번의 헌납식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영이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사람들은 남쪽의 라스마니아나 멀리 북쪽 끝으로부터 신전까지 왔습니다. 서해안의 퍼스를 비롯하여 호주 대륙의 전역에서 크나큰 회생을 무릅쓰고 신전으로 모여 들어 14번의 헌납식에서 훌륭한 분위기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계곡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며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름답고 성스런 신전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탑의 돌에 “여호와께 성결—주님의 집”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필리핀 공화국의 훌륭하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수없이 모여 들었습니다. 감사의 찬송과 간증의 말씀과 헌납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감사드리는 백성의 선물로 주님께 그가 거하실 이 아름다운 집을 드리는 데 모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상의 모든 새로운 신전들은 헌납식이 있기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거쳐 갔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관해 자유로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건축물에 감도는 영에 이끌리어 시종 예의바르고 경건한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영을 느꼈으며 신전이 세워진 목적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손님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은 왜 헌납식을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이 건물들을 성결되고 성스러운 건물로 여겨,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지를 인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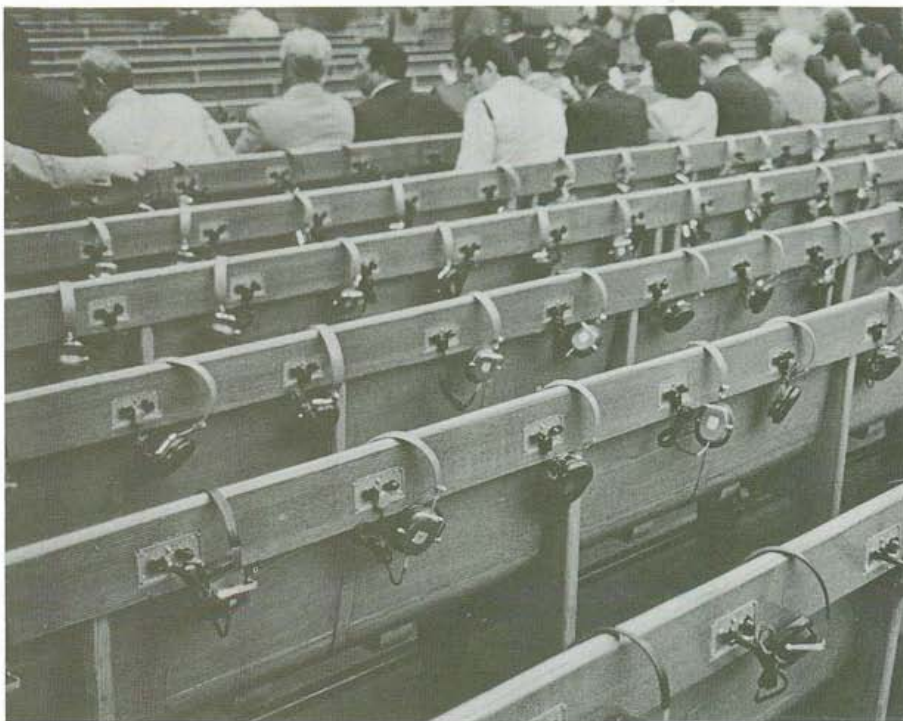
이 헌납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의

참된 힘을 느낍니다. 그러한 힘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서 인식하는 유대 속에서 함께 뭉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은 신성한 것에 관한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각 신전에서 우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과 일치하는 정초식을 갖습니다.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큰 돌을 놓아 기존의 벽을 쌓았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기초로 돌을 놓게 됩니다. 시작한 곳으로부터 기초벽이 한 모퉁이 돌쪽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간 다음, 모퉁이에서 꺾여 다른 돌이 놓여진 다음 모퉁이로 벽이 연결되고, 그곳에서 다시 다음 모퉁이로 연결되어, 처음 시작된 곳까지 나아갑니다. 대개의 경우, 초기의 신전 건축에서 그러했듯이, 모퉁이 돌은 벽이 연결되는 곳마다 놓여지며, 의식을 베풀고 그 자리에 놓게 됩니다. 마지막 돌을 중심 주춧돌이라 하고, 그것을 놓게 되면 훨씬 더 경사스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기초가 놓여지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유추하여 바울은 참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엡 2 : 19-21)

이 위대한 말일의 교회는 주님에 의해 “서로 연결하여”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중요한 기초가 되며, 설 수 있는 닻이 됩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서 있는 필수적인 네 개의 모퉁이 돌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중심되는 모퉁이 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공경하는 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보여진



시련입니다. 셋째는 인류의 구세주의 신성과 실재하심을 말하는 고대 예언자의 말씀으로 땅 속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해지는 물몬경입니다. 넷째는 모든 권능과 권세가 함께 하는 신권으로서, 신권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이상 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기록하신 계획에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헬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에게는 지상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각기 받은 필멸과 불멸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푼 짧은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걸어 다니시며, 병자를 치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장엄하고 아름다운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사 53 : 3)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 : 30)하시며, 그들의 짐을 벗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착한 일을 행하”(행 10 : 38)셨으나, 그로 인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절대자들이 그에게 대항하여, 그는 체포되어, 거짓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폭도들의 죄목을 만족시키기 위해 끌고다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갖 고초와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리시어 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 : 34)

그는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당당히 나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인해 생명은 영원하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는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고전 15 : 20-22 참조)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것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움과, 경이롭고, 장엄하여,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 9 : 6)

그는 그의 이름을 따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되는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인간은 그의 다른 어느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 4 : 12 참조) 그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 5 : 9 참조) 그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신앙과 그의 교회에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모퉁이 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입니다. 1820년 봄이었습니다. 의문을 품은 소년은 아버지의 농장에 있는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있음을 안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리라고 야고보가 약속한 지혜를 기도도 간구했습니다. (야고보 1 : 5) 그곳에서 그가 상세하게 묘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 곧 만유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으로 회복이라는 기이한 일의 문호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에 약속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반을 넘는 세월을 걸쳐 적대자와 비판자와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은 시현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 생활을 한

이후로 그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과 조직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며, 시현이 실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됩니다.

첫번째 시현을 논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책이 쓰여졌으며, 앞으로도 많은 책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한정된 정신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의 간증은 그것이 참되고, 요셉 스미스가 말한 대로 일어났으며, 팔마이라에 해가 뜨듯이 사실이며,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필수적인 초석이 됨을 확실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모퉁이 돌은 물문경입니다. 내 손에 그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무게를 짤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읽어 보면 아름답고 고상한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번역된 고대의 기록은 티끌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땅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살았으며, 역경을 헤쳐 나가고, 서로 싸우고, 때로는 신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여 변역하기도 하고, 신을 버려 멸망하기도 했던 여러 세대의 백성들의 간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에는 제5복음으로 묘사된,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이 대륙의 땅을 방문하신 것에 관한 새로운 세계의 감동적인 간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은 세상에서 그에 대한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증거는 혹자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연구나 역사적인 분석으로 확증할 수 있다 해도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책의 진리를 시험하는 것은 책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은 그 책의 기원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어 본 사람은 그들의 오관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 책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물문경 표제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문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번역자 자신이 그 기원을 설명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동반자가 되는 성경과 함께, 그 책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는 세대에게 또 하나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비판의 여지가 없는 모퉁이 돌입니다.

네번째 모퉁이 돌은 지상에 신권의 권능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권능은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으며, 아론의 아들들에게 소신권이 주어져 세상의 일이나 성스런 종교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권은 주님 자신이 그의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 : 19)

신권이 완전히 회복된 것에는 그리스도의 예비자였으며, 사악한 여인의 변덕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이 잘렸던 침례 요한이 오심으로, 또한 구세주께서 사망하시기 전까지 충실하게 구세주를 따랐으며, 구세주의 죽음 후에는 그의 부활과 신성을 선언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의 오심으로, 또한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각기 위대한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모든 행위와 의식을 회복시키고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신권의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신권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여 거룩하게 주어진 엔다우먼트의 소유자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이 신권의 권세를 압니다. 우리는 병자가 치유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지식과 깨달음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신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 5:4) 우리는 이것을 돈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생활 상태, 피부 색깔,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을 할 권능을 가진 사람들의 안수례에 의한 성임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 신권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지상에는 그와 같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 권능은 이 생을 넘어서, 죽음의 장막을 통해 영생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사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들이며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간증과 회원들의 확신도 그러합니다. (1)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과 신성: (2)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들어와 하나님과 아들에 대하여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놀라운 시현: (3) 구세주의 신성을 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물문경: (4)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의롭게 행사되도록 거룩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신권.

이러한 모퉁이 돌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각기 사도와 예언자의 터위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되는 모퉁이 돌에 연결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제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엡 2:21) 세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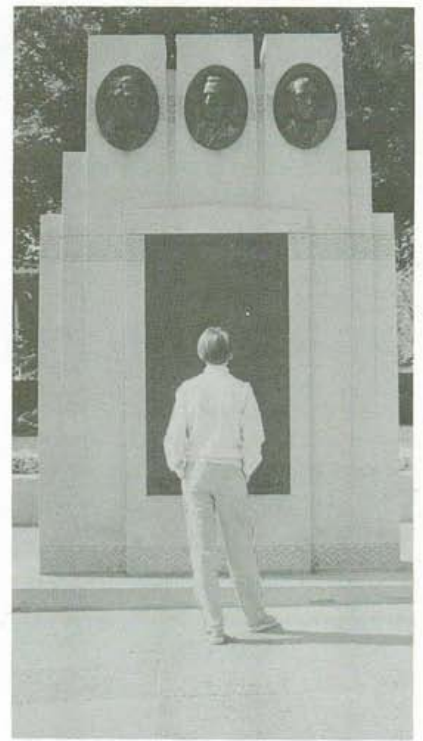
밑에서는 기초가 다져지고 위에서는 서로 연결된 이것은 전능자의 창조물로 상징됩니다. 그곳은 인생이라는 폭풍우를 피하는 대피소가 됩니다. 그곳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는 집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저장소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곳이며, 참되며 살아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을 나는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 평화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말씀해 주셨으며, 그의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땅 속에서 고대 백성의 기록이 나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분의 사업을 증거해 준다는 것과, 영원한 신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그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이 교회는 참되며 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굳게 세워졌으며,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중심되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합니다.

“우리 조상의 강한 신앙, 우리도 끝까지 참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외 방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부인인 카밀라 킴볼 자매(중앙), 심이사도 정원희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부인인 콜리 맥스웰 자매(좌), 킴볼 대관장의 비서인 디 아서 헤이콕.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불행한 사람을 돕고 길 잃은 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오늘 특별한 문제를 지닌 자녀와 그 부모님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널리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특별한 문제는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요 9:3)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회중 가운데서 앞쪽에 자리잡고 우아한 손짓과 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소수의 그룹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들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친절하고 재능이 있는 분이 그룹 앞에 앉아서 소리와 음절을 분명한 손짓으로 사랑스럽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어떤 큰 집회에서 우리는 청각 장애 회원들이 수화로 찬송가를 파트별로 부르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이스와 테너 파트를 부를 때는 자매님들의 손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소프라노와 알토를 부를 때는, 형제님들의 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듣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분들이 계시며, 보지 못하는 분이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들의 가족 특히 그들의 부모님께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아무런 흠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있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특별한 은사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또한 달리 가져 올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 요인이 전혀 없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나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녀로 인해 번민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굳건하게 이겨 나가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부모나 자녀의 일생을 두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매일같이 계속되는 수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한 부모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초인간적으로 보살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특별한 자녀의 고통을 덜어 주고 위안을 주기 위해 쉴새없이 팔과 가슴에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자녀가 정상적으로 발육되지 않았음을 처음으로 안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눈물을 삼키며,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말하고, 걷고,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까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대답 외에는 달리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은 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장애자를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차 보살피 주어야 한다는 부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해를, 혹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허리가 휘도록 보살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닦쳐 보기도 전에 눈물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가족들은 그 짐을 하루에 한 번씩 나누어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신체 장애 자녀를 둔 어느 훌륭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점차 하루에 한 번씩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제는 것처럼 힘들지 않게 되었어요. 실제로, 나는 하루 일을 마칠 때면 그날의 일을 감당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도 잘 보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그 아기를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에서의 그의 존재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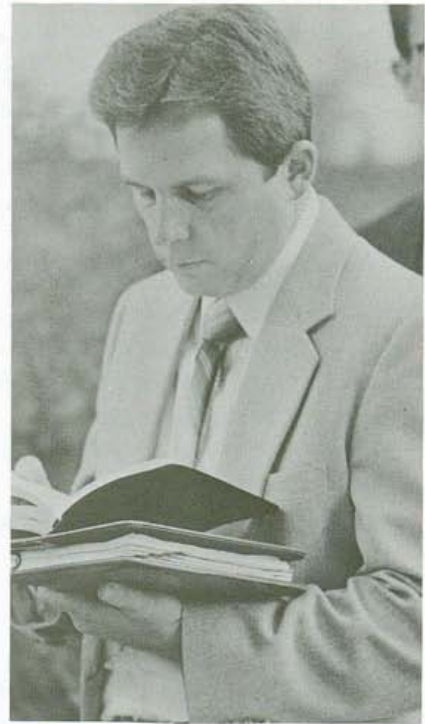
어느 선교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심한 장애인 동생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를 대신해서 매일 빌리를 안아 주세요. 복음 토론 중에 우리는 내 동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도 동생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동생을 보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특별히 은혜로운 사람이며,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가족입니다.”

장애자와 함께 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장애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지지 거수, 콰로부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몽키, 엘 톰 페리 및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대회 방문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한복음 9:1-3)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장애자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나타날까요? 분명히 그러한 것은 부모와 다른 가족 및 친지가 보여 주는 애정어린 보살핌과 관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장애 요인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가될 수는 없으며, 아무리 사소한 것을 성취시켰더라도 그로 인해 큰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씨는 불구자를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 데서 참으로 기적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감각 기관이 더 많이 기능을 발휘하거나 기이한 방법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언어와 운동 장애가 심한 어떤 젊은 친구는 시계를 만드는 경험이나 그에 대한 훈련을 받은 일도 없었는데 복잡한 시계를 고쳐 놓았습니다.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발전해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매일같이 새로운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신력은 놀라우리만치 뛰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정도로 무한하신 분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에게 강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장애자가 인생을 매쳐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에 도달하려 하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정원회 회원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및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함께 노래하고 있다.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지상에 보내신 모든 마음과 영은 모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1페이지)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로,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장애가 있는 자들이 부활 후에도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엘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체는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모두 지금 우리의 모양 그대로 회복될 것이다.”(엘마서 11:43) 역경도 지상 생활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보다 많이 나누게 되면 주로 많이 돌보아 주는 사람의 정서적인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때때로 단 한 시간만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불구 자녀를 둔 어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하루 저녁이라도 집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불구자는 부모나 그 자신의 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문제를 지닌 천진스런 아이를 보고 어떻게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회적인 질병, 중독성 약품 및 기타 해로운 물질을 극력 삼가한 부모가 어찌하여 불구 자녀의 출생을 신의 분노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부모나 자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마 5:45)

우리 주위의 장애자들을 따스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지닌 자녀들을 따스한 가정의 품속에서 돌보아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 하셨으니, 결함이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은 곧 구세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장애자를 둔 부모는 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면서 설불리 동정을 표시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당황하게 되거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먹여 주고, 씻기고, 기저귀를 채워 주어야 하는 갓난 아기를 사랑하는 만큼 나이는 많아도 여전히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비교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지팡이나 휠체어나 목발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러한 보조 수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본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들 역시 인간으로서 다만 보통 사람과 같이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을 더듬을 수 있으나, 감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들도 웃고 울며, 실망과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따돌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불구로 인해 편견을 받지 않은 채, 그들이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적인 면에서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좀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불구자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긴 그들의 내부에 깃든 고귀한 정신 세계를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고나 가르침에 귀를 돌리고 탈선한 자녀 때문에 근심에 싸여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랑에 보답하나 그 중에는 등을 돌리고, 탕자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자유의지의 원리는 발전하고, 성장, 진보해 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스스로 방종하고 낭비하고 퇴보하는 생활을 선택하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가르침이나 소원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대체로 부모는 그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부모의 떨리는 음성을 들으라.”(나이 1 : 14)는 니파이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께서 현명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 사항을 보살펴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도 자녀가 여전히 빛나가고, 세상적이거나 골치거리가 된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아마 어떠한 부모나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다루기 힘든 애들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96페이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부모로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의중을 헤아려 참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들”(교성 68 : 25)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생활했다 해도,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선한 행위를 항상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에스겔 18 : 20)

부모는 강제가 아니라, 기도와 사려깊은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자녀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예를 가져다

주지만,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려 하지 않는 자녀들의 행동으로 충실한 부모를 판단하려 드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부모에게는 가르칠 책임이 있으나, 자녀들 역시 그들이 가르침받은 대로 귀기울여 순종하며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봉사합니다.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님들께 나는 윈스턴 처칠 경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말을 강조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공이 보장되는 공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이고, 인격을 갖추게 하며, 자제력을 심어 주는 것은 배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청소부로 일한 어느 위대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예절과 일하는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교성 68 : 25 참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모와 자녀들이 겪는 문제에, 특히 장애자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는 나의 자녀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그다지 긴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을 돕고 길 잃은 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요, 인류의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메리온 지 폰니 부대관장
제1보좌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제2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롬 페터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더샘 엠 스미스



머릴 에이치 쿡스



제이 토마스 파이만스



칼로스 이 에시



애플러센/엘라드 이세



던 엘 리슨



지 호머 더럼



리처드 지 스크로트



베리온 디 빙스



에이 디어도어 디클



프랭클린 디 리처즈



디어도어 엠 버븐



폴 에이치 딘



하트만 맥터 이세



로렌 시 딘



로버트 엘 심슨



맥스 디 피네가



더블유 그랜드 뱅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에드나 와이 고마즈



조셉 비 워스린



진 알 쿡



찰즈 에이 디래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존 에이치 그루버그



레이몽 디오거



본 제이 페터스토운



로이든 지 터릭



로버트 이 스위즈



제임즈 엠 페리도어



툼 더블유 피너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쿠찌



로널드 이 포폴멘



데릭 에이 카스버트



로버트 엠 백맨



렉스 시 리그 일세



에프 비븐 하워드



테디 이 브루어튼



잭 에이치 고슬린드



안헬 아브레아



존 케이 카머



러셀 시 메일러



로버트 비 하버트슨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데이비어 해리스



윌리엄 디 스테그



존 쇼펠버그



에프 이서 케이



키드 더블유 블류스

관리감독단



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명영출판사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진리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진리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참으로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두 호모하는 과거의 지도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런 말씀을 자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은 더 훌륭하게 하는 것입니다.”(밀레니얼 스타, 1961년 10월, 469페이지)

주님은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도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것은 나로 인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선이 비롯되지 아니함이라. 내가 인간을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이매.”(이더서 4:12)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사람을 훌륭한 면으로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니라.”(교성 93:24) “진리는

항상 있어 끝이 없느니라.”(교성 88:66)

예지는 지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36) 이 성구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요.”(교성 93:2)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는 네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나무로 지어진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 앞에 주인은 약 10센티미터 되는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기 위해 먹음직스런 과일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나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그 탐스러운 빨간 사과를 보는 순간,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중에 나는 사과 하나를 집어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다가, 나는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사과를 훔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달음박질치기 시작했으나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덕 편에 있었던 우리 집 현관 앞에는 정원에서 쓰는 도구를 넣어 두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은 또한 숨기에도 안성마춤이었습니다.

나는 집까지 출근 뛰어가 현관 밑에 있는 창고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거기에 앉아 겁에 질려 떨며 사과를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어린 나이에 양심의 가책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가를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날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사건은 훗날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2000년 전 어느 특정한 날에 요단강가에 서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신이 비둘기의 형태로 하강하여 그에게 내립니다.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얼마간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깥 기온은 덥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꺼운 돌벽이 열을 차단해주었으며 그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베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이어나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요한복음 8:12-14, 17-18)

아버지의 간증과 예수님의 간증은 단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2000년 전에도 진리였듯이 오늘날에도 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우리 각자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 및 교육면에서의 나의 지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복잡한 과학의 공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지혜가 필요하듯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도 많은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은 탐구하는 것이며, 경전 공부, 사색 및 기도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참된 지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영리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재능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도 발명해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얻는 근원은 오직 한 곳인데 그것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명상과 성찰로써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집, 13 : 148)

복음 원리를 추구하고,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교성 88 : 67)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결핍될 때 참된 교육을 구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실적인 지식을 마음속에 채워 넣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리의 지식을 채워 넣을 뿐만 아니라, 영혼 속 깊이 그것을 값지게 경배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은 진리로 인도되고 형성되어 목적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 교리, 241페이지)

인간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대회 광경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진리란 위대한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라고 윌리엄 조지 조단은 썼습니다. “진리란 우리가 옳다고 보는 것에 충실한 것이며 우리의 이상과 조화를 이루며 용감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진리의 힘,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43년, 3페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교성 130 : 18-19)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교성 131 : 6)

브리감 영은 “언제 우리는 배우는 것을 그쳐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다음 “결코 그러서는

안됩니다.” (설교집, 3 : 203)라고 스스로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거의 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반면에, 다른 진리는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진리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진리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참으로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실이란 건전한 도덕적인 원리를 갖춘 자질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성실이란 고결, 정직, 진실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나 그 이상을 뜻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헌을 본 후,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무자비하게 박해를 당했으며 38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것을 부인한다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25)

요셉 스미스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성실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데 그것은 그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원리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반대 의견이 극심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하다하더라도, 그는 굳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전념했으며, 주장이 뛰어나 결국은 국민의 영원한 찬사를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성실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사뮤엘 존슨은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지식을 갖추지 않은 성실성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며, 성실성을 갖추지 못한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레실러스, 41장) 초등·중등, 고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교육 체제의 참된 성공 여부는 어떤 인간을 배출해 내는가에 따라 측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 정치, 정부 및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기 뇌물 및 부정직한 행위로 재물을 모은 다음 의로운 일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실성은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결함은 선견과 충실성으로 유지됩니다. 힐라만의 젊은 용사들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엘마서 57 : 21) 그들은 전쟁에서 싸우게 되면 행하리라고 한 것을 온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은 고결함의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잘 행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용인으로서 여러분은 40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에 맞추어 최소한 4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며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관리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진지하게 연구하며 충고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여러분의 관찰하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돕고 있습니까?

청남, 청녀 여러분은 가정에서 배운 그러한 도덕적인 원리에 충실합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비이기적이 되며,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재능을 선용하도록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순종합니까?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 : 20)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눅

6 : 43-44)

좋은 열매를 맺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믿는 신앙을 갖고, (2) 영원한 진리를 연구하며, (3) 이해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4) 진리의 원리를 일상 생활에 적용하도록 힘쓰며, (5)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정직하며, (6) 높은 표준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훌륭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화는 우리가 손을 뻗치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원리를 추구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생활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며, 더 나은 지역 사회, 더 나은 세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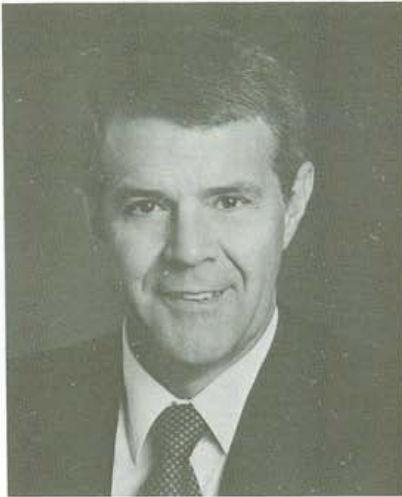


대회 방문자

복음과 교회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의 일상 생활과 복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의로운 동기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 진실하고 신성하며 그들 사이에는 의미있고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혼란과 오류 그리고 절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회에 즐겁고 충실하게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한 불평을 피하고, 커다란 개인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과 교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개인 생활에 있어 복음과 교회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안목을 기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성하며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요, 율법이며, 때와 장소 또는 환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의식입니다.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복음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신권에 의해 운영되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복음의 원리와 교회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필요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개개인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신성한 계획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의 제공을 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복음의 축복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교회내의 절차와 프로그램 및 정책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 및 절차는 복음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때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전에 포함된 영원한 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원리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지식의 수용 및 적용 능력을 넓혀 나갈 때,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성하고 영적인 교회를 통해 수행되는 복음의 영원한 원리는 다양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각양 각색의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원리는 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기본적인 원리와 영원한 율법 및

지시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안목은 경전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때와 장소에서 가르친 여러 예언자들의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에 그리고 원리를 적용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교회의 형태와 절차, 규칙 및 의식의 효용 가치를 알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영원한 원리를 수행기 위해 신성하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습과 절차는 변하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원리를 배울 수 있으며 그 원리가 어떻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적용시킴으로써 회복된 교회들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며 그에 따라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즐겨 인용하는 경전은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제사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법칙과 규칙 그리고 관습과 의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원리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원리와 법칙 그리고 관습을 유의해 보면서 레위기 19장을 읽어 보면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는 두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레위기 19:1-2) 여기에 제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날에도 그러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라.”(레위기 19:2)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여기에 영원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영원한 원리는 십계명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여건 속에 있는 고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리를 의도한 어떤 규칙이나 프로그램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지지하신 책임으로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즉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의 식량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9-10 참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오늘날의 프로그램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의 율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프로그램 즉 고대와 현대의 프로그램 사이의 다른 원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능력껏 그들 스스로를 돕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매일 저녁 고용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고용주들에게 요구하는 규칙과 함께 정직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그 규칙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정직에 대한 영원한 원리는 그 밖의 규칙과 관습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27절은 개인의 몸치장에 관한 규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백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의복과 몸치장에 대한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영원한 원리는 아니며, 두 가지 다 우리가 복음 원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의 원리는 또한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라는 두번째 계명이 수록된 레위기의 같은 장의 18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복음 원리와 교회의 관례에 관해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 그리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혼란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는 교회가 요구하는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계명과 권고에 순종해야 하며, 경전 공부와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신의 능력을 통해 원리나 권고가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에 가득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꺼이 충성하고 시간과 재능 그리고 그 밖의 것 등을 통하여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표, 프로그램 및 정책을 복음 원리와 개인의 영원한 목표에 연관시킬 때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과 복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의로운 동기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우리는 자제심을 발휘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 주는 의로운 지도 능력과 신성한 책임감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원리 및 해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활화한 인간이 잘 준비하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나의 성품이나 교육에 의해 또는 경험에 의해서, 이제까지의 나의 인생은 사실을 축적시키고 이성을 적용시킴으로써 이해를 얻고자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확실히 알고 있으며, 가장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진실로 영향을 미친 것은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확실한 간증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에 의해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나사렛 예수가 육신을 가진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과 그가 모든 인류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며 구속주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그를 믿고 회개하며 성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무상의 구원과 승영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들 각자가 성스럽고 회복된 교회의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계속해서 복음의 영원한 원리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니파이의 지도자 페이호랜은 “교회에서의 커다란 우리의 특권을 기뻐하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자.”(앨 61:14)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 부모의 모범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떻게 우리는 깨끗하고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안 식일입니다. 바깥은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숨씨를 노래하는 듯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유월의 태양과 구름과 꽃들이 너희들은 시월의 맑고 푸른 날씨와 단 한 시간이라도 겨룰 수 없으리 (헬렌 헨트 잭슨, “시월의 맑고 푸른 날씨”)

나는 교회의 기본 교리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말씀은 다음의 확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원에 필수적인 가르침은 경전의 모호한 구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필수적인 진리는 거듭 반복되어 있습니다.

둘째, 모든 구절은 자주 인용되거나 모호하거나간에 다른 구절과 대조하여 보아야 합니다. 경전에는 진리를 균형있게 알려 주는 보충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셋째, 주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에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 그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영적이고 교리적인 것에 관한 가치있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꽃과 여우와 씨앗과 소금과 참새와 일물예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전 즉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도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증거합니다.

다섯째, 신앙만으로도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충명을 주시나니.” (욥 32:8) 경전의 모호한 내용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명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면,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신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영적인 대화를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원수는 부주의한 사람을 혼란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여 거짓되고 반대되는 교리를 진짜처럼 보이려고 교묘하게 꾸미게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자칭 대변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잘못 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가십시오’

젊은 나이로 신학원 교사였을 때, 나는 에이블리치 원장으로부터 가치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로 알고 싶으면 그분의 원수를 찾아가지 마시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그의 친구를 찾아가십시오. 그는 자기 생각을 원수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제대로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원수들은 그를 잘못 알려 줄 것입니다.”

내가 토론하려는 교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구약(시편 8:4)과 신약(히브리서 2:5-7)에 다 같이 기록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시 8:4; 히 2:5-7 참조)

이 대답은 우리가 모임 중간에 불렀던 노래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함께 노래를 B-76)

‘하나님의 자녀’

위의 구절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교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여러 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시 82:6)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행 17:29) 교리의 진리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옛말에 “지팡이의 한쪽 끝을 들어 올리면, 다른 쪽도 따라 들려 올라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되풀이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아버지라든지 나의 아버지라는 말만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너의 아버지 및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문장에는 이를 다 합쳐서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교성 88 : 75)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집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목사의 말만 믿고 기독교인답지 않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는 것을 알잡아 보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서 다른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은 남을 기꺼이 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남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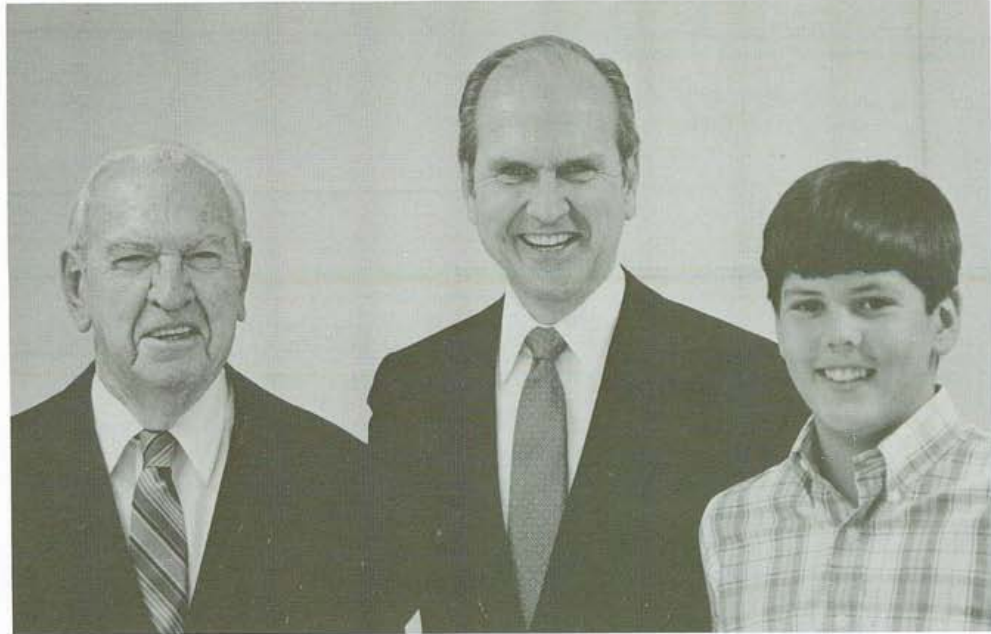
이 간단하고 심오한 교리를 알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에서 오는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연민과 절망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교훈까지도 받아들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그분의 성품을 닮고 우리 부모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어린 소녀가 이 점에 관해 나에게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린 아이로부터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병아리’

몇 해 전, 내가 집에 와 보니 어린 아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십이사도 정회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중앙)가 그의 부친 매리온 시 벨슨 및 아들 러셀 이세와 함께 있다.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지금 막 깨어난 병아리들을 마구간 구유 밑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병아리를 잡으려 하자 어미 닭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병아리를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곧 병아리 몇 마리를 붙잡아서 아이들에게 보여 주며 만져 보라고 했습니다.

어린 딸애가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나는 농담으로 “그 병아리는 커서 멋진 세파트가 되겠지, 그렇지?” 하고 물으니 그애는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의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바꾸어, “세파트는 안되겠지?”라고 말하자 그애는 “아빠, 안되고 말고요.”라며 머리를 짓기에 “커서 멋진 경마가 될거야.”라고 하였습니다.

그애는 코를 찔룩거리면서 아니라고 답변하는 눈치였습니다. 겨우 4살짜리도 병아리가 커서 개나 말이나 칠면조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될 것입니다.

병아리는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유전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강의 한번 안 들었어도 그애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모든 만물은 창조 당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생겨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모세서 2 : 12, 4 참조) 자손을 낳습니다. 모두 다 부모를 닮습니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는 짐승이 안되고, 물고기도 안됩니다. 젓먹이 동물이 뱀을 낳을 수 없으며 “영경귀에서 무화과를”(마 7 : 16) 딸 수 없습니다.

수억만 종류의 생물이 있지만, 한 종류도 다른 종류를 낳지 않습니다. 종류가 섞였으면 대개 자손을 낳지 못합니다. 모든 생물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며, 보통 사람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기 자녀가

달팽이나 뱀에서 진화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 진화론을 받아들인 자들은 계보 탐구에 열성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진화론은 단지 이론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완전히 알려졌을 때 그 위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을 창조하실 때 영롱한 모습으로 창조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학적인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우리가 인간의 최후의 목표를 언급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는 말을 사용한 데에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어린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젖먹이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하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그 면전에 들어가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보고 알려지는 대로 알려 아버지께 충실하십시오 영광을 받은 자녀라.”(교성 76 : 94)

이 교리는 경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독교인들이 이 교리를 배척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

그들의 주장은 몇 가지 경전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에서 (성경에서만 최소한 20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나 이 구절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 하나님’

많은 다른 성경 구절에는, 적어도 주님들이나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 : 26)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시편 82편을 인용하시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요 10 : 34-36)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사야나 다른 예언자들이 꾸짖었던 이교도의 다신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인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입니다.

구속주 중재사, 구세주는 한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신은 한 분으로 신회를 구성하는 영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세 번 사용했으며 셋은 복수입니다.

바울도 한 문장 안에 “ 많다 ” 라는 말과 “ 하나 ” 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고전 8 : 5-6)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와 성신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여섯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성에 의존함’

초대 사도들이 돌아가신 뒤, 교회의 지도력을 떠맡은 사람들은 계시를 버리고 이성에만 의존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괴롭혔으니 이는 한 하나님이라는 성서의 말과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읽지 않은 상태로 한 하나님이라는 말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삼위 일체라는 신비스러운 말 속에 이 세 분의 개체를 한 분으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잘 맞지 않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자연 법칙 등을 버렸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들이 지켜야 할 정당한 이유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이해하고 빌립보인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 : 5-6)

현대의 예언자 스노우 대관장은 옛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한 편의 시를 쓰셨는데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될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이 되리니 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리라.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9년 6월호)

‘정결’

어떻게 우리는 깨끗하고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자존심을 키우고 인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 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숭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부도덕한 행위나 어린이 학대나 낙태나 살인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불경하고 불손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이 옛날의 예언자들에게서 계시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많은 빛과 지식이 계시되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의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이

알려졌습니다. 다른 계시들이 주어짐으로써, 서로 상반되는 듯한 구절들이 일치될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품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페이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실제 자손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인 구속주는 단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신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느니라.”(로마서 8:16-17)

가장 무자비하게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인내하며 이를 참아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사업은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어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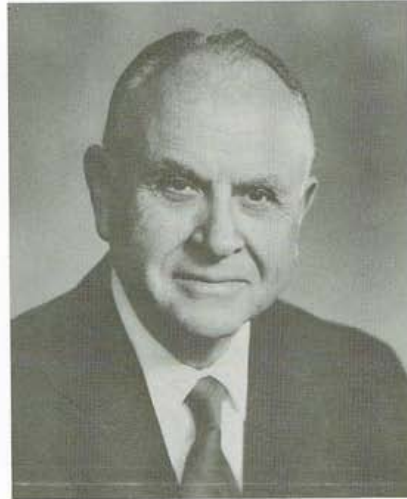
우리는 노력을 다하여 예수가 가르친 대로 가르치고, 그분이 사신 대로 살며, 그분이 견디신 대로 견디어야 합니다.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신의 은사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알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우리가 이 교회로부터 멀리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 진리로부터 우리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개인의 도덕성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모두 추잡하고 저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런 부도덕한 외설물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육신과 영을 지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최 근에 호주의 시드니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거룩한 신전 헌납이 있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판장님은 영감에 찬 헌납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성도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했으며 계속하여 그들의 영적 및 세상적인 지혜가 자라고……미덕과 지식과 당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당신 원수의 악한 계획이 좌절되게” 해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처치뉴스, 1984년 9월 30일, 10페이지)

나는 오늘 “당신 원수의 악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영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악이 만연하는 것에 대하여 솔직한 나의 염려를 여러분에게 신중한 태도로 잘 이야기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염병 같은 외설물이 점점 더 강한 힘과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고 온 세상 대부분의

국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민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약간의 조잡한 그림 잡지로 시작한 것이 수백 종류의 책으로 늘어나 서로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아 다른 잡지를 앞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음탕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잡지를 파는 소위 “성인” 책방이 지금 거의 어느 도시에서나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외설물은 단순한 갈색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만 판매되었는데, 요즘에는 수많은 지역 잡화점 및 사업소의 잡지대에 버젓이 전시되고 있어서 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최저질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저속한 어떤 영화는 제작비가 단 4만불 좀 넘게 들었을 뿐인데 6억불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배심원에서 모든 외설물의 90%는 범죄 조직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과도처럼 점점 많아지는 외설물이 약화되는 도덕 방파제를 향하여 들이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업으로부터 생긴 큰 이윤은 더 크고 복잡한 사업 자금이 됩니다.

수많은 좋은 면에서 우리 생활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외설과 타락을 퍼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레코더는 훌륭한 역사, 예술 및 연극 고전물을 집에서 즐기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 부패한 영향력을 우리 지역 사회에 퍼뜨리는 그런 저속하고 방탕한 모습도 우리 집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선 텔레비전 및 위성 중계는 잘 활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여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데 필요한 주법이나 국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미합중국에서는 거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탐욕에 찬 사람들은 외설물의 희생자에게 어떤 결과를 주거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법 규제의 진공 상태”를 철저히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외설물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설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으나 “보면 안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대법원 판사인 포터 스투워트씨였습니다.

외설물은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외설물의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외설물은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일생을 지배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설물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곧 점점 더 저속한 내용물을 보고 싶어하게 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면 영이 무감각해지며 주의성없는 사람의 양심을 잡아먹게 됩니다. 희생자는 육목적 생각과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처럼, 외설물을 보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희생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범죄율은 인구 성장률보다 5배나 더 증가했습니다. 1983년에 뉴햄프셔주의 어떤 대학교에서 행한 연구를 보면, 외설물 잡지를 가장 많이 읽는 주에서 강간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외설물은 가장 추악하고 퇴폐적인 방법으로 남녀 노소 모든 사람을 타락시키며 품위를 손상시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비극은 어린이가 그 희생자가 될 때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가장 슬픈 경향은 어린이 학대 및 모욕이 놀라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건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며,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룩한 순결함을 더럽히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함께 노래를, B-76) 이것은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어린이를 해치는 사람을 가장 심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 : 10, 14)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 : 6)

“교대 사도들과 예언자들은……이런 지탄받을 죄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간음, 부정, 불순결, 무절제한 애정, 혼외 정사……성도착……성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중 가장 나쁜 것이 근친 상간으로서……이것은 법률로 결혼이 금지된 너무 가까운 친척간의 성적 관계입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볼, 김볼 대관장의 말씀, 솔트레이크시 : 데저렛 출판사, 1981년, 6페이지) 근친 상간은 추악한 죄이며, 이 죄는 특히 그 무죄한 희생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도매체 어떻게 하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행위를 하게 됩니까?

경찰은 어린 소년 소녀를 괴롭히는 사람의 약 80퍼센트가 자신이 본 외설물을 훔내내어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강한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 지도자들의 우려와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김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하수도 와 같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흥행거리다면 흥행사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 잘 팔아 먹게 된다. 법률이 통과되고,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변호사들이 변호하며, 재판이 행해지고, 썩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지만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정화하지 않는 한……외설 문학이나 품위를 해치는 저속한 일은 결코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김볼 대관장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속한 것에 싫증을 느끼고 멀리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김볼 대관장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하고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악의 영역에서 철저히 발을 떼고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사탄은 손자국을 남긴다.”(용서가 낳는 기적, 208, 211페이지 참조)

광고를 위해 도덕 표준을 낮추는 언론 매체, 검열을 완화한 영화, 혼외 정사를 합리화시키고 멋지게 보이게 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그 강력한 호소력을 이용하는 텔레비전 연속물 및

스페인서 더블류 컴볼 대판장의 부인인 카민라 컴볼 자메(우측)와 여성 총퇴에서 맨승 맨승 자메의 영접을 받고 있다. 맨승 자메는 십이사도 정신의 리더인 맨승 자메의 부인이다.



코메디 등은 이런 추잡한 것이 더 많아지도록 조장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추잡한 것을 만들고 배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수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거룩한 영감을 받은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외설은 허용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외설물을 생산하고 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헌법의 권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밀러 대 캘리포니아, 413 유 에스. 15, 1973년)

외설물을 금지하거나 다스리는 법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외설물이 악을 퍼뜨리는 것을 조장했습니다. 법을 더 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외설물에 대하여 힘든 투쟁을 벌여 온 사람들은 외설에 관한 현재의 법률만 집행되어도 모든 외설물의 90%는 우리 지역 사회로부터 근절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기있는 도시에서는 외설 영화 극장과 소위 “성인” 책방을 제거하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책과 잡지를 용이하게 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마운트레바논 시민들은 “시민 활동 그룹”을 결성하여 그런 저속한 것을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인 책방과 큰 배부 창고를 폐쇄했으며, 단호한 시민 조직과 참여로 마칩내 외설물을 배격하는 시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 기구는 시민 단체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시민과 무익한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강력하게 법률을 집행하지 않은 검사들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조류를 막으려면 이런 공격에 용기와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사람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법적으로 외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일부는 지역 사회의 표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들인 우리는 자신의 표준에 의해 음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즉 법적으로 외설물이란 어떤 것인가를 정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추악한 외설물이라도 그것이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검사들은 지역 사회의 표준에 의하여 외설물인지 아닌지 판정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외설물에 관한 법률 집행을 기피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역 사회가 외설물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인 그 지역 사회의 표준을 반영하는 것에 틀림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우려하는 시민으로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런 욕된 것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과 사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사려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밝히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야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파괴적이고 유쾌한 길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분개하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승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동은 사려깊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앨버트 캐머스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행동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당신은 어쨌든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로운 악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추잡하고 저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런 부도덕한 외설물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육신과 영을 지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가정, 우리 마음 또는 우리 머리에 발붙일 곳이 없게 합시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자로다.” (시 24 : 3-4) 내 음성을 듣는 분 가운데 버려야 할 그런 좋지 않은 부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을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날로 삼으십시오. 만일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어린이를 해치거나 욕되게 하려는 유혹을 받거나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런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사도이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 1 : 12-13)

부모 여러분, 적정 연령에 도달한 자녀와 함께 외설물의 해로운 영향과 그 중독성에 관하여 신중하게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테이프, 음악 등의 모든 오락물을 선택할 때 엄격하게 관리하십시오.

이런 파괴적인 것을 구입함으로써
외설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데 공헌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격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학, 건전한
양서, 선택된 영화와 텔레비전,
정통적이고 모범적인 대중 음악, 영과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오락물을 통해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권고
드립니다.

둘째, 우리 지역 사회에—
회원에게나 비회원에게나—우리의
음성이 들리게 합시다. 어떤 것이
고상한 표준을 손상시킬 때 어느
누구도 침묵을 지키면 안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추잡한 외설물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깨끗한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지역
사회 단체와 함께 꾸준히 일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과 뚜렷한
관계를 갖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여성과
순진한 어린이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돕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저속한 것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 사용, 후원하지 못하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점포, 극장, 서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의 관리를
실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노력은 헌법에 일치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설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전국에 점포를 갖고 있는 일부
연쇄점에서는 일부 저속한 잡지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고객들의 정중한 부탁에
호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한
일에 감사하며, 다른 업체들도 이들을
뒤따르도록 권고합니다.

셋째, 우리는 외설물을 금지하고
저속한 것을 규제하는 법의 공정한
집행을 지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뽑은
관리 및 법률 집행인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노력에
감사함과 동시에 사악한 것의 유포를
금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힘들고 때로는
감사받지 못하는 일을 일관성있고
공정한 방법으로 계속 행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넷째, 유선 및 위성 중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냥
두면 외설물이 조장하는 중독, 강간,
어린이 학대 및 수많은 사회악에
의하여 자기 생애를 망치게 될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합리적이고 헌법에 일치하는 법안
제정을 지원합니다. 이런 법안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의 한계내에서 조심스럽게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외설물 산업은 이미 견잡을
수 없게 되었고, 억제하기에는 너무나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호한 생각에
반대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국가의
도덕적인 신조가 걸려 있고 거룩하신
권세의 도움을 받는 이런 훌륭한
대업에 있어서, 일치 단결한 선의의
사람들이 어떤 장애와 도전도 극복하고
우리 주님과 구세주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사업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사이에는 뚜렷하고
분명한 경계선이 있단다. 주님의 선
안에 있을 때는 그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지. 그러나 악마의 영역으로 1인치만
들어가도 유혹의 힘이 미치게 되며,
사고력과 이성을 잃게 되는데 이는
주님의 영을 잃게 되기 때문이야.”
(용서가 낳는 기적, 211페이지)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가정을 강화시키고—
이것에 대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강화시키고도
하면서—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막기
위하여 간교한 방법으로 작용하는 악한
힘을 인식하도록 축복받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 구세주이자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서반아어 통역자인 에드나 알바가 대외 말씀을
대버네클에 있는 영어를 모르는 참석자를 위하여
동시 통역을 해주며 텔레비전 모니터로 대외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움

휴 더블류 피녹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좌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때 때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역사할 때가 있으며,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주제를 연설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더 철저히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 펜실베이니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개신교의 회중을 거느린 목사의 방문을 받고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를 교환하고 상호간에 동의할 수 있는 교리상의 문제들을 토론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대화를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분들은 내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한 신앙을 가르치는데,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교회 정사, 6:302-17 참조) 그는 오래 사용하여 곱게 닳은 흰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을 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민첩하게 그 성구를 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숨을 헐떡이면서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에 대해 머뭇거리며 동의하였다. 우리는 다른 성구를 찾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는 이해하였으며, 우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새로운 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떠났고, 나는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치는 진리에 새로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거의 떠났던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멀리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므로 나는 승락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교회를 깎아 내리려는 비방자들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온 옳지 않은 소문과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한 시간 동안 경전을 같이 찾아보며 성구를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에 안도의 빛을 띄우며, “제가 그 동안 잘못 인도되었었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죄를 범하는 교회의 적들이 말한 그릇된 가르침에 실망했으나, 자신이 다시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따른 함께 경전을 읽은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침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많은 혼돈과 오류가 생깁니다.

수개월 전에 한 친구는, 최근에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교회의 많은 회원들 괴롭히고 있는지에 관해 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마지막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심지어 택함을 받은 자까지 미혹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 24:24 참조)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부분적인 대답은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의 분반 공부 시간에 참석하라는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대화에 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누가 자기 연민과 죄의식에 빠지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주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보고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그들 모두 떠나고 주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복음 8:10-11)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고객이나 고용주나 고용인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딤후 3:13).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가 점차 상처를 입으며 분별의 영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정직한 행동의 벌은 아주 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고전 15-29장 참조), 벨기세메 신권(히 5:6, 10 참조),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엡 4:11 참조)와 함께 신약 성서에 기록된 초대 교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가증스러운 아동 학대의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마
18 : 6)

니파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온 세상에 범람한 것처럼
보이는 교묘한 인간 철학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신뢰하며 욕을 방패로 삼으며 성신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교훈에 귀
기울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니이 28 : 31)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 3 : 20)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바로 다음
구절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 3 : 21)
에서 가르친 개념을 이해한다면
자녀들에게 보다 사려 깊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귀한 말씀, 즉
음행하는 자는 성신이 기하는 성전인
자신의 육신에 죄를 범하는 것이며
우리의 육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지금처럼 부도덕이 일반화되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과 영을
샀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소유물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6 : 15-20 참조)

현대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들을 보다 완전히
이해한다면 부부간의 견해 차이와
좌절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그렇게 빨리
이혼이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신앙을 부인하는 자라. 영을 지니지
못하리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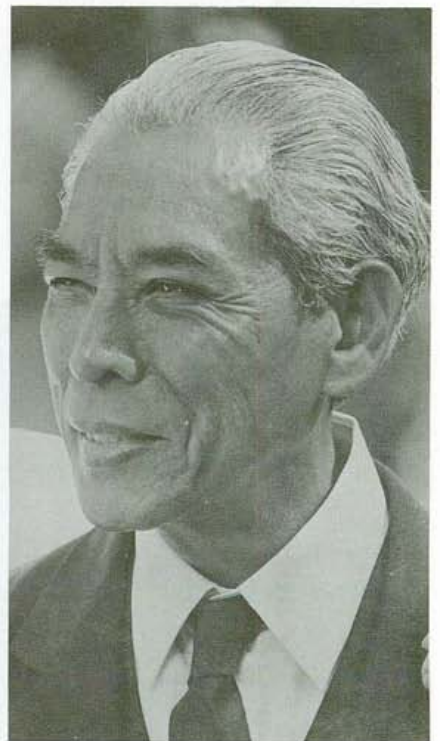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가르침과 교리를 잊어
버리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좌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에 더욱
부합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 모임을
3시간으로 통합하도록 모임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매주마다 168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인에게도
주인과 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경전 학자에게도
교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3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성도의 벗/1985년 1월호



대회 방문자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가
어머니인 플로렌스 피녹크 자매와 함께 있다.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회장단들은 그 시간에 회장단 모임을 가지며, 회원들은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접견을 합니다. 보다 더 열심히 경배드림으로써 우리 지도자들은 보다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보좌들은 보다 잘 보필할 수 있고, 회원들은 보다 지속적이며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이나, 상호 부조회 회장, 청녀 회장, 벨기세메 대신권 정원회 지도자 또는 스테이크 부장이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복음 교리반에 참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손에 경전을 들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과 다른 회원들 및 친구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청녀 및 초등학교 공과와 관련이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종종 슬프고 고달픈 이 세상에서 보다 행복해지고 덜 좌절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도 경전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4년마다 교회 성인 교과 과정을 통해 경전을 주의깊게 통찰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각 회원은 경전에 관한 문외한이 아니라, 경전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파이안스 장로가 아내 헬렌과 함께 경전을 공부한 방법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대회 임무 때문에 복음 교리반에 함께 앉아 물문경을 배울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진도에 따라 주의깊게 경전에 표시를 하며 함께 교재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그들은 물문경 공부를 끝냈으며, 올해도 다시 그런 경험이 계속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경전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경전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종 보름달 아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신학 연구원 중등부, 신권회, 주일학교 또는 청녀 모임에서 배운 성구를 기억함으로써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만남이나 판매에 필요한 완전한 정직과 수양은 개인적인 경전 공부나 잘 준비된 교사를 통해 배운 원리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왕국에서 교사들인 여러분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며 사랑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독신 회원들은 불안과 걱정 그리고 좌절감을 복음의 가르침에 입각한 결정을 함으로써 극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실천할 때만 성공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부유한 유산의 상속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받은 교리적인 상속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들 각자가 정구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우리 예언자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며 우리가 배운 것을 계속하며 실천에 옮길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왕이고 구속주이며 주님이시고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교회에서의 봉사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교회 부름의 멩에가 아프거나 자극을 받으면 그 직책에 대해 더 배우고 그 일에서 자신을 교육시킴으로써 그것을 깎아 내고 매끄럽게 합니다.”



이 부름을 받기 전에 나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매리온 더 행스 신전장님의 보좌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모든 신전의 종사자들을 격려하시던 태도는 청소년 클럽 회관의 벽에 붙은 손으로 쓴 글씨 표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낮게 행동해서는 안되며, 아무도 낮게 행동해서도 안되며, 모든 사람은 훌륭해야 한다.”

오늘 이 연단에 있을 때 나는 훌륭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소는 예언자와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 신성하게 된 곳이고, 그들이 서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한 곳입니다.

나는 다른 형제님들과 더불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임무는 에이 디어더어 터틀 장로님과 제이콥 디오리 장로님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부를 둔 남아메리카 남부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같은 큰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나는 새로운 봉사의 멩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새로운 봉사의 멩에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주 전세계의 충실한 수천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오스본 자매와 나는 내가 지역 대표로 봉사하던 필리핀 루손 섬의 중심지의 좁은 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가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양쪽 바구니에 야채와 산물을 가득 담은 멩에를 어깨에 지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사진을 찍기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은 후, 그는 내게 오기 위해 짐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먼 거리를 가기에 짐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예요, 양쪽이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멩에가 아프지 않습니까?”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러나 막대기를 파서 거친 돌로 매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꼭맞고 편합니다.” 나는 또한 천으로 만들어진 작은 덮개가 그의 목에 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울퉁불퉁한 길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차를 몰고 떠나면서 그때야 비로소 나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구세주의 청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28-30절)

우리는 관습적으로 또한 당연히 이 아름다운 안식의 약속을 왕국 밖에 있는 자들-즉 예수님의 구원 및 승영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초대를 교회 안에서 슬픔, 낙심, 병, 분제 또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이용합니다. 나는 이 성구를 통해 큰 위안을 얻을 또 다른 수많은 충실한 말일성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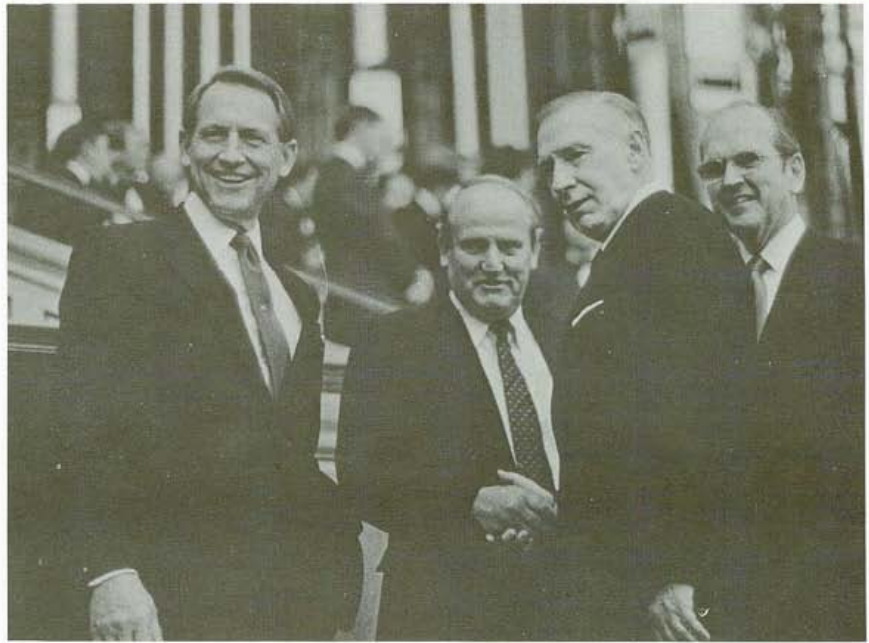
이 그룹에 속하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봉사에 대한 책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구-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그의 성역 메시지, 속죄를 깊이 생각하는 끝없는 과정-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임무를 맡게 될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하는 만큼 경진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두번째,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입니다. 온유함은 주님께 성공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기꺼이 영의 인도를 받으며,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년간 교회 임무를 수행하면서 짐이 너무 무거운 때는, 그것의 균형을 맞추고, 위임하여 가정과 사업과 그 밖의 다른 일들이 서로 균형잡히게 한다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멩에 때문에 아프거나 자극을 받으면, 그 직책에 대해 더 배우고 그 일에서 내 자신을 교육시킴으로써 그것을 깎아내고 매끄럽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멩에가 편하고 가벼워집니다. 물론 목에 댈

완충물이나 덮개는,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며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현재로서는 나의 새로운 명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운 스페인어로 좀더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매끈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이 명에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임무가 요구하는 한, 기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원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총관리 직원들에게 이 새로운 봉사의 명에를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십이사도 정원회의 세임즈 이 파우스트 장도가 신권 대회에서 말씀을 한 브리감 영 대학교 미식 축구 수석 코우치인 알 래블 에드워즈와 악수하고 있다. 좌측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하트만 레터 이세 장로, 우측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있다.



태버나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회원들

사람들의 신앙

필립 티 손태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여러분이 아들과 딸 그리고 부부 선교사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 보니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지명을 받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력이 부족하여 내 마음의 느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강의 왕자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가 보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으며, 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의 왕국이며, 그의 권능을 지니고 지상에 세워진 유일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물론경은 참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지지합니다. 나는 롬니 부대관장과 핑클리 부대관장과 십이사도와 그 외에 모든 총관리 직원들을 지지합니다. 나는 그분들과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며, 특별한 증인이 되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남태평양 지역을 관여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심프슨 회장님과 해리스 회장님과 함께 그 지역 회장단에서 일하며, 그 지역에서 신앙과 열의를 느낀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을 강화하고 확립하기 위해 여러분이 보여 주신 헌신과 기도와 회복의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해 그 땅에 보내진 복음 선교사들에 대하여 그 바다의 여러 섬에 사는 성도들의 감사와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러한 선교사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와 신앙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대한 공헌의 결과로, 문명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토착민을 위해 최초로 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흥분된 시간이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지역은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다윈의 시장도 와서 하루를 지내며 교회 헌납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주민들을 준비시키느라고 바빴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타주만큼 큰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일반 원주민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나 최근에 한 특별 모임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노래를 B-76)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양볼에 눈물을 흘렸으며, 모임을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이것을 보지 않았으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신앙과 힘과 친절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이 행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통가섬에서 300명의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원주민 젊은이들이었으며 청년들은 흰 셔츠와 넥타이와 원주민복 차림이었으며 젊은 자매 선교사들은 긴 치마를 입고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자랑스럽게 이름표를 달고 매우 가난한 집들을 가가 호호 방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전할 때 구리빛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빛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하아파이를 떠나 총관리 직원들이 거의 방문한 적이 없는 작은 섬을 배를 타고 갔습니다. 부두에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끌어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부두에서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학교로도 쓰이는 그 교회에 다 가갔을 때, 우리는 어린이들이 자기네 말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59장)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전해 줄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온 섬에서 모여 든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이 충만한 모임이었으며 모임이 끝나자 우리는 교회의 후미에서 열리는 우리를 환영하는 특별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정부 대표도 참석하여 말씀을 하면서 그는

그곳 주민의 교육과 생활 향상 및 강화에 기여한 큰 공로에 대해 교회와 총관리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주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습니다. 만찬에서 그들은 큰 돼지고기 구이를 내놓았고, 아주 잘 대접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대되었고, 식탁에는 그 섬에서 생산되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그들은 남은 돼지고기를 배로 가져 와서 한사코 여행 중에 즐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배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섬의 관리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에게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영을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습관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내일이나 다음주에 실행하는 것보다 오늘 실행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상기시켜 주었으며, 그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 교회에 내는 적은 헌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땅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많은 십일조와 다른 헌금들을 생각할 때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참화를 입은 후 그 섬이 복지 프로그램 덕택으로 지어진 집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왕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기꺼이 바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며, 또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오는 힘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최후에 영원한 진리의 관점을 통하여 보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 중요한 면에서—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속하기를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8)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은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 발휘되어 왔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힘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국가로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 은밀한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그만 섬인 통가 왕국은 국제 날짜 변경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작은

국가이며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어떤 현명한 통가 국왕이 통가에서는 안식일을 영원히 거룩하게 지키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현대 문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가에 왔습니다. 평일에 수도 누쿠알로파에 가면 보통 트럭과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과 상품을 산뜩 쌓은 가게와 시장에서 수천 명의 장보는 사람들이 북적대며 물건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최신의 영화를 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식 버스가 관광객들을 비행기 시간에 맞게 수송하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인공 위성을 통하여 얼마나 빠르고 또 분명하게 미국으로 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로는 복잡하며 사업이 잘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을은 전세계에 있는 이와 비슷한 수많은 마을과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가 왕국에 일요일 아침이 밝아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심가로 가면 택시나 버스나 사람의 무리 등이 없는 텅빈 거리를 보게 됩니다. 점포, 시장, 극장, 사무실이 모두 닫혀 있습니다. 비행기도 날지 않고 배의 출항이나 기항도 없으며 상거래는 일체 없습니다. 어떤 시합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갑니다. 통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맨 먼저 맞이하는 국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주님의 축복을 못 볼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면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복하셔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주민이 우리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단순하고 잘 보존된 예배당이 점점이 퍼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지역 출신의 깨끗하고 미소를 띤 선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통가에는 아름답고 잘 다듬어진 신전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오래 전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집회 참석과 십일조의 충실도는 거의 최고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성도들은 꽤 심한 박해를 받았으나, 그것이 오히려 진심으로 영생을 찾는 사람들을 더욱 선결케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나는 주님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최후에 영원한 진리의 올바른 관점을 통하여 사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 중요한 면에서—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꾸준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올 축복을 얼마나 많이 막고 있는지 알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다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통가에 살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기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바로 이곳의 계곡에서 일어난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6월, 나는 유타주 북부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러는 지명을 받았습니. 나는 토요일에 캐치 계곡을 가로질러 차를 몰고 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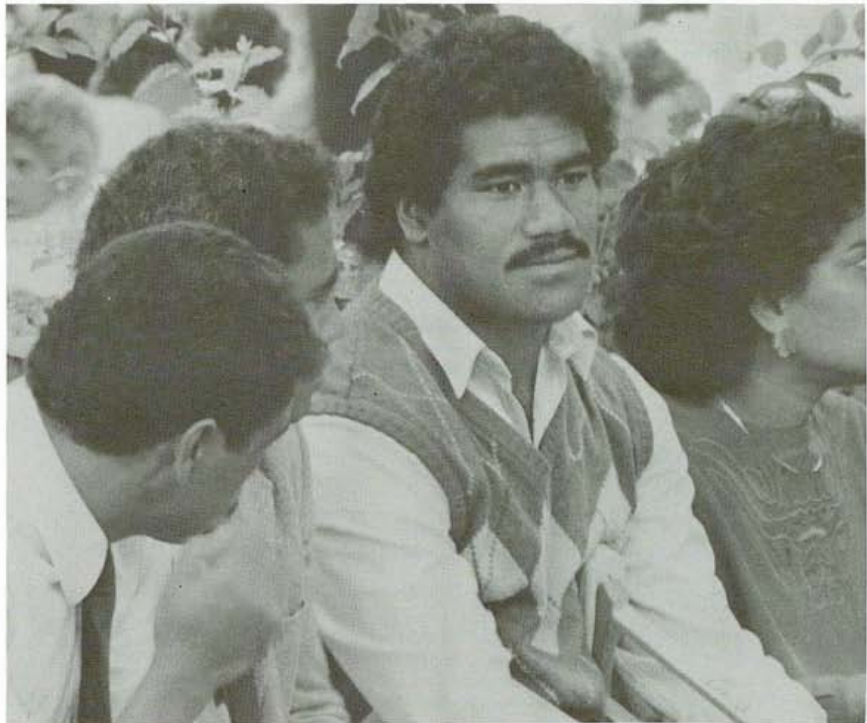
그 평화롭고 푸른 계곡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등대 같은 로간 신전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그 맑은 여름 날 북쪽으로 계속 가면서 다양한 농산물이 풍요롭게 자라는 녹색의 들판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알팔파 사료 농장과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방금 베어 낸 건초의 냄새를 맡으며 그렇게 잘라 내듯이 반듯하게 경작한 밭의 끈계 뻗은 이랑과 단정하게 베어 낸 광경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언덕 꼭대기에서 차를 길 옆으로 대고 차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계곡에 완전히 심취되었습니다. 어디를 보나 건초를 베서 묶고 운반하는 똑같은 활동을 하는 광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스테이크로 가서 훌륭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아이다호주 남동쪽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그곳까지 절반 이상을 왔으므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요일 오후에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다음 캐치 계곡의 남은 지역을 가로질러 출발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가지 않아서 아이다호에 들어섰으나 경치나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 초록색 들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건초의 냄새에 휩싸여 심취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언덕 꼭대기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서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그 전날 본 것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래, 사실은 어제보다 더 아름답다.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태양과 구름과 들은 똑같았습니다. 왜 이 일요일 오후의 이 광경은 그 전날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껴질까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나는 멀리 자그마한 말일성도 예배당과 몇 대의 차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좀 조용하면서도 매우 분명하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것이 달라. 오늘은 아무도 풀을 베거나 운반하지 않아.”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학생 워드 회원으로서 올림픽 체조 선수로 두 개의 금메달을 딴 피터 비드마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에 온 수많은 말일성도 사이에 있다.

나는 보이는 곳은 전부 다 둘러보았으며, 온 사방의 건초밭과 트랙터, 풀 베는 기계, 트럭이 모두 들에서 쉬고 있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며 그곳은 캐치 계곡으로서 주로 훌륭한 물몬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북쪽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사방을 베어 내고 묶고 운반할 풀과 장비가 있고 날씨가 지도 그런 일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지만 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곡 주민은 더 높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캐치 계곡에서는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들에서 온갖 기계가 기다리고 있는 수십 내지 수백 개의 농장을 지나쳤는데, 이 농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월요일이 올 것을 기다리며 또한 기계와 사람들이 다시 활동할 것을 기다리며 토요일 저녁에 떠난 곳입니다. 나는 “혹시 누가 이 순간을 깨뜨리지 않을까? 혹시 누가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퉁이를 돌거나 언덕 꼭대기에 도달할 때마다 사방을 둘러보고 또 본 다음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며 이제 이 아름다운 계곡의 끝이 다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누가 이 순간을 깨뜨릴까? 이 계곡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얼마나 마음이 조이는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거나 언덕으로 올라설 때마다 두려운 예상을 하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장면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미소지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서 캐치 계곡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간선 도로와의 합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보고 또 보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차를 대 놓고 나와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펄쩍 뛰며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캐치 계곡아, 너는 해냈다. 해냈단 말이야. 내가 너를 통과했던 말이야. 넌 내가 보는 것을

몰랐지만 너는 해냈어. 풀을 베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트랙터도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고 짐을 나르는 트랙도 없었다. 넌 해냈단 말이야.”(나는 일요일에 그 계곡의 북쪽 끝을 통과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뉘든 그곳은 캐치 계곡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일요일 오후에 캐치 계곡을 보셨습니까?”

비록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으나, “그래 우리는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쁘게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너무나 기뻐서 황홀한 지경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후 얼마 동안은 그 일요일 오후를 마음으로부터 지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매우 중요하고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 즉 계곡 전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느낌을 나는 간직했었습니다.

그 광경은 당시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많이 반복되었으나 수많은 현재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겨울이 왔으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매주 주말에는 세상의 여러 곳으로 여행하였습니다. 몇 수 후에 나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심하게 어기는 것으로 유명한 어떤 도시의 대회에 참석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 부패와 방탕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괴로웠던 그 주말 이후로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이보다 더 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주님은 50명의 의인으로 인하여, 아니 10인의 의인만 있어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공상에 빠져 멸망의 천사 군대가 하늘로부터 풀려나 땅을 울리며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앞뒤 상황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이 단단히 결심한 멸망의 천사들 앞에 서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멈추시오.”라고 외치자 그들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이 뒷걸음쳤으며 그들의 눈빛은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멸망의 천사들은 매우 조급하게 보였으나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의 대장이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가? 그때는 이 땅의 사악함을 못 보았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세상의 더러움을 알며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것과 그의 거룩한 날에 상행위를 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온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대체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할 어떤 권리를 가졌습니까?

나는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그의 눈길에 고개를 숙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았으며, 마침내 수개월 전에 얻어 이런 순간을 위하여 소중하게 넣어 둔 희미한 추억을 향하여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녹색의 계곡의 광경이 내 앞을 스쳐서 의식 속으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고 “그때는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가?”라고 말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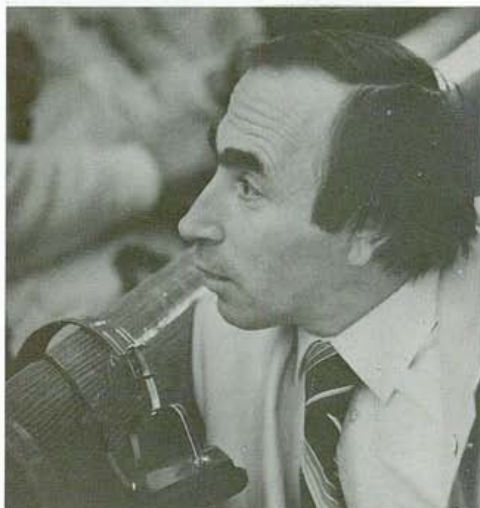
나는 확실한 지식과 영적인 인도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캐치 계곡을 가 보았거든요.”

아무 주저함이나 분노나 놀라는 표정이나 실망의 표정이라곤 없이 오직 순종할 따름이었으며, 그는 돌아서서 자기 군사에게 갔으며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도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지역 사회로서 국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려면 그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우로든지 매우 심각한 것에 직면할 때, “정지, 정지, 정지.”라고 말할 수 있고, 왜 그러느냐는 도전을 받을 때(자기 사신으로부터 도전받을 때라도) 순종과 영의 확신을 통하여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어느 일요일 오후에 캐치 계곡을 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생활하기를 살아 계신 구세주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대상은 계속 전진합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교회는 조직되고 준비를 갖추어 정해진 행로를 따르는 큰 대상과 같습니다. 몇 마리의 사냥개 짖는 개가 발 뒤꿈치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신앙에 충실한지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몇 가지 제안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생에서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상속받기 위하여 이 질문 모두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몹시 사랑하는 형제이며 고대의 사도인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로 훈계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 13 : 5)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진리와 의의 대업에 있어서 용감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 누구나 어느 날엔가는 대답해야 할 수많은 질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테스트 1 : 나는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거짓 신-소, 악어, 나무 및 육체, 지체, 열정도 없이 광활한 우주를 가득 채운다고 하는 영체를 경배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계 4 : 7) 거룩하신 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가 함께 거하였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구원의 계획을 정하고 세우셨으며, 이것은 당신의 영의 아버지가 이 계획에 의하여 발전되고 진노하여 그분처럼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로서 살과 뼈의 육신을 소유하신 분이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 1 : 27)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입고 승리하신 분이로서, 그분에게는 모든 충만함과 완전함이 깃들어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권세와 힘과 통권을 갖고 계십니다.

테스트 2 : 나는 아담의 타락을 믿는가?

타락의 교리를 배척하거나 인간은 진화의 마지막 산물이며 따라서 타락에 예속되지 않았다고 믿는 종교 체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지구와 인간 및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필멸성, 출산 및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 또는 낙원 같은 상태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태고 시대에 아담과 이브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나.”(니이 2 : 23)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이 2 : 25)

아담은 타락에 의하여 세상에 영적 및 육체적 사망을 가져 오고 이 지상 생활이 시험 기간이 되게 했습니다.

테스트 3 :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내 자신의 개인적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욥과 함께 그것을 증명합니다. 흉악한 질병이 내 육체를 멸망시킬지라도, 죽음의 검에 의하여 내가 죽을지라도……자신의 피로 나를 사신 그가 곧 지상에서 통치하실 것이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을 압니다. (욥 19 : 25-26)

나는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처형당하여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영원한 영광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가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곧 다시 오시리라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 한 분의 증보자이시며 그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주시며 타락한 인간이 그를 창조하신 분과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합의 성역이 그분의 사업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나의 형님이요 친구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요, 하나님이며 왕이시며 그의 신화의 모든 권위에 대해 내가 경배하는 분이며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나의 구속주, 구속주, 하나님이 되실 분입니다.

테스트 4 : 나는 참된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구속주도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도 하나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고 곧은 길도 하나요 우리 필멸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 내려질 수 있는 길도 하나 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며 땅과 하늘에서 인봉할 권세를 지닌 합당한 집행자에 의하여 침례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하며 성령의 권세에 의하여 성결케 되어야 하며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테스트 5 : 나는 이 마지막 은혜의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복음을 그대로 믿는가?

모든 인간이 이것을 알게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천사의 합창단이 그 경이와 영광을 노래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원한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 선언할 때 모든 인간이 엄숙하게 기립해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므로 모든 눈이 보고, 모든 귀가 들으며, 모든 가슴이 깨닫리도록 합시다. 영원한 진리를 필멸의 인간에게 선언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 궁전으로부터 천사들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에게 성신의 은사가 부어 내리며, 수많은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찬양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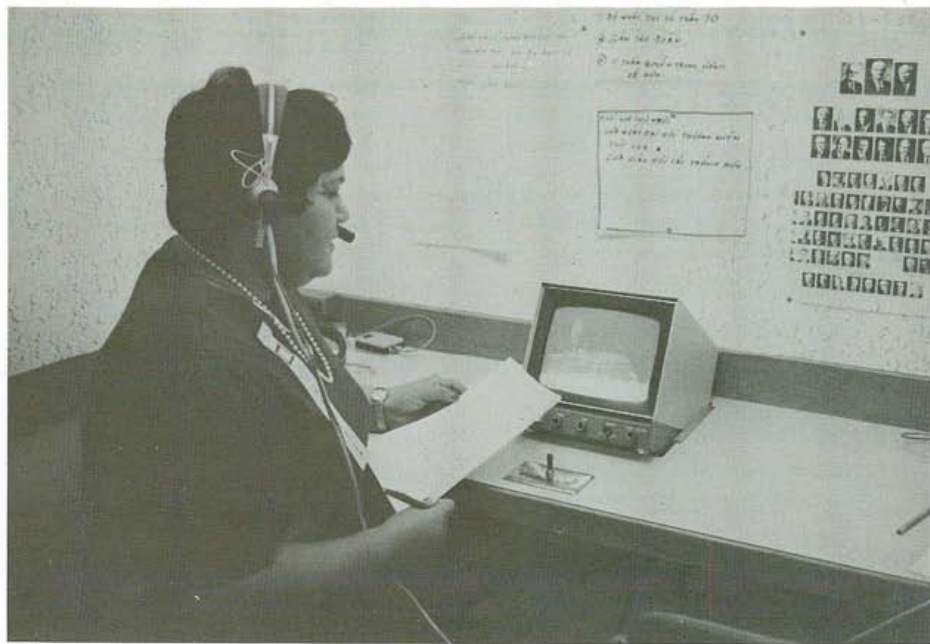
땅 끝에 있는 자들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며 하늘이 열렸으며, 우리는 그의 복음을 갖고 있으며 열쇠와 권세가 인간에게 다시 부여되었으며 모든 인간은 돈이나 대가없이 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배불리 먹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구원은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테스트 6 : 나는 참된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거짓 신으로부터 또는 거짓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릇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잘못이 섞이지 않는 수정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 이 진리만이



대회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중계에 참여한 수많은 기술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오디오 엔지니어는 대회 총회의 영상 방송을 조정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7 : 나는 요셉 스미스를 위대한 회복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가?

예수님 시대에 사악한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고 그분을 거짓 예언자라고 욕함으로써 참된 기독교인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악의에 찬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똑같은 방식으로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후임 예언자들에 대하여 인간이 느끼는 방식으로 인하여 참된 신앙인과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말일의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에게 하늘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부를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 : 1-2)

왜 이렇게 될까요? 요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지식을 회복한 사람이며, 충만한 복음이 담긴 물문경을 번역했으며, 모세와 이사야가 받은 것 만큼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천사의 성역자들이 열쇠와 권세와 신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상에서 묶고 하늘에서 영원히 인봉되게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유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 해도 그런 사람의 손으로부터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테스트 8 : 나는 끝까지 견디며 은혜 가운데서 자라며 하나님다운 성품을 얻고 있는가?

이 말은 곧 베드로가 권고하듯이 내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벧후 1 : 5-7 참조)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빌 2:12 참조)

요한이 약속한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도록, 하나님이
빛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속을 걸으며
성도들과 우정을 쌓고 있는가? (요일
1:7)

니파이가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니이 31:20)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참고 있는가?

나는 주 예수의 말씀에 따라 성도에
대한 특별하고 거룩한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자신이 참된
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가? (요
13:35 참조)

테스트 9: 나는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것을 맨 앞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와 나의 것에 대해
관계있는가?

지금은 하늘 궁전에 계시는 축복받은
추역의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41년 444페이지, 설교집
11:249 참조)

그의 친구들은 이 말씀을
되뇌었으며,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도
되살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전 시대의 한 현명한 성직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남겨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맨
먼저 택하지 않는다면 대신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결국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며 이 교회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의 왕국을 상속받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가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을 맨 우위에 둘 때,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하늘 왕국에
적합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지상의
왕국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애에서 또한 다음에 올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며” 또 그렇게 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현세나 영원한
세상에서 영감의 통치를 받으며 언제나
주님을 마음과 뜻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든 그의 종의
음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성 1:38
참조)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또한
그가 지상에서 지명받은 그의 왕국의
역원들을 통하여 어떤 권고를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말일성도는 그 누구도 주님께서
그의 지상의 왕국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계신하신 것에 반대되는
입장을 절대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참되고 충실한
말일성도라면 그 누구도 신앙을
악화시키거나 파괴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주장을 옹호하거나 그런 기사나
책을 퍼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복음에 관한 한 중립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멀리 흩어지느니라.”(마 12:30)

또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 위한 자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자니라.”(니이
10:6)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돕지 않는다면,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업에 용감하지 않고 그의
예언자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테스트 10: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도록 생활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요, 의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두 주님을 즐겁게 하고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참되고
진실했던 충실한 성도들의 생애에는
주님이 그들에게 “너는
승영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참된 제자인지
시험해 보는 많은 테스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지금 나는 참된 제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
시대의 간증에는 지상의 왕국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승리하리라는 계시된 지식도
포함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교회는 조직되고 준비를 갖추어
정해진 항로를 따르며 곳곳에 십부장,
백부장이 있는 큰 대상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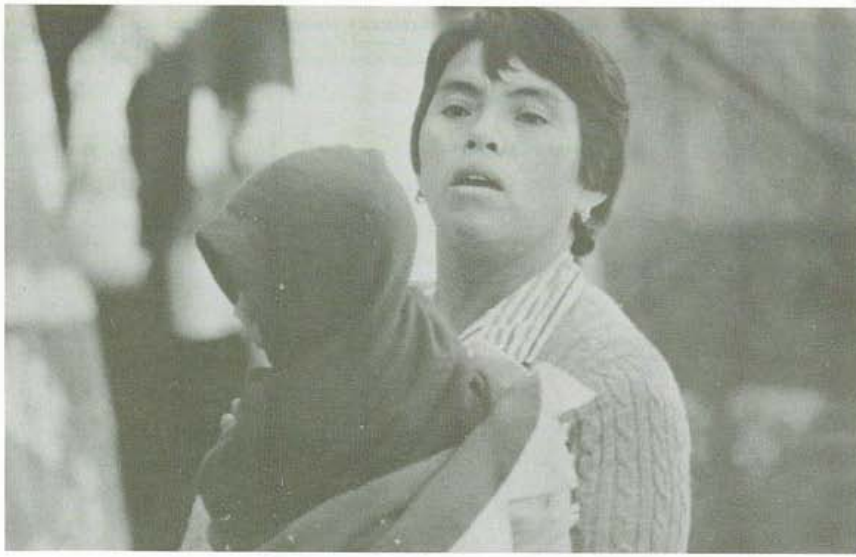
몇 마리의 사납게 짚는 개가 피곤한
여행자의 발 뒤꿈치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한
도중에 대열에서 이탈한 몇 사람이
약탈자의 손아귀에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상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건너야 할 협곡과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건너야 할 진흙 수렁을 기어
올라야 할 험준한 언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으라고 하십시오. 소들은
강하며 그 인도자들은 현명합니다.
대상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가는 길에 폭풍우가 들이치고 다리를
휩쓸고 가 버리는 홍수가 있고 건너야
할 사막과 강이 있습니까? 이 타락한
세계에서의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대상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앞에는 해의 왕국의 도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이 있으며 이
대상에서 자기 위치를 계속 지키는
사람은 모두 거기에서 식량과 물과
휴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상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들의 여러가지 모습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교회에서 자신이 회원됨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 이런 사회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기쁨의 영을 키우십시오.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얼굴에 복음의 빛이 비취게 하십시오.”



영 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영광스러운 대회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예언자인 교회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롭니 부대관장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고통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현명하신 프로그램에 따라 그분들을 축복하시며 위로하시고 지지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적과 왕국과 관련된 당신의 웅대한 계획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말이지만, 이 몇 마디 말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가족 생활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업무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남자, 여자,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의 활동과 책임에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좀더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100년 전 바로 이 태버내클에서 열린 1884년 10월 대회에서 대관장단 제1보좌인 조지 큐 캐논 부대관장께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서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즉 말일성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신을 성결케 하여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힘도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대적하여 힘을 합치거나 이 사업이 지금으로부터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 왕국의 성공과 승리와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우리에게 한 백성으로서 보장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설교집, 25 : 325)

나는 이 대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분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단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총관리 역원들 사이에는 사소한 분열도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러분에 대한 충성, 서로에 대한 충성, 이 대업에 대한 충성,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신 아들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도 자신에게 온 부름에 응하는 것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햇빛 속이나 폭풍우 속이거나 땅과 바다 어디든지 기꺼이 여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름받을 때 주어진 엄숙한 책임 즉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의 유익을 맨 앞에 두는 책임에 따라 생활해 왔습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지역 대표, 선교부장 등 수많은 사람들에 관하여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역 지도자로 임명받은 이런 분들의 충실함을 목격하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펼쳐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별할 권능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성별받았습니다. 그들은 판단력과 이해력, 분별력과 영감을 축복받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먼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고,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면 감독이나 지부장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양 배의 목자로서 성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권고나 충고를 부탁하는 편지가 킴블 대관장님 주소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부분이 그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

와드 및 스테이크의 회원들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과 상의함으로써 거의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역원들이 회원들과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잘 들어주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시간을 희생한다는 것을 나는 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기꺼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총관리 역원에게 편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역 지도자와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총관리 역원은 여러분의 질문을 해당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문제에 봉착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낼 용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지도자에게 권고를 구해야 한다는 교회의 확립된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상의할 때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령, 킴볼 대관장님이 건강이 좋으셔서 활력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다 다루며 동시에 그의 직책에 맡겨진 막중한 행정적인 일을 다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일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자신에게 부딪힌 문제의 해답을 모를 때 교회 대관장단에게 편지를 띄우는 것은 합당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의 질서이며, 여기에는 큰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회원됨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 다른 곳 어디에서 이런 사회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활동을 기쁘게 즐기십시오. 50년 전 런던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나는 매일 아침 동반자와 악수하며 서로 "인생은 참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인생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생활이며 보상이 따르는 생활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가정에서 기쁨의 영을 키우십시오. 분노, 조급함, 서로에 대한 부적절한 말 등의 모든 요소를 억누르고 극복하십시오. 어디에 가서



두 아들과 함께 참여한 대외 방문자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얼굴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미소를 보내실 것입니다.

본 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나도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그분이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기쁨 부음을 받으신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독생자이시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가로 바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고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언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또한 총관리 역원들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만일 네가 충실하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교리와 성약 25편에 들어 있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900여 곳의 장소에서 분리되어 모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한 마음 한뜻,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소망이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높은 생각과 삶에 이르도록 높이 들어 올리우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대통령 입후보자로 나선 월터 먼데일 후보가 연이틀에 걸쳐 교회 본부 건물을 방문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에 그 두 유명 인사를 영 자매님과 켈 자매님과 윈더 자매님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는 영 자매님은 650,000명 이상의 어린이 조직을 감리하고 있으며, 켈 자매는 25만 명 이상되는 청녀들의 조직을 감리하며 윈더 자매는 150만 명 이상되는 여성들의 조직 곧 전세계에서가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조직을 감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 두 인사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과 관리 감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원인 형제와 자매와 함께 대관장단의 회의실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교회의 여성은 형제들과 힘을 합쳐 주님의 전능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50만 명의 여성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 기고가나 보도원들은 교회의 여성을 천하고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참된 진리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유능한 세 분의 여성들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과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은 주님의 계획 아래 여성이 커다란 책임을 수행하며 그러한 책임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기 맡은 조직을 이끌어 나가며, 그러한 조직은 강하고 활기에 차 있으며,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권과 협조하는 위치에 서 있으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지니신 여성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책임맡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지도력과 힘과 뛰어난 결과를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 하나님을 도와 드리는

훌륭한 동반자로서 일하시는 것을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의 평등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임을 위해 선택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한 첫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그것은 27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은 구절의 첫 내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같은 권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매우 강력한 계명입니다. 나는 그 구절을 각자의 좌우명으로 삼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그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적어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 놓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분노를 자제하고 비난을 삼가하고 더 훌륭한 생각을 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간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해 보던 중에 나는 교리와 성약 제25편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아내 엠마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뉴욕주 페이테에서 교회가 조직된 직후인 1830년 7월에 펜실베이니아의 하모니에서 주어졌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특별히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이며 주님은 끝부분에서 “이는 모든 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다.”(1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에서 주님께 의해 주어진 권고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10살이나 11살, 12살된 소녀 여러분도 포함합니다. 나는 오늘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신 분도 많은 것인데, 이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어린 딸과 함께 있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이 상당히 좌절감에 휩싸여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일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서는 과연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다른 모든 여성,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아름다운 계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엠마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알리는 계시를 내게 주리니, 만일 네가 충실하며 내 앞에서 덕있는 길을 걸으면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너는 시온에서 상속을 받으리라.”(2절)

“만일 네가 충실하며 내 앞에서 덕있는 길을 걸으면,” 이 말은 매우 긴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각자는 전지 전능하신 분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의 일부는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내부에 있는 가장 훌륭한 것에 충실하십시오. 어떠한 여성도 자기 자신을 천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비하시킬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위대하고 신성한 속성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복음에 충실하십시오.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헐뜯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을 찾아 내려 하고, 교회 프로그램의 결점을 찾아 내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합창단이 대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힘의 참된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주님은 엠마에게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덕있는 길을 걸으면.”

나는 오늘밤 이곳에 모인 모든 여성들은 그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기 원한다면 지켜야 할 조건으로써, 엠마 스미스와 우리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덕의 결핍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덕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미덕의 고귀성에 필적할 만한 고귀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덕만큼 매력적인 자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에게 위대한 조건부의

약속을 주신 계시에서 “네 죄는 사함받았으니 너는 나의 부름을 받은 선택된 여자니라.”(3절)라고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사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 관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 : 18)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나는 고대와 현대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확실한 대답, 곧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드립니다. 과거의 슬픈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엘마 37 : 47) 사십시오.

엠마는 “선택된 여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말은 경전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주님의 선택된 그릇”이었었습니다. (모로 7 : 31 참조) 여러분 각자는 선택된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참여자로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하였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엠마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지 못한 일로 불평하지 말라.”(4절) 주님은 그녀의 남편이 번역하고 있는 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녀는 그의 서기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요셉이 그녀에게 그 금판을 보여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불평하지 말라. 나의 영원한 왕국에 있어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네가 보지 못한 일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금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는 규율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에 관해 지시를 받았습니. 우리도 또한 신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관한 규율을 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정하셨으며 그분만이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엠마는 이 계시에서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 곧 네 남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로써 위로하라.”(5절)는 부름을 받았습니.

그것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고 그의 동반자이며 그가 시련받을 때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로써 위로하였습니다.

나는 그 계시 가운데서 아내인 모든 여성들이 가정에서 어떤 음성으로 말하느냐가 문제됨을 알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잠언 15:1)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이 계시에서 주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나는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많은 다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침식시킵니다. 그것은 다만 원망과 상심과 눈물을 자아낼 뿐입니다.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 마찰이 이는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의 위안하는 말로써 이야기 하도록 얼마나 훌륭하게 권고받고 있습니까?

엠마는 “경전의 말씀을 풀이하며, 나의 영이 주는 것에 좇아서 교회 회원을 간곡히 권면”(7절)하도록 요셉의 손으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의와 진리의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 부름에 관하여 주님은 “저가 네게 안수하리니 너는 성신을 받을 것이요, 많은 것을 기록하며 배울 시간이 있게 되리라.”(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후의 계시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헌신했습니.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기록하여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든 여성이든 또는 젊은 여성이든 오늘날의 여성 여러분에게 나는 일지를 작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위대한 훈련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교육적 노력입니다. 종이 위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며 현재 또는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그밖의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줄 것입니다.

계시에는 그녀는 “나의 영이 주는 것에 좇아서 교회 회원을 간곡히 권면”해야 한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엠마와 이 교회의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 얼마나 훌륭한 책임입니까? 성신의 지시에 따라 배우고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경전의 말씀을 풀이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세상 일을 제쳐 놓고 그보다 나은 일을 간구하라.”(1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엠마에게 살 집이나 음식 및 의복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인생의 더 높은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과 사랑의 문제, 영원의 것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엠마는 교회를 위해 찬송가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교회가 조직된 지 겨우 3개월 후에 이 권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부름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종종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12절)

오늘밤 이 훌륭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 의인의 노래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라.”(13절)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물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성도 그에 포함되지만, 태양을 보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 하늘 밑의 폭풍 속으로 계속 걸어감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마음 가짐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낙관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함과 신성한 것들에 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간증을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을 지니며 교만을 조심하라.”(14절) 이 말은 앞의 계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 각자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게시합니다.

“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관을 쓰게 되리라.”(15절) 그것은 엠마 헤일 스미스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서 행복은 오게 됩니다. 말일성도 여성들에게는 계명을 위반했을 때 다만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관 곧 하나님의 모든 딸을 위한 여왕의 왕관, 의와 영원한 진리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154년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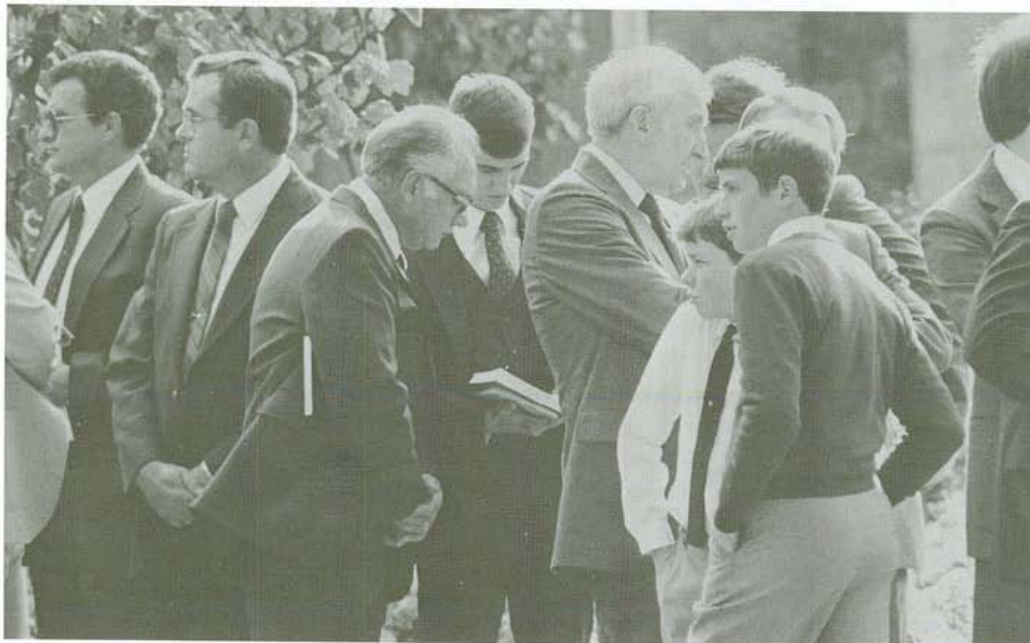
주어진 이 위대한 계시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은 게시되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읽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을 상고하십시오. 그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모임의 주제를 매우 아름답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우 감사하게 여기는 어린 소녀 여러분, 미래의 훌륭한 꿈을 꾸는 아름다운 청년 여러분, 아직 미혼으로서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숙녀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분, 혼자 되셨거나 이혼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아름다운 노령기의 여성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복음의 빛을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에게 모든 의로운 소망과, 마음에는 평화와, 일상 생활에서는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전해드립니다. 아멘. *



대회 광경



테비내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지어 서있는 회원들

통합과 협력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친밀하게 협동하고 일하며,
같은 자매애를 나누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고, 여러분이 지닌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고귀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매 여러분께서는 태버나클을 가득 메우시고, 또한 수천 명의 자매들이 전국 여러 곳에 있는 교회 센터에서 함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모임의 녹음을 통해서 결국 세계의 모든 자매들도 오늘날 교회의 자매들을 위한 이 특별한 대회의 순서를 함께 나눌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참석하신 분들에게 치하드리며, 현재의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 모임의 주제와 더불어 초등협회와 청녀와 상호부조회의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관심과 도움과 특성과 자질을 지닌 훌륭한 자매애를 나누는 일원으로서 오늘날 이곳에 모인 사실에 밀접히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몇 달에 걸쳐 대관장단과 상호부조회, 청녀회 및 초등협회 본부 임원회가 서로의 긴밀한 유대를 위해 몇 가지의 역사적 단계를 취한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활동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될 프로그램 및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 명의 회장들은 서로간에 연락을 더욱 쉽게 취할 수 있도록 솔트레이크시티 내의 같은 건물 안에 각 사무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의견 교환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그들은 많은 자료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조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교회 자매들의 관심사를 이전 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발전 상태가 어떤 면에서든 이상 세 조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부 직원들이 이곳 교회 본부에서 함께 모여 일하는 중에 보여 주게 되는 친밀감과 조화와 단합 정신이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항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는 현재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하에서 상호부조회, 초등협회 및 청녀회가 같은 시간에 모임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초등협회와 청녀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많은 성인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의 주일 공과 시간에 정규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조직 곧 초등협회와 청녀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매 여러분들이 오늘밤 이 모임에서 느끼고 있는 자매애를 계속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조직에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풍요하게 할 위대한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비유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성인 기간 동안 교회와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부름을 받아 일했으며, 그리하여 주일날 내가 속한 신권 정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그와 같이 봉사해야 함으로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신권 정원회의 회원들과 나의 사이가 갈라졌었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봉사 활동과 사회 활동 및 가정 복음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였습니다. 나는 현재 상호부조회 밖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매 여러분들이 이 봉사의 기간 동안 훌륭한 기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정원회 밖에서 봉사함으로써 나의 영적 성장의 기회나 모든 봉사의 기회가 감소되었다고 느껴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친밀하게 협동하고 일하며, 같은 자매애를 나누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고, 여러분이 지닌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이 훌륭한 삶을 위해 기여해 주신 여러분의 특별한 공헌을 인식하고 모든 자매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점점 더 연륜을 쌓아가며 깊이 관찰해 볼수록 남성과 여성의 본질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특별한 자질과 특성으로 인해 특히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근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그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슨 자매와 나는 올해 초에 유럽의 두 스테이크를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니다. 그 대회는 연 2주 동안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사업 관계로 유럽에 있었던 나의 딸과 사위가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도시의 특산품인 아름다운 도자기가 진열된 쇼핑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또한 값도 매우 비쌌습니다.

나와 나의 딸이 나란히 서서 선반 위에 진열된 도자기로 된 형상을 감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나이든 부인이 우리 쪽으로 걸어와서는

선반 위에 있던 한 아름다운 도자기 조각품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인지 그녀는 그것을 손으로 들어서 만져 보다가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그만 떨어뜨려 산산 조각을 내고 말았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에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나의 딸은 그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즉각 그 부인 쪽으로 가서는 팔을 부축해 주고 위로의 말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조금 당황했지만, 나의 딸에 대한 긍지와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말로써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녀는 구세주께서 하신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자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과 구원의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기여하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에서 여러분이 지닌 놀라운 자질을 나타내는 데 이보다 더 나은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닌 이 훌륭한 자질에 대해 여러분을 존경하고 나의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닌 그러한 자질을 확대시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서로 노력하며,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돕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여성 대회에 참석한 여성 지도자 및 총관리 역원들이 단상에 앉아 있다.

협력 : 믿음을 행함으로 바꾸자

바바라 더블류 윈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가 항상 성령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클리 부대관장님, 라슨 장로님, 총관리 직원 여러분, 캅 자매님, 영 자매님 그리고 여러 자매님들, 우리는 오늘 저녁 아름다운 음악과 훌륭한 말씀을 들으며 넘쳐 흐르는 영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직책에 부름받은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느끼며, 더불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기 태버나클 안에 있습니다만, 나는 세계 곳곳의 교회 예배당에서, 스테이크 센터에서, 혹은 지부에 모여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유능하고, 의롭고, 하고자 하는 의지에 차 있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주님께서 지상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영 자매님과 캅 자매님이 훌륭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관한 그리고 우리에게 관한 것들을 지지하는 복음의 원리들을 반영시켜 나가는 생활을 하기로 언약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여성 또는 남성들은 언제나 남을 지배하려 하기보다는 남을 섬기고자 더욱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엔사인, 1974년 11월, 104페이지)

남편이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선교부장으로 발표된 이후, 남편을 보는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의 직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며(그리고 실제로 그 책임은 큼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실제로 그러합니다)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물은 남편에 대하여 느끼는 존경심과 그가 어떠한 부름을 받든지 충실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존경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수행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 남편은 즉시 우리의 선교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았으며, 그리고 나서는 조금도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원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맺은 성약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실현하겠다는 결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다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여결 중에는 이기적이 되는 것보다는 의롭게 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된 여결들은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고결함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80년 3월, 151-52페이지)

이미 나는 그들의 영성과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깊은 감명을 주는 많은 여인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실생활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선한 행위로 전체 와드 회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독신의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에 처한 어머니(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나, 남편을 여의었거나, 이혼했든지)들은 자녀를 의로움 가운데 양육하려는 자신들의 사명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돌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편을 내조해 줍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활동과 사회 봉사를 통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여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희생함으로써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과정을 거치고, 킴블 대관장의 권고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과 진리와 의로움을 위해 크게 필요한 힘이 되십시오.....”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2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바뀌는 시온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금식 간증회에서 한 청년가 일어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초등학교에 감사를 표시하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반 공과와 활동에 잘 따르고 있는가를 칭찬해 주어 어머니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모임 시간에 한 자매가 일어서서 청년 회장으로 새로이 부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청년회에서 일하는 자매님들은 방문 교육과 자선 봉사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일 모임에서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서로를 적극적으로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매애를 나누는 우리는 봉사 행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18장 8,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모사이야서에서 엘마가 말한 침례 성약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던 바라.”(모 18 : 11)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원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침례 성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 그들의 죄가 씻어지며,
2.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자녀—교회의 회원이 됨을 의미함—로 해아림을 받으며,
3.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4. 계명을 지키므로써 영생을 얻게 되어야 했습니다.

“침례,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라 불려지게 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항상 의로움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의 다음 말씀은 성약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에 더욱 큰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은 조각은 이 사람에게서 저



성도의 빛/1985년 1월호

사람에게로 넘어갈 때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달아 시장에서 사고 팝니다. 그러나 은이 동전이 되어 주화가 되면, 정부에서 정한 대로 통용하게 되어 그것을 사용하는 나라 안에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지며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행위도 구원의 계획이라는 위대한 계획에 맞추어지는 순간, ‘영적인 주화’ 즉 영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됩니다.”(대회 보고, 1922년 4월, 97페이지)

84세되신 나의 시어머님은 나의 방문 교사가 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영적인 주화”를 받은 셈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내어 틈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실하게 나를 찾으시어(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생활에 맞는 주제를 택하여, 영적으로 크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지도자들도 격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보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어떤 친구는 자동차 사고로 두 아들을 잃고 한동안 위안받을 길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감독님을 찾아볼 수도 없어 주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보니 방문 교사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자매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를 안 친구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으나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꽃을 들고 갈 것인가 음식을 가져 가야 할 것인가? 그녀의 남편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주님께 여쭙어 보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냥 가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 자매는 친구의 출현으로 위안을 받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슬픔에 잠겼던 자매는 친구가 가져다 준 절실히 요구되었던

평안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말하고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여해 보고, 소속감을 느끼고, 친구를 원하고 있지만 사랑과 인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자매들의 호소에 나는 번민해 왔습니다. 나 역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우리에게 큰힘이 되어 줄 그리운 자매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을 필요로 합니다.

헝클리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의 자매들에게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118페이지)

복음 안에서 자매들이 함께 일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침례 성약에 관하여 니파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좋은 길에 임하니, 너희는 이제 그 문에 들어섰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대로 행하였고, 성신을 받았으니.” 그런 다음 그는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라……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니이 31 : 18-20)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이 함께 성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서로 도울 때, 우리는 하나로 뭉쳐 빛을 비치고, 선한 행위로 함께 결속하여,

“이제부터……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엡 2 : 19)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함께 협력하는 청년

아테스 지 캡
본부 청년 회장

“여러분이 영의 속삭임에 귀기울이기를 배운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인기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은 세상의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장단으로 봉사했던 처음 몇 달 동안,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힘과 기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위해 강하게 서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에게 봉사하겠다는 약속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 앤, 알로화, 크리스틴, 미셸, 세계 곳곳의 가정마다, 교실마다, 그 밖의 어디에서든 의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은 25만 명의 다른 청년들과 선을 향해 나아가는 강한 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 빛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손수레를 끌고, 극한 상황 속에서 고생을 겪으며 교회에 가입하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버림을 받았던 교회 초기의 어린 개척자 자매들의 노력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증조모님의 일지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50년 전, 수잔 켄트가 16세였을 당시 집에서 물몬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몬경을 공부한 후에, 그녀는 물몬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회생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물몬경의 진리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한 청년과 약혼 중이었는데 그와 헤어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약혼자는 물몬이 되려는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갖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결과는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즉 그녀는 약혼자와 계속 사귀기 위해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거의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나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잤나요?”라고 물었을 때는 그녀의 장례식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아 그녀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동생인 아버지께와 부모님과 함께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루이지라 그린의 개인 역사 기록)

나는 증조모님인 수잔 켄트의 물몬경에 대한 간증과 그것이 그녀의 인생과 지금 나의 인생에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증조모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각기 상당히 어려운 여러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회생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끈고 좁은 길을 따라갈 도덕적 용기가 요구되는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잔 켄트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물몬경과 현대의 예언자의 가르침에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약혼을 파기하거나 맨스나 파티의 초대를 사양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는 각종 영화, 유행, 음악 및 취미가 범람하여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되어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며, 세상의 커다란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의 영의 속삭임을 막게 하여 여러분의 영생을 위협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번주에 텍사스에서 온 한 어린 소녀가 착하게 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와 텔레비전과 광고물에서 볼 수 있는 사탄의 끊임없는 폭격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부도덕한 소리를 막아 주는 장소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부도덕한 소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밤 나는 함께 협력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위험한 길을 피해 가려면, 혼자 가서는 안됩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의롭게 노력해 나간다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더 완전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가정이나 다 소중합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중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파티에 참석했던 수년 전의 어느 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시계를 본 나는 귀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셨던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어졌습니다. 불순종은 결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몇 년 뒤에, 나의 친구와 나는 댄스가 끝난 뒤 인디안 보호 구역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외진 곳을 차로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갔으며, 세찬 바람으로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몇 킬로미터 더 나아간 우리는 차 안에 전혀 온기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는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애가 하얗게 낀 창문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에 처하게 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친구가 “네 아버지가 이곳으로 오는 데 얼마나 걸릴까?”라고 묻는 소리에 정적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나의 아버지가 올 것이라고 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셨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와 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눈보라 속을 헤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매우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많은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악한 세력은 무자비하게 우리의 가정을 불안케 하여 행복과 평화와 서로간의 사랑을 위협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어린 소녀가 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으며 눈빛에는 증오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못마땅한 점을 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 내용이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난 뒤 나는 “어머니에게 좋은 점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까지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의 훌륭한 점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을



9월 29일 여성 총회에서 말하는 아메스 지 캡 본부 청년 회장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에이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예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녀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집으로 가서 매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다툼을 없애고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노력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로 결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이미의 경우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완전한 자녀를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매일 매일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의롭게 생활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언제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딸이 위기에 처한 부모를 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직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녀야 했던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차 실직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아내를 다른 방으로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요. "여보, 우리는 물건을 살 충분한 돈이 없어요. 나는 줄리가 그 비싼 슈타를 얼마나 갖고 싶어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그 옷을 사 주겠다고 했는데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십대의 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옷을 사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와 그녀의 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아버지, 어떻게 하실거예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에게 그녀가 아버지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줄리는 가을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두 가지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12살된 남동생이 캠프에서 입을 적당한 옷이 없어서 캠핑을 갈 수 없게 되자, 줄리는 아르바이트를 한 직장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십일조를 바칠 돈을 따로 떼어 놓은 다음, 대학 등록금을 위해 매주 저축해야 할 돈을 남겨 놓고도 남동생의 옷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남았었다고 내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남동생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망과 회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가족을 분산시키고 파괴시키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에이미처럼 악보다는 선한 것을 생각한다면, 갖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목욕탕이나 자동차를 함께 쓰거나 아름다운 옷 또는 어떤 것이든간에 아직 갖지 못했지만 무척 갖고 싶은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서로 돕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안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한번에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웬 영 회장님은 여러분의 침례 성약의 의미에 관해 매우 훌륭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계명을 지킬 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를 배우고, 그것을 따를 용기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연히 세상에서 인기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나의 여동생 설리가 지은 시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고통 소리를 들어 보세요.

조용한 그 영의 속삭임을 들어 보세요.

세상의 소리는 다른 리듬, 패배의 소리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신성한 사람. 더 아름다운 영의 속삭임을 듣는 특별한 사람.

세상에는 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약(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으므로, 나의 아버지가 나를 구하려 오셨듯이, 위기가 닥치면 서로를 구하기 위해 폭풍의 속이라도 헤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로 뭉치고, 단합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학대의 악한 세력은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협했던 바로의 악한 군대처럼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의로운 가운데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기쁨을 누리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만 하늘에 고정시킨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침례식에서 맺은 성약을 지킴

드앤 제이 영
초등학교 회장

“침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며, 목적있는 생활을 뜻합니다.”



그년 7월에 나는 남편과 함께 뉴멕시코주의 소년단 훈련원이 있는 필몬트에 갔었습니다. 소나무로 뒤덮인 우뚝 솟아오른 산이 평원과 맞닿은 그 아름다운 캠프장에는 150명의 신권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러미 유드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고, 그 주에 맞게 되는 자신의 여덟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제러미는 자신의 여덟번째 생일에 침례를 받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인 엘마 형제가 그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나는 내 일생에서 경험한 가장 영적인 침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복은 가까운 와드에서 빌려왔습니다. 캠프장에서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의식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깊이가 되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원과 떨어진 곳이었습니

다. 그 시냇물이 위엄있는 사시나무 숲 사이를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기라도 하듯 독이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대가 높은 쪽의 잔디밭 위에 서서 먼저 어머니가, 그리고 다음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부터 수행될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러미에게 이제 곧 그가 주님과 맺게 될 성약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그가 맺으려 하는 성약은 복음의 모든 율법을 따르겠다는 약속과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침례 의식은 구세주를 그의 생활의 모범으로 삼는 새로운 생활로 들어서는 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덕을 걸어 내려가 자갈밭을 지나 물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께서 주신 의식의 절차를 따른 후, 그의 어린 아들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 소년의 열 여섯 살 먹은 누이는 내 곁에 서서 뺨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러미로 인해서 정말 행복해요.”

나 역시 제러미 때문에 아주 행복했으며, 그때 나는 내 자신의 침례식에서 느꼈던 그 기쁨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 입은 후, 제러미는 조용히 서서 그의 아버지와 다른 형제님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는 안수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에 비치는

햇살로 광채를 띤 제러미는 경건할 정도로 침착함을 느끼며, 경이로움과 기쁨에 가득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받으신 곳도 틀림없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과 같이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다음과 같이 한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받아야 할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구세주께서는 조용하고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는지라.”(마 3:14-15)

그리고 나서, 주님은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주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제러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확인 안수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며 그가 이제 방금 맺었던 성약의 책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는 새롭게 거듭난 생활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과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증거 하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이해한 것일까?

어린이들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침례의 물 속에서 맺은 그들의 언약을 명예롭게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리사와 같은 실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열 한 살 된 소녀 리사가 하루는 아주 흥분되어 학교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갖는 예배 모임에서 어떤 구절을 낭독하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틀린 낱말이 있어요.” 하고 리사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성신은 한 개체이고 같은 분이라고 말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리사와 그녀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이 구절은 리사가 믿고 있는 바와는 반대되는 것이며, 이것을 빼게 되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리사의 어머니는 리사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리사는 아주 밝은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그 구절을 빼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일성도들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물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리사에게 그 모임에서 말일성도들에 관해서 소개하도록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리사가 성약에 따라 생활했고 기꺼이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마 주드와 그의 아들 제러미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침례주는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물몬의 땅에 있는 깨끗한 샘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또 다른 엘마를 생각나게 합니다.

물몬경에서 엘마는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아왕에게 아빈아다이를 죽이지 말라고 청했고, 이것이 그 사악한 왕을 화나게 했습니다. 엘마는 그 도시로부터 쫓겨나 깨끗한 샘물가의 숲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광야의 이 은신처로부터, 엘마는 아빈아다이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도시로부터 그 정결한 물몬의 샘으로 나아왔고, 그곳에서 엘마는 그들에게 회개와 속죄,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모사야 18 : 8-10 참조) 그리고, 엘마는 한 사람 한사람씩 물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9월 29일 여성 총회에 참석한 자매들에게 말씀하는 바바라 더블류 윈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며, 목적있는 생활을 뜻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우리 안에 들며, 그의 백성으로 불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밝혀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모 18 : 8-9) 그리고, 영국의 열 한 살 난 소녀 리사와 같이,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이”(모 18 : 9)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들도 여덟 살이 되면 자신이 영위하는 생활에 책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열 살 그리고 열 한 살 난 소녀나 자매님과 우리들 모두에게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한 시온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교성 97 : 21) 침례 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바와 같이 더욱

사려깊고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침례 때문에 맺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신임심 깊은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도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선생님에게로 달려 가서 너무 상심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선생님이 잘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 매일 들르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원에서 신선한 야채도 종종 가져 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진실로 위안이 필요한 사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아주 추운 날씨에 따뜻한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갔던

조나단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그 소년은 학교 버스가 올 때까지 강추위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귀가 언 소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나단은 스스로 공중 전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자를 더 필요로 하는 어린 소년이 있는데 주어도 괜찮은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나단 소년이 했던 것같이 남의 짐을 나누어 질 때, 침례 때 맺었던 성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엘렌은 어린 소녀의 나이로 회개에 대하여 참다운 이해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렌은 상점에 있을 동안 값을 치루지 않은 채 어떤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온 그녀는 비참할 정도로 슬펐습니다. 엘렌은 어머니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이것을 가져 왔어요. 저대신 이걸 도로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렌, 엄마가 너대신 회개를 할 수는 없단다. 너는 네 스스로 회개해야만 한단다. 네가 그것을 도로 가지고 가서 사과를 해야만 할거야.” 그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엘렌은 해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번째 회개였어요. 이제 어떻게 일을 의롭게 처리할지를 알게 되어 무척 기뻐요.”라고 엘렌이 말했습니다.

회개는 곧고 좁은 길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해주며, 우리를 침례받을 때만큼이나 정결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속삭이시며 우리에게 그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하늘의 목표대로 살아왔네.
날 때부터 주의 빛 찾아 지상에
홀륭한 집 갖게 되었네.
하나님 계획 따르면
말씀과 사랑주시리.
일하고 기도하리
항상 주의 길 따르리.

지상이나 하늘에서
나 항상 행복하리.

열 살과 열 한 살 소녀들은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왕국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니이 31 : 18 참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엘마가 가르친 대로 해야 합니다.

“.....오직 한 신앙과 한 침례로써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앞을 바라보게 하라.....”(모사이야서 18 : 21)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킬 것을 주님께 성약했습니다. 리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티나와 같이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조나단과 같이 우리는 남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엘렌과 같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맺었던 성약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 회장 바바라 더블류 윈더(중앙), 제1보좌 조이 에프 에반즈(좌), 제2보좌 조앤 비독시 자매.



솔트레이크 신전



